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3

레위기

기독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레 위 기
Leviticus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11:44)

כִּי אֲנִי יְהוָה אֱלֹהֵיכֶם וְהִתְקַדִּשְׁתֶּם וִהְיִיתֶם קְדֹשִׁים כִּי קָדוֹשׁ אָנִי
וְלֹא תְטַמְּאוּ אֶת־נַפְשֹׁתֵיכֶם בְּכָל־הַשֶּׁרֶץ הָרֹמֵשׂ עַל־הָאָרֶץ׃

레위기 차례

레위기 서론 …… 〈13제〉 … 11
제 1 장 번제 드리는 법과 그 예물 …… 〈25제〉 … 15
제 2 장 소제 드리는 방법 …… 〈22제〉 … 21
제 3 장 화목제와 그 예물 …… 〈15제〉 … 26
제 4 장 속죄제와 그 예물 …… 〈25제〉 … 30
제 5 장 속죄제와 속건제 …… 〈23제〉 … 36
제 6 장 각 제사에 대한 제사장의 직무 …… 〈22제〉 … 42
제 7 장 각 제사에 있어서 제사장의 몫 …… 〈28제〉 … 47
제 8 장 아론 가문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다 …… 〈19제〉 … 53
제 9 장 위임받은 후 드린 아론의 첫 제사 …… 〈15제〉 … 59
제 10 장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 〈20제〉 … 63
제 11 장 정결(淨潔)한 짐승과 부정(不淨)한 짐승 …… 〈23제〉 … 69
제 12 장 산모(産母)에 대한 정결의 규례 …… 〈12제〉 … 76
제 13 장 문둥병에 대한 규례 …… 〈17제〉 … 80
제 14 장 문둥병자의 정결 예식 …… 〈16제〉 … 86
제 15 장 유출병의 규례와 그 성결법 …… 〈12제〉 … 92

일러두기

- **성경 본문.** 본서는 개역 성경(1962. 5. 10. 초판) 전체를 각 장마다 가로쓰기로 수록하여 성경 연구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해가 어려운 한자어(漢字語)들은 각 문항에서 한자를 괄호 속에 병기하여 그 뜻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힘썼다.
- **장 제목.** 각 장 첫머리에 그 장의 내용을 요약하는 제목을 붙여서 성경의 대의(大意)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 **단락 구분.** 각 장의 제목 아래 부분에 그 장의 단락을 소제목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그 단락을 읽음으로 각 장의 흐름을 쉽게 알 수 있다.
- **각 장의 개요.** 각 장의 내용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읽게 될 문답 강해 제 1 문항은 그 장의 특징과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내용을 실었다. 1번 문항을 읽음으로 그 장의 성격을 이해하며 그 장에서 중요하게 취급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했다. 장 제목과 대지 구분 및 개요를 읽음으로써 기본적인 각 장 이해는 마쳤다고 볼 수 있다.
- **문답 강해.** 본서는 성경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 문답 형식의 강해 방법을 택했다. Q 항에서 성경 이해에 핵심이 되는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A 항에서는 문제에 대한 해설을 소상하고도 논리적으로 풀이하였다.
- **문답 강해의 구성.** 문답 강해는 성경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나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문제는 세부적인 문제보다 우선하도록 했다. 따라서 문답 강해를 읽어 나가면 각 장의 단락 및 세밀한 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다.
- **문답 강해의 체제.** 각 문항의 기본적인 골격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설명부와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해설부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현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밝힌 적용부로 이어진다. 그러나 진부한 해설과 적용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은 사실적인 설명만을 부가하였다.
- **서론.** 성경 66권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각 권에 대한 서론을 문답 강해 본문에 앞서서 수록했다. 각 권의 제목과 저자 및 각 권의 핵심적인 내용과 대지 구분이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성경 전체 서론과 일반적인 성경 구분법에 따라 모세 오경 서론을 비롯한 역사서 서론, 시가서 서론, 예언서 서론 및 4 복음서 서론과 바울 서신 서론, 공동 서신 서론을 실었다.
- **다양한 편집.**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보 자료와 지도 자료를 비롯하여 연구 자료와 기타 자료를 실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본문 이해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독자적인 가치도 지닌다.
- **세밀한 해설.** 외래어는 표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기록했으며 인명·지명 등 고유 명사의 경우 개역 성경의 음역과 일반 세계사의 음역을 병용하여 양자의 연결을 시도하였고,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 )안에 영문 표기를 하였다. 더우기 성경 원문의 음역이 필요한 경우 〈 〉를 사용하여 그 음역을 수록하였다.
- **평이한 내용.** 다른 참고 도서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본서의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대를 비롯하여 가능한 자료들을 제시하였으며 자세한 설명을 부가하였다.

차 례

머리말 / iii
일러두기 / v
레위기 문답강해 7
민수기 문답강해 159
신명기 문답강해 351

제 16장 속죄일에 대한 규례 ····· 〈23제〉 ··· 96
제 17장 피에 관한 규례 ····· 〈9 제〉··· 103
제 18장 성(性) 윤리에 대한 규례 ····· 〈14제〉··· 107
제 19장 선택된 백성의 법도와 사회 규범 ····· 〈17제〉··· 113
제 20장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들 ····· 〈12제〉··· 119
제 21장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정결 ····· 〈13제〉··· 123
제 22장 성물과 희생 제물에 대한 규례 ····· 〈9 제〉··· 127
제 23장 성회(聖會)로 지킬 여호와의 절기들 ····· 〈15제〉··· 131
제 24장 신성 모독 죄에 대한 처형 ····· 〈14제〉··· 137
제 25장 안식년과 희년 ····· 〈15제〉··· 141
제 26장 축복과 저주 ····· 〈17제〉··· 147
제 27장 서원(誓願)에 관한 규례 ····· 〈15제〉··· 153

레위기 특별 자료 차례

제 1 장 〈본장의 요절〉 ····· 20
제 2 장 〈연구 자료〉 제사(祭祀)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 ····· 25
제 3 장 〈연구 자료〉 성경에 나타난 피〔血〕의 개념 ····· 29
제 4 장 〈본장의 요절〉 ····· 35

제 5 장 〈화보 자료〉 비둘기 ····· 41
제 6 장 〈본장의 요절〉 ····· 46
제 8 장 〈화보 자료〉 제물(祭物)로 바쳐진 소와 양 ····· 58
제 9 장 〈본장의 요절〉 ····· 62
제 10장 〈본장의 요절〉 ····· 68
제 11장 〈연구 자료〉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 75
제 12장 〈본장의 요절〉 ····· 79
제 14장 〈화보 자료〉 문둥병 ····· 91
제 15장 〈화보 자료〉 생식(生殖)의 여신 아스다롯(Ashtaroth) ····· 95
제 16장 〈연구 자료〉 히브리인들의 정결 의식(淨潔儀式) ····· 102
제 17장 〈화보 자료〉 번제(燔祭)를 드리는 히브리인들 ····· 106
제 18장 〈연구 자료〉 원어(原語)에 의해 분류되어지는 죄의 종류(구약) 112
제 19장 〈연구 자료〉 성(性)에 관한 여러 유형(類型)의 범죄 ····· 118
제 20장 〈본장의 요절〉 ····· 122
제 22장 〈화보 자료〉 속죄 제물이 된 어린 양 ····· 130
제 23장 〈화보 자료〉 초막(草幕) ····· 136
제 24장 〈연구 자료〉 구약에 언급된 손해 배상과 벌금형 ····· 140
제 25장 〈연구 자료〉 구약 시대의 시간 개념 ····· 146
제 26장 〈본장의 요절〉 ····· 152
제 27장 〈화보 자료〉 첫 태(胎)에 처음난 자 ····· 158

레위기 서론

1. **Q 본서의 명칭인 '레위기'에 대하여 설명하라.**

   A (1) 구약 성경 각 권을 살펴보면 대체로 본문의 첫 단어나 귀절을 그 명칭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도 히브리어 맛소라 사본에는 〈와이크라〉, 즉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로 되어 있다.

   (2) 개역 성경의 '레위기'란 이름은 70인역(LXX)의 〈레비티쿠스〉를 우리 말로 번역한 것이다. 〈레비티쿠스〉는 '레위인에게 속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3) 이 책에 그러한 이름이 붙은 이유는 그 내용의 대부분이 레위인들의 사역(事役)이거나 레위 지파의 중요한 일부 구성원들인 제사장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2. **Q 본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A (1) 본서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이다.

   (2)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3) 첫째, 레위기 총 이십 칠 장 가운데 일곱 장(2, 3, 5, 7, 9, 10, 26장)을 제외한 이십 장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는 말씀으로 시작된다.

   (4) 둘째, 스6:18에 '제사장을 그 분반(分班)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5) 세째, 예수께서 마8:2-4과 본서 14:4-32의 말씀을 비교해서 말씀하심으로써 모세가 레위기의 저자임을 말해 주고 있다.

   (6) 더우기 눅24:44을 보면 예수께서 모세가 오경을 기록했다고 설명하셨다.

3. **Q 본서는 언제 기록되었는가?**

   A (1) 출40:17과 1:1, 그리고 민1:1의 말씀 및 아래 도표가 레위기의 기록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출애굽 사건	십계명 수여	성막 건립	레위 율법 수여	인구 조사	시내 산 출발
출12:41	출19:1	출40:17	1:1	민1:1	민10:11
새로운 연력이 시작됨	제 1년 3 월	제 2년 1 월 1 일	제 2년 1 월	제 2년 2 월 1일	제 2년 2 월 20일

   (2) 여기서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건립하고 인구 조사를 하는 동안에 기록되어진 내용이다.

   (3) 그러므로 레위기는 시내 산을 출발하기 전, 즉 출애굽 제 2년 초(B. C. 1445)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진다.

4. **Q 본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A (1) 레위기는 택함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경건한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기록되어졌다.

   (2) 즉 레위기는 제사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성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거룩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기록되어졌다.

(3) 이와 같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과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자 함에 따라 주어진 말씀이다.

(4) 그런데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의 영적인 교제는 제사장의 중재와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보여 준다.

(5) 여기서 제사장의 중재로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원리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의 예표이다.

5. Q 본서의 역사적 배경을 말하라.

A (1) 본서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의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정 국가로서의 형성과 성막 건립에 관한 것이라면 본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 즉 성막이 세워진 후 시내 산을 떠나기 전까지의 기간인 출애굽 제 2년 한 달 20일 동안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본서의 말씀들을 주셨다(참조, 출 40:17;민 1:1).

6. Q 본서의 특징은 무엇인가?

A (1) 본서는 제물과 제사의 규례를 다루고 있으나 그것은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록했다.

(2) 본서의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히브리서에서 가장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3) 즉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구속의 원리를 잘 말해 주고 있다.

(4) 그러므로 본서의 내용은 단순히 고대 히브리인들의 제사법의 의미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시는 것의 참된 원리를 보여 주는 것이다.

7. Q 본서 전체를 율법적 특성에 따라 구분하라.

A (1) 각종 제사에 관한 법(1-7장)

① 번제 : 헌신의 표로서 제물 전체를 불태워 드리는 제사이다(1장;6:8-13).

② 소제 : 번제, 화목제 등 다른 제사와 더불어 드리는 제사이다(2장;6:14-18).

③ 화목제 :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회복시키는 제사이며 또한 감사제가 될 수도 있다 (3장;7:11-36).

④ 속죄제 : 사죄의 목적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드려지는 제사이다(4:1-5:13; 6:24-30).

⑤ 속건제 : 주로 성막과 성물 그리고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드리는 제사이다(5:14-6:7;7:1-10).

(2)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에 관한 규례(8-10장).

① 제사 방법이 열거된 후 그 제사를 수행할 제사장들의 임명이 뒤따른다. 이 제사장 직분은 아론과 그 아들들만이 담당할 수 있었다.

② 위임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의 첫 직무에 임한다.

(3) 일상 생활을 위한 율법들, 즉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규례(11-15장)

① 음식에 관한 율법들(11장)

② 해산 후의 정결법(12장)

③ 피부병으로 인한 부정(13, 14장)

④ 신체적 유출로 인한 부정(15장)

(4) 속죄일에 관한 율법(16장)

(5) 제사에 관한 보충적 규례들(17장)

(6)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율법들(18-20장)

① 성적인 범죄들(18장)
② 선택된 백성의 행동 강령(19장)
③ 사형에 관한 중죄(20장)

(7) 제사장들을 위한 율법들(21, 22장)
(8)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들(feasts, 23장)
① 안식일 : 7일 중 안식하는 날
② 월 삭 : 매월 초하루
③ 유월절 :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
④ 칠월절 :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한다
⑤ 나팔절 : 유대 월력 제 7월 초하루
⑥ 속죄일 : 유대 월력 제 7월 10일
⑦ 초막절 :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

(9) 등대와 진설병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한 죄(24장)
(10) 제 7년의 안식년과 제 50년의 희년에 관한 율법(25장)
(11) 약속과 경고 및 복과 저주(26장)
(12) 서원과 십일조(27장)

8. Q 본서의 중심 사상은 무엇인가?

A (1) 본서의 중심 사상은 성결(holiness), 희생(sacrifice) 그리고 속죄(atonement)로 요약할 수 있다.

(2) 성결 : 하나님은 인간의 완전한 순종을 원하고 계신다. 결국 성결이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전체를 말한다. 본래 성결이란 말은 '분리하다'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카다쉬〉에서 유래된 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속된 것으로부터 분리된 삶(성결)을 살아야 한다.

(3) 희생 :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는 '희생 제물'을 그 특징으로 한다. 본래 희생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 감사의 표시였다. 그러나 피를 흘리는 희생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으로 연결되는 구속의 완성을 뜻한다.

(4) 속죄 : 레위기의 핵심은 16장의 속죄에 관한 규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속죄의 궁극적 의미는 죄로 인한 저주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속죄 행위(십자가의 죽으심)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와 그 죄로 인한 형벌을 제거하는 것이다.

(5) 결국 레위기에 나타난 성결과 희생과 속죄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

9. Q 레위기와 신약 성경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A (1) 레위기의 제사와 제물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를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

(2) 또한 레위기의 제사장들은 인간을 대신하여 속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3) 그리고 성막에 모인 경배자들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가리킨다.

(4) 이와 같이 레위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성도를 예표한 것으로서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사건을 예고하였다.

(5) 그러므로 레위기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감동과 시각을 갖게 한다.

10. Q 본서의 구성과 그 위치를 말하라.

A (1) 레위기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의 세번째 책이며 총 2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본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히브리인들의 신앙과 예배와 그들의 삶을 가장 잘 나타내 주고 있다.

(3)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본서를 대충 훑어 보고 넘어가는 것은 본서에

나타난 영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다.

11. Q 본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A (1) 본서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거룩'이다(11:44, 45; 19:3; 20:8; 21:7). 이것에 준(準)하여 '너희는 거룩하라'는 말씀을 본서의 주제로 삼고 있다.

(2)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요구와 명령이 본서의 주제이다.

(3) 본서에 '거룩'이라는 말이 무려 90번이나 사용되고 있어 거룩에서 거룩으로 이어지는 느낌을 받는다(11:44, 45; 19:2; 20:8; 21:7).

(4)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거룩을 요구하신다. 거룩은 성도가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분명한 덕이며 우리의 생활 속에서 표출되어야 할 성도만의 향기이다(참조, 스 6:10; 겔 20:41; 고후 2:15).

12. Q 본서의 대지를 구분하라.

A (1)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 제사 / 1:1-10:20

① 제물을 통해서 / 1:1-7:38

ㄱ. 번 제 / 1:1-17

ㄴ. 소 제 / 2:1-16

ㄷ. 화목제 / 3:1-17

ㄹ. 속죄제 / 4:1-5:13

ㅁ. 속건제 / 5:14-6:7

ㅂ. 각 제사의 규례 / 6:8-7:38

② 제사장을 통해서 / 8:1-10:20

(2) 하나님과의 동행 - 성화 / 11:1-27:34

① 정결에 관한 율법 / 11:1-15:33

② 속죄일에 관한 율법 / 16:1-34

③ 희생 제사의 율법 / 17:1-16

④ 백성들의 생활 규범 / 18:1-20:27

⑤ 제사장들의 바른 행실 / 21:1-22:16

⑥ 성물에 관한 율법 / 22:17-33

⑦ 절기에 관한 율법 / 23:1-44

ㄱ. 안식일 / 23:1-3

ㄴ. 유월절(무교절) / 23:4-8

ㄷ. 초실절 / 23:9-14

ㄹ. 오순절 / 23:15-22

ㅁ. 나팔절 / 23:23-25

ㅂ. 속죄일 / 23:26-32

ㅅ. 초막절 / 23:33-44

⑧ 정결한 기름, 진설병, 여호와 모독죄 / 24:1-23

⑨ 안식년에 관한 율법 / 25:1-7

⑩ 희년에 관한 율법 / 25:8-55

⑪ 순종에 관한 율법 / 26:1-46

⑫ 맹세와 십일조에 관한 율법 / 27:1-34

13. Q 본서의 중심 귀절은 무엇인가?

A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11:44).

제 1 장 번제 드리는 법과 그 예물

단락구분 *1-2* 생축으로 제물을 삼을 것 / *3-9* 소를 번제로 바칠 경우 / *10-13* 양이나 염소를을 번제로 바칠 경우 / *14-17* 새를 번제로 바칠 경우

1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3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열납하시도록 드릴지니라
4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열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5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6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7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여 놓고
8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여 놓을 것이며
9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0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11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12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 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여 놓을 것이며
13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4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15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꺾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16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17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불 위의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

1. **Q 본장의 개요와 교훈을 말하라.**
   A (1) 레위기가 시작되는 본장의 내용은 출애굽 제 2년 1월에 모세가 회막에서 지시받은 제사법 가운데 첫번째의 제사법인 번제에 관한 규례이다.
   (2) 번제는 드리는 자의 헌신을 나타내는 제사로써 누구나 드릴 수 있다.
   (3) 즉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 양, 염소 뿐만 아니라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도 예물이 될 수 있었다.
   (4) 이것은 제물(예물)의 가치에 따라 열납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정성과 믿음이 제물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2. **Q 여호와께서는 어디에서 모세를 부르셨는가? (1절)**
   A (1) 회막에서 부르셨다.
   (2) 회막이 세워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주로 시내 산으로부터 전달되었으나 이제 회중 가운데 있는 성막(회막)으로부터 들려왔다.
   (3)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택한 백성)과의 교제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나타낸다.

(4) 계시의 점진성이란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있다.

(5)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결국 희미한 상태에서 교제하고 있으나 주님의 재림 이후에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하게 될 것이다(고전13:12).

3. Q 회막의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1절)

A (1) 성경에서 '회막'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일반적으로 〈오헬 모엘〉이다.

(2) 이 말의 뜻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장막'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

(3) 회막이라는 말 이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로는 성막, 장막, 법막, 증거막 등이 있다(창4:20; 민9:17; 대하24:6).

4. Q '모세를 부르시고'에서 '부르시고'가 주는 의미를 말하라(1절).

A (1) '부르시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와이크라〉인데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란 뜻이다.

(2) 히브리어 성경은 이 말 〈와이크라〉를 본서의 제목으로 삼았다(참조, 서론 Q1).

5. Q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제사 제도를 자세히 알려 주신 사건이 갖는 종교적 의미는 무엇인가? (1절)

A (1) 인간은 타락한 이래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 올 수 있는 방법으로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이다.

(2) 이것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제사 제도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인간에게 전달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제사에 관한 모든 제도는 하나님의 뜻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실시되어야 했다.

(3) 또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방법(제도) 이외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상징한다. 구원의 방법과 대상까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제도와 주권 아래서만 가능한 것이다.

(4) 이와 같이 기독교는 인간 자신이 만들고 인간 자신의 힘을 투영시킨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보여 주신 계시 종교(啓示宗教)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5) 즉 기독교는 결코 인간의 명상(冥想)이나 연구를 통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에 의하여 성립한 참 종교이다.

(6)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고 보여 주신 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이 있을 뿐이다.

6. Q 하나님께서 회막에 나타나신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절)

A (1) 회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막을 열납하셨다는 증거로 모세에게 영광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 회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만남의 장소로 건립된 것이다.

(2) 하나님께서는 영(靈)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거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회막)에서 당신의 백성과 교제하시는 뜻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과 더불어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외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3) 그러나 구약 시대와는 달리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하여 성도와 교제하시기를 좋아하시며 영광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7. Q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이란 말에서 '예물'의 의미는 무엇인가? (2절)

A (1) 예물의 히브리어는 〈코르반〉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예물)이라는 뜻이다.

(2) 70인역(LXX)에서는 이 말이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도론〉으로 번역되었다.
(3)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특수한 말로서 제단에서 통채로 또는 부분적으로 태우는 제물들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7:38; 민 18:9; 28:2), 첫 열매(2:12)와 또한 여호와의 성소를 위해 그에게 드리되 제단 위에 놓지는 않았던 봉헌 예물에도 사용되었다(민 7:3; 31:50).
(4) 이와 같이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5) 예수께서는 후에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고르반' 사상을 책망하셨다(참조, 막 7:11).

8. **Q 번제로 드릴 예물을 생축 중에서 고를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3절)
A (1) 소, 양, 염소를 제물로 선택할 때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일은 '흠 없는' 수컷을 고르는 일이다.
(2) 그리고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아야 한다.
(3) 이와 같은 이유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며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흠이 있거나 불구가 된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파괴하며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4) 이처럼 구약 시대의 완전한 희생 제물의 요구는 신약 시대의 흠 없고 죄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암시한다.
(5) 따라서 예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 이렇게 드리는 예물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여 진심으로 드리는 예물과 같다.
(6)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려졌다(참조, 히 9:14). 이제 우리는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

9. **Q 이 번제물들은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가?** (3절)
A (1) 이 번제물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상징한다.
(2) 수소는 많은 고초와 시련을 참고 견디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3) 흠 없는 수양은 온유와 순종으로 일관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상징한다.
(4) 그리고 비둘기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결을 상징한다.
(5) 이와 같은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의 삶의 속에서도 나타나야 한다.
(6) 왜냐하면 성도의 신앙 생활은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어야 하기 때문이다(참조, 히 12:2).

10. **Q 번제란 무엇인가?** (3절)
A (1)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이 말은 '올라간다', '상승한다'는 뜻을 가진 말에서 유래하였다.
(2) 70인역에는 번제란 말이 헬라어로 〈홀로카우토마〉로 표기되었다. 즉 '전체를 태워 드리는 제사' (whole burnt offering)라는 뜻이다.
(3) 바울은 롬 12:1, 2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번제물로 드려야 할 존재로 말하고 있다.
(4) 구약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에 걸쳐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것은 특별히 드리는 번제 외에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의미한다.

11. **Q '열납하시도록'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3절)
A (1) 이 말은 예물을 바치는 자의 자세로서 전심 전력으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는 뜻이다.
(2) 드리는 자가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의 뜻에 합당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

(3) 이것은 형식으로 드리거나 체면상 드리는 오늘날의 잘못된 헌금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참조, 창8:21; 삼상16:7).

12. Q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4절)

A (1) 안수(按手)는 제사장이 하지 아니하고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자가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는 제물과 그것을 드리는 자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의미였다.

(2)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자가 회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그의 죄를 제물에 전가(轉嫁)시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3) 즉 피 흘림이 없이는 사(赦)함이 없기 때문에(히9:22) 안수받은 짐승이 피를 흘릴 때 안수한 자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으로 여겼다.

13. Q '속죄가 될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4절)

A (1) 속죄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파르〉인데 본래의 뜻은 '덮는다', '용서한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속죄가 된다는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가리워지고 덮어지는 것을 가리킨다.

(3) 이 속죄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믿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가리워지고 용서받은 사실에서 완성되었다(히9:28).

14. Q 소, 양, 염소를 제물로 삼아 번제를 드리는 방법을 순서대로 말하라(5-13절).

A (1) 흠 없는 수컷을 정성껏 골라 회막으로 가져 온다.

(2)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회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서 그 짐승을 잡아 먼저 짐승의 피를 제사장들이 가지고 가서 회막 문 앞 단 사면(번제단)에 뿌린다.

(3) 그리고 회생 제물의 가죽을 벗긴다.

(4) 고기 전체를 각을 떠서 단에 피어 있는 불위에 잘 벌여 놓는다. 이때 각뜬 고기와 머리와 기름을 먼저 놓는다.

15. Q 제사장들은 회생 제물의 피를 어디에 뿌렸는가? (5절)

A (1) 회막 문 앞 단(번제단) 사면에 뿌렸다.

(2) 죄인이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보자 제사장의 피 뿌림에 의해서만 가능하였다.

(3) 일반적으로 피 흘리는 제사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이며 피 없는 제사는 소제와 전제이다.

(4)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영원한 번제물이 되심으로 믿는 자의 구속자가 되셨다.

16. Q 무엇 때문에 번제물의 가죽을 벗겨야 했는가? (6절)

A (1) 예물을 드리는 자가 가죽을 벗겼으며 이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다(7:8).

(2) 가죽을 벗기는 것은 제사의 정결케 하는 의식의 한 부분이며 인간의 겉 모습은 제거하고 오직 진실한 부분만을 드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17. Q 각(脚)을 뜨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6절)

A (1) 각을 뜬다는 것은 짐승을 잡아 뼈마디를 중심으로 절단하며(삿19:29) 또한 필요에 따라 고기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2) 이렇게 각을 뜨는 이유는 불에 잘 타도록 하기 위한 것과 온전한 헌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 등의 의미가 있다.

(3) 이로 보건대 오늘날 성도가 드려야 할 예배는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이다(참조, 신6:5;30:2).

(4)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은 시간과 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정성과 마음 전체를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참조, 시100:2; 요24:24; 엡5:19).

18. Q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이 보여 주는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9절)

A (1) 고기를 불태울 때(심지어 내장까지) 나는 냄새는 결코 좋은 냄새가 못 된다. 다만 제물이 불태워져 그 냄새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백성들의 행위를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것을 향기롭다고 표현한 것이다.

(2) 즉 이것은 하나님이 그 예물을 드린 자와 화해하셨으며 그를 만족해 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총을 나타내시는 이러한 새 제도의 실행을 기뻐하시고(참조, 시104:31) 안식을 취하셨다(참조, 출31:17).

(3) 한편 신약 성경에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바친 그리스도가 '향기로운 제물'로 언급되어 있다(엡5:2).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인 것이다(벧전2:5).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19. Q '불살라' 드린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9절)

A (1) 여기서 '불사른다'는 말은 본래 히브리어로 〈카타르〉인데 '불에 태워 향기를 올린다'는 뜻이다.

(2) 이 말은 단순히 불에 태워 없애 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 〈사라프〉와는 다르다.

(3) 그러므로 여기서의 '불살라'의 의미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기 위해서 불사르는 것을 가리킨다(참조, 딤후2:21).

20. Q 희생 제물을 잡는 곳은 어디인가? (11절)

A (1) 회막 문 앞에 있는 번제단의 북쪽이다.

(2) 제단의 북쪽은 일반적으로 희생 제물을 잡기에 가장 편리한 장소였다. 왜냐하면 제단 동편은 쓰레기장이며 서편은 물두멍이 있어서 복잡하였기 때문이다.

21. Q 소, 양, 염소 등으로 번제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드릴 수 있는가? (14절)

A (1)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드릴 수 있었다.

(2) 하나님께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나 자신의 형편에 맞게 드릴 수 있었다. 이것은 예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즐거이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총이다.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의 제도를 통하여 가난한 자들도 그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다.

(3) 이처럼 오늘날의 성도들도 제물이나 지식과 권력이 없어서 주님을 못 섬길 염려는 전혀 없다(참조, 눅21:2, 3). 비록 세대가 악하여 많은 사람들이 물질 지상주의(mammonism)에 빠진 나머지 일부 교회와 성도가 물질 문제로 시험에 든다 해도 그것이 성경의 교훈은 아니며 또 기독교 전체의 타락도 아닐 것이다.

(4) 혹시 개인적으로 물질 문제로 교만하거나 또는 좌절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여러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두 렙돈을 더 크다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참조, 막12:42, 43; 고후8:12; 9:7).

22. Q 새 종류를 번제로 드릴 경우에는 어떻게 드렸는가? (15, 16절)

A (1) 제사장이 새를 단으로 가져가서 머리를 비틀어 끊고 피는 단 곁에 흘렸다.

(2) 멱통(모이 주머니)과 더러운 부분은 제단 동편의 쓰레기 버리는 곳에 버리고 나머지는 불에 태워 그 향기를 드렸다.

(3) 특히 몸통을 찢을 때는 날개 부분에서 찢되 완전히 찢는 것은 금했다.

23. Q 멱통(모이 주머니)과 털을 제거한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가? (16절)

A (1) 멱통은 제물 내부의 정결을 위해서 잘라냈으며 깃털은 외부의 정결을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안팎이 모두 정결해야 할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

(2) 우리의 몸과 마음을 포함한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외부적인 제도와 의식의 정결은 물론 내면적인 회개와 진실한 신앙이 아울러 요구되어 진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겉에 나타난 행위도 간과(看過)하시지 않는다.

(3) 신앙의 아름다움과 그 신앙의 결과인 열매의 풍성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주님은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다(참조, 마7:18).

24. Q 번제가 주는 영적 의미를 요약하라.

A (1)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자발적인 헌신과 봉사를 의미하며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충성을 상징한다.

(2) 한편 모든 제사는 그리스도와 관련지어 해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후에 모든 제사 드리는 것이 폐하여졌기 때문이다. 특히 번제는 고대의 제사법 중 가장 일반적인 제사였으며 제사 드리는 자의 완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자신의 인격 전체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한다.

(3) 율법은 오직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었다(히10:1). 번제가 나타내 주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믿는 자들의 구속이다(참조, 시11:9; 롬3:24; 엡1:7).

25. Q 제사의 종류 가운데 피 흘리는 제사를 열거하고 피 흘림의 의미를 말하라.

A (1)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피를 흘리는 제사이며 소제, 전제는 피 없는 제사이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2) 그러나 남의 피를 흘리는 폭력의 종교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대신 흘려 주는 희생의 종교인 것인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인간의 구속을 성취하는 종교인 것이다.

(3) 예수의 피는 사랑과 속죄와 생명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이다(히9:22).

(4) 피를 통한 속죄 개념은 성경 전체에 맥맥히 흐르고 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 주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대신 흘려져야 했으며 모리아 산에서는 이삭 대신 양이 피를 흘려야 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성막과 성전에서 매일 드린 피의 제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전(全) 인간의 구속을 위한 것이었다.

(5) 예수의 피로 하나님은 우리와 새 언약을 맺게 되었고(참조, 고전11:25), 그 혈연(血緣)으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본장의 요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2절).

제 2 장 소제 드리는 방법

단락구분 *1-3* 고운 가루의 소제 / *4-10* 세 종류의 방법으로 드리는 소제 / *11-13* 소제물 드리는데 주의할 점 / *14-16* 첫 이삭으로 소제를 드리는 법

1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2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3 그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4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5 번철에 부친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6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7 네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8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9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0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11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12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13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14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찧은 것으로 너의 소제를 삼되
15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16 제사장은 찧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

1. **Q 본장의 개요를 말하라.**
   A (1) 본장에서는 소제의 법과 그 예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2) 소제는 고운 밀가루 또는 그 밀가루로 구운 떡, 또는 처음 익은 곡식을 볶아 찧은 것으로 예물을 삼아 드렸다.
   (3) 이 소제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못한 대신 기름과 소금을 섞었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살랐다.
   (4) 이와 같이 본장에서 소개되어진 소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본적인 식물(食物)을 주신 사실과 우리가 마땅히 생명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2. **Q 소제의 특징은 무엇인가? (1-16절)**
   A (1) 소제는 피 없는 제사이다. 즉 소제의 예물은 짐승이 아니라 곡물이다.
   (2) 그러나 소제는 반드시 번제와 같은 피 흘리는 제사와 더불어 드려져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피 흘림으로만 가능함을 보여 준다.
   (3) 이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보다 더 나은 은혜와 축복을 얻기 위해 드리는 일종의 자원제(自願祭)이다.

3. Q 소제의 원어적 의미는 무엇인가? (1절)

A (1) 소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민하〉이며 이 말의 뜻은 '선물', '헌물'이다.

(2) 본래 소제를 가리키는 〈민하〉는 동물 제사와 식물을 드리는 제사에 같이 사용되었으나 (창32:21,22;43:11,15) 후에는(모세의 율법 이후) 피 흘리지 않은 제사(식물 제사)에만 적용되었다.

4. Q 소제는 누가 드릴 수 있는가? (1절)

A (1) 누구든지 드릴 수 있다.

(2)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네페쉬〉인데 이것은 본래 '혼', '영혼', '생명' 등을 의미한다.

(3) 한편 번제를 드릴 경우의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말은 〈아남〉인데 '사람', '인간', '남자'라는 의미이다(1:2).

(4) 그러므로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나 하나님께 소제물을 드릴 수 있다.

5. Q 소제의 세 가지 예물을 말하라(1절).

A (1)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즉 기름 섞인 가루와 유향을 소제물로 드릴 수 있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소제물의 주종을 이루었다.

(2) 기름 섞은 가루와 기름으로만 만든 무교병 또는 무교전병을 드릴 수 있었다. 이 경우에는 유향이 첨가되지 않았다.

(3) 첫 이삭의 곡식 알맹이와 기름과 유향을 제단에서 화제로 드릴 수 있었다.

(4) 이 세 가지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 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즐겨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

6. Q 소제의 예물을 드리는 자는 어떻게 예물을 준비하는가? (1절)

A (1)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부어 잘 섞어서 기름 넣은 가루를 준비한다.

(2) 그리고 유향을 따로 준비하여 기름 섞은 고운 가루와 함께 제사장에게로 가져 간다.

7. Q 제사장은 어떻게 소제를 드리는가? (2절)

A (1) 소제 드리는 자가 기름 섞은 고운 가루와 유향을 준비해 오면 제사장은 기름 가루 한 줌과 유향을 취하여 번제단 위의 불에 놓아 그 향기를 여호와께 드렸다.

(2) 소제물로 가져온 예물 가운데 화제로 드린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의 몫이 되었다.

8. Q 소제물을 불사르는 일은 누가 담당했는가? (2절)

A (1) 비록 제물은 예물 드리는 자가 가져왔으나 제단에 올려 놓고 불사르는 일은 제사장이 하였다. 구약 시대에 있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 가려면 제사장이란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2) 이것은 오늘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간들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의 예표이다.

(3) 이처럼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구약 시대의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9. Q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지니'에서 '기념물'의 의미는 무엇인가? (2절)

A (1) '기념물'의 히브리어는 〈아즈카라타〉로 이 말은 제물 가운데서도 단 위에 불태워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헌물)을 가리킨다.

(2)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그의 '기도와 구제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기념물'이 된 것이다(행 10:4).

(3) 결국 '기념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4) 그러므로 기념물은 제물 뿐만 아니라 드리는 자의 충성, 봉사, 구제, 선한 행위 및 영혼

까지도 포함된다(참조, 신 10:12).

10. Q 소제물의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3절)

A (1) 소제물의 남은 것은 소제물로 가져온 기름 섞은 가루와 유향 중에서 한 줌 제단에 바쳐진 것 이외의 나머지를 의미한다.

(2) 이 나머지는 제사장과 그 가족들에게 주어 생계에 필요한 양식이 되도록 하였다.

(3) 즉 제사장과 그 가족들에게는 생계에 필요한 토지나 기타의 분깃이 없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聖物) 가운데 남은 부분을 그들의 몫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았다.

(4) 소제물의 남은 것 외에 거제나 요제로 드려진 것(민 18:8-11)과 첫 열매로 드려진 성물은 모두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 그들이 생계에 걱정하지 않고 성막 봉사에만 힘쓸 수 있도록 하였다.

11. Q '지극히 거룩한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3절)

A (1) 이 말은 여호와께 드려진 제사 예물에 적용되는 말이다.

(2) 민 18:9에는 이것을 지성물(至聖物)이라고 했는데 여호와께 드려졌기 때문에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거룩하다는 의미이다.

12. Q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를 드릴 경우 예물은 어떻게 준비하였는가? (4-10절)

A (1)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을 만들었다.

(2)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기름 섞은 가루를 반죽하여 화덕에 구워서 만든 떡이었다.

(3) 무교전병(無酵煎餠)은 기름 섞은 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반죽하여 기름을 바르고 넓게 펴서 만든 떡이다.

13. Q '번철에 부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5, 6절)

A (1) 기름 섞은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반죽한 것을 넓은 철판 위에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놓고 기름을 부어 부친 떡을 가리킨다.

(2) 화덕에 구운 무교병 및 무교전병을 비롯하여 번철에 부친 것을 소제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유향 없이 드릴 수 있었다.

(3) 이렇게 유향 없이도 소제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14. Q 소제물에 누룩과 꿀이 금지된 이유는 무엇인가? (11절)

A (1) 누룩과 꿀은 부패의 속성과 전염의 성질이 있다. 이것은 죄악의 속성과 비슷하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회개하는 심정으로 언제나 죄악을 조심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2) 누룩은 위선과 교만으로 비유되었다(참조, 마 16:12; 막 8:15; 눅 11:1). 교만과 위선은 누룩처럼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행위이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3) 죄악의 상징인 누룩과 꿀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과는 융합될 수 없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엇으로도 침해당할 수 없는 신성의 영역이다.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공경은 그의 거룩성을 인정하는 일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정하고 찬양할 것을 가르치셨다(참조, 마 6:9).

15. Q 소제물에 있어서 금지된 것과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11, 13절)

A (1) 누룩과 꿀은 소제물에 넣어서는 안 된다.

(2) 그러나 모든 소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치도록 되어 있다.

16. Q 소제물에 소금을 치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13절)

A (1) 소금은 부패와 불결로부터 벗어나서 정결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상징한다.

(2) 이것은 여호와와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이 영원하고 진실됨에 대한 상징으로서 소금을

치도록 하였다.

(3) 일반적으로 영구 불멸의 언약을 가리킬 때는 '소금 언약'이라고 불렀다(민 18:19;대하 13:5).

17. Q **첫 이삭의 소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는가?** (14절)

A (1) 첫 이삭을 볶아 찧을 것으로 소제를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 준비한다.

(2) 또한 유향을 기름 섞은 소제와 더불어 제사장에게 준다.

(3) 제사장은 볶아 찧을 기름 섞인 소제와 유향의 일부를 취하여 단에 기념물로 불사른다.

18. Q **소제물과 함께 유향이 불살라진다. 여기서 유향이 불살라지는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가?** (1, 16절)

A (1) 유향이 첨가된 것은 소제물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성도의 모든 봉사는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것이다.

(2)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와 경건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가리킨다. 즉 우리 대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계속할 것을 의미한다(참조,고전 4:16;엡 5:1;살전 1:6).

19. Q **'화제'는 무엇인가?** (16절)

A (1) 화제는 제사의 종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한 방법을 의미한다.

(2)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전제 등은 제사의 종류이지만 화제(offering by fire)는 단순히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라는 뜻이다.

(3) 그러므로 모든 종류의 제사에 있어서 제물을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는 화제가 된다.

20. Q **소제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A (1) 소제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감사를 상징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의 완전한 인격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되 온 몸을 가루처럼 바쳐서 충성할 것을 나타낸다.

(2) 특히 누룩이나 꿀을 넣지 않고 음식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나타낸다.

(3) 번제가 생명 자체를 드리는 제사임에 비하여 소제는 자신의 생활 가운데서 얻은 노동의 결과를 드리는 것이다.

(4)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식물을 주셔서 생명을 유지시킨 사실에 대한 감사 예물이며, 이런 생명의 유지에 쓰이는 식물을 바침으로써 충성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21. Q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본장에 나타난 소제의 법을 중심으로 답하라.**

A (1)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고운 가루 같은 신앙 인격을 가져야 한다(1절). 고운 가루는 하나님 앞에서 가루가 되듯이 수고하며 순종하는 생활을 비유한다고 할 수 있다.

(2)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무교병과 같은 인격이 되어야 한다(4절). 다시 말하면 성도는 죄를 과감히 끊어 버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것이다(참조, 히 9:28). ①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간주될 수 있으며(참조, 롬 4:5) ②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 거룩하여지기 때문이다(참조, 벧전 1:2).

(3)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소금과 같은 신앙 인격이 되어야 한다(13절). ①소금은 변치 않는 것을 비유하는데, 언약의 소금이란 말이 그 뜻이다. ②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신앙을 지키되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어야 한다. ③엡 6:24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다.

22. Q **소제의 예언적 의미는 무엇인가?**

A (1)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 드려 기념물로 삼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격을 나타낸다.

(2) 즉 그리스도의 무죄하심(히 4:15; 요일 3:5)과 성령의 임재를 상징한다(눅 4:18).
(3) 또한 고운 가루와 첫 이삭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모든 의로운 노력을 예표하고 있다.
(4) 그리고 소제는 친히 소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얻은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친다면 그것이 소제가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다.

연구자료

제사(祭祀)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 유교, 특히 성리학(性理學)의 영향을 받은 우리 나라의 제사는 여러모로 기독교의 신앙과 충돌하는 점이 많다. 본고(本稿)에서는 먼저 이러한 제사에 대하여 살펴본 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를 비판해 보려고 한다. 송(宋) 나라 때 유교 학자 주희(朱熹, 1130-1200)가 처음으로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것이 유교 철학의 한 덕목으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제사는 유교의 기본적인 덕목 가운데 하나인 '효'(孝)에서 비롯된 것인데 '효'는 '예'(禮)와 '제사 제도'를 통하여 실천되는 덕목이었다. 이와 같은 제사는 '옛날은 지금보다 나으며 이후의 세상은 지금보다 나빠진다', '어른은 항상 젊은이보다 옳으며 어린 사람들은 무조건 연장자들을 공경해야 한다'는 과거 지향적인 유교적 사고(思考)에서 파생된 부산물이다. 또한 효경(孝經)에 나타난 제사의 개념을 살펴보면 ① 제사는 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서 다분히 신앙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으며 ② 조상들을 귀신으로 여기고 ③ 제사를 드림으로써 선조들의 노여움을 풀어 후손들이 재앙을 면하는 수단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제 제사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살펴보기로 하자. 기독교는 '효'(孝)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도리어 성경은 살아계신 부모께 순종하며(엡 6:1) 공경하고(출 20:12) 부모를 경외할 것(19:3)을 가르친다. 또한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사관(史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 지향적인 사고(思考)를 하는 유교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즉 기독교는 장차 있게 될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미래 지향성(未來指向性)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조건 지난 시대만을 미화(美化)하는 유교와는 그 시점(視點)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가 제사를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제사가 죽은 자에 대한 경배 행위이므로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이다(비교, 출 20:4, 5). 죽은 자를 섬기고 절하는 것은 의미 없는 헛된 일이며(참조, 마 8:21, 22), 더구나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신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죽은 자를 숭배하는 제사를 폐(廢)해야 하며 도리어 살아계신 부모께 더욱 효도하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제 3 장 화목제와 그 예물

단락구분 *1-5* 소를 바치는 화목제 / *6-11* 양을 바치는 화목제 / *12-17* 염소를 바치는 화목제

1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2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3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4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5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6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7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8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9 그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려골에서 뱬 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10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11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12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13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14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15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16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17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

1. **Q 본장의 개요와 그 특징을 말하라.**
   A (1) 본장은 화목제와 그 종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 화목제는 경배자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와 친교를 나타내는데 제사를 드린 후에는 공동식사가 있다.
   (3) 화목제에 대한 예언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나타내는 데 있다(참조, 롬 5:1;골 1:20).
2. **Q 화목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1절)
   A (1) '화목제'의 히브리어는 〈제바흐 쉐라밈〉인데 이 말이 분리되어 〈제바흐〉와 〈쉐라밈〉이 각각 단독으로 화목제를 나타내기도 한다.
   (2) 화목제를 가리키는 〈쉐라밈〉은 '친하다', '보답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는 말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보답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제사로 볼 수 있다.
   (3) 70인역(LXX)에는 '구원제'라고 번역되어 있다.
   (4) 또한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린다는 의미로 '감사제'(개역 성경의 난외 주)라

고도 한다.

(5) 결국 화목제의 목적은 언제나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 즉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 제사를 드렸고 또 때로는 구원을 열망하는 기도의 자세로 드렸으며 불행한 일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자세로 드렸다.

3. **Q 화목제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1절)

A (1) 감사제, 서원제 및 낙헌제가 있다.

(2) 감사제는 기대할 수 없었던 구원과 축복에 대하여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이다(참조, 7:12-15;22:29, 30).

(3) 서원제는 과거의 서원한 사실이 성취되었을 때 드리는 제사이다(7:16-19;22:18-25).

(4) 그리고 특별한 이유없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이다.

(5) 결국 화목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축복에 대한 은혜로 드리는 제사이다.

4. **Q 회생 제물을 회막 문에서 잡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2절)

A (1) 회막 문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으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2) 이곳에서 회생 제물을 잡는 것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죄의 대가인 죽음을 짐승이 대신 치르는 것을 의미한다.

(3) 이런 뜻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 결과 믿는 자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참조, 롬 5:1).

5. **Q 화목제의 경우 화제, 즉 단 위에 불사르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 (3, 4절)

A (1)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2) 그리고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

(3) 또한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화제로 드렸다.

(4) 이것은 제물의 여러 부위 중 가장 기름지고 좋은 부분을 가리킨다(참조, 시 63:5).

(5) 이와 같이 성도의 생활도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세가 합당하다.

6. **Q 화목제의 경우 화제로 바치는 기름과 콩팥은 어떻게 여호와께 드려졌는가?** (5절)

A (1) 제사장이 그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 놓아 번제물과 함께 타도록 하였다.

(2)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 놓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인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다.

(3)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징한다(요 14:6).

7. **Q 화목 제물의 기름 부분을 '번제물 위에 사른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5절)

A (1) 고대 히브리인들은 제단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 두 번에 걸쳐 각각 한 마리의 양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2) 이렇게 하여 하루 종일 번제물이 제단에서 타고 있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충성과 헌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3) 그러므로 매일 드리는 번제물이 타고 있는 그 제단 위에 화목 제물인 기름 부분을 올려 놓아 함께 타도록 한 것이다.

8. **Q 화목 제물의 종류를 말하라**(1, 6, 12절).

A (1) 화목제를 드리는 자의 생활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세 종류의 예물이 허락되었다.

①흠 없는 암소 혹은 수소(3:1-5)

②흠 없는 암양, 수양(3:6-11)

③염소(3:12-17)

(2) 이렇게 화목제의 경우에서 암컷도 허용된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감사)을 위한 감사제에는 백성 중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다(참조, 창 18:3;삼상 1:18;시 84:11;행 15:11;롬 3:24;고후 6:1).

9. Q 화목제에서 피를 제단에 뿌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8절)

A (1) 화목제가 비록 속죄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역시 죄를 속(贖)해야 한다. 사람의 죄를 속하는 것은 오직 피였다.

(2)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더라도 반드시 속죄의 피가 제단에 뿌려져야 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실을 예표한 것이다.

(3) 감사의 제사에도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성도의 삶이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책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을 감출 수 없다.

(4)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므로 그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 의인인 체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稅吏)의 기도에 의해 외식으로 드러나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다(참조, 눅 18:10-13).

10. Q 양을 화목 제물로 드릴 경우 제물은 어떤 부분이었는가? (9, 10절)

A (1) 미려골(尾閭骨)에서 벤 기름진 꼬리 부분과 내장과 콩팥에 덮힌 기름을 콩팥과 더불어 취하여 드렸다.

(2) 항문(肛門)의 뒤쪽에 있는 꽁무니뼈로서 미저골(尾骶骨)이라고도 하는 '미려골'은 꼬리가 붙은 뼈를 말하는데 팔레스틴과 아프리카에는 기름진 굵은 꼬리를 가진 양들이 많이 있었다.

(3) 양을 화목 제물로 드릴 경우에는 다른 화목 제물에 비해 꼬리 부분을 더 드리는 것이 특징이다.

11. Q 기름과 피를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7절)

A (1) 기름과 피는 여호와의 것으로 구분하셨기 때문이다.

(2) 특히 피는 생명의 근원(참조, 창 9:4, 5)이며 기름은 생명을 유지하는 힘의 근원으로 간주되었다.

(3) 따라서 생물의 근원적인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4) 그러나 당시 이방인들의 제사에서는 피를 마시기도 했으며 또한 피를 마시는 것이 제사의 한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12. Q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몫과 제사장의 몫 그리고 제사 드리는 백성의 몫은 무엇인가?

A (1) 여러 부위(部位)의 기름과 콩팥(소, 양)과 기름진 꼬리 부분(양)은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졌다.

(2) 요제로 드려진 가슴 부분과 거제로 드려진 우편 뒷다리 부분(참조, 7:30-34)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다.

(3) 한편 하나님 몫과 제사장 몫을 제외한 제물의 나머지 부분은 경배자가 그 가족과 더불어 성막 뜰에서 먹을 수 있었다. ①감사제로 드릴 경우에는 제사를 드린 당일에만 먹을 수 있었다. ②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릴 경우에는 제사드린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다(7:16-18).

(4) 이처럼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친밀한 평화(화목)을 나타낸다(참조, 롬 5:1; 골 1:20).

13. Q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7절)

A (1) 누구든지 피를 마시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외되었다.

(2) 이 규례는 그들이 가나안 정착 이후에도 계속 지켜야 할 규례였다(7:26; 17:10; 19:26).

(3)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먹지 않기 위해서 며칠 동안 살코기를 매달아 놓고 피가 빠지기를 기다린다.

(4) 그러나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는 유대인들처럼 그러한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고 이웃을 아끼는 진정한 사랑에 그 의의가 있다.

14. Q **화목제의 순서를 말하라.**

A (1) 수컷이나 암컷을 막론하고 흠 없는 것으로 정한다.
(2) 그 머리에 안수한다.
(3) 회막 문에서 잡는다.
(4) 제사장은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린다.
(5) 내장의 모든 기름을 취한다.
(6)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물 위에 올려 화제로 드린다.

15. Q **화목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관계를 말하라.**

A (1) 십자가는 구속의 의미와 더불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화목을 비롯해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2) 화목제의 의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화목과 평화를 나타낸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그와 같은 의미인 것이다.
(3)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들이다.
(4)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 사이에서도 서로 화목하며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
(5) 결국 진정한 화목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참조, 살후 1:3; 히 10:24; 약 5:9; 벧전 5:5).

연구자료

성경에 나타난 피[血]의 개념. 종교적 의미에서 피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중 하나는 '생명'을 나타내는데(17:11, 14) 이는 구약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피에 대한 속죄(히 9:14-22)의 개념을 갖는 '죽음'이며 이는 신약적인 사고(思考)라고 할 수 있다. 전자(前者)의 의미에서 볼 때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피를 흘릴 경우 분명한 하나님의 복수를 일으킨다는 보복적 개념과 더불어(민 35:32-34) 제사에 있어선 반드시 희생 제물의 피로 속죄하고(출 8:29)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는 개념이 형성된다. 후자(後者)는 구약적인 피의 개념이 더욱 확대, 발전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속(代贖) 사역을 중심으로 설명되어진다(롬 3:24, 25). 즉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었으며(골 1:20) 인간들은 그 피의 효력에 동참(同參)하기 위해서 그 피를 마셔야만 한다(요 6:53-56). 이것이 바로 성만찬이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피의 개념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정점(頂點)으로 하여 전개된다(참조, 히 9:22; 10장).

제 4 장 속죄제와 그 예물

단락구분 *1-12*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 *13-21* 회중을 위한 속죄제 / *22-26* 족장을 위한 속죄제 / *27-35* 평민을 위한 속죄제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3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얼을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4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5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6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7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8 또 그 속죄 제물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9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10 화목제 희생의 소에게서 취함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11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12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사를지니라
13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4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15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16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17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18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19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20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21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22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23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24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25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26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27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28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29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30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31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32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 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33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34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를 단 밑에 쏟고

35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같이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위에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

1. Q 본장에 언급된 제사는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
   A (1) 본장 전체와 5:13까지는 속죄제의 규례가 언급되어 있다.
   (2) 속죄제는 의무제로서 범죄한 자는 누구나 드려야 했다.
   (3) 특히 속죄제는 이 제사를 드리는 대상에 따라 방법과 예물이 달랐다.
   (4) 속죄제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 지시고 고난당하신 후 예루살렘 밖에서 처형당하실 것을 예표한 것이다.
2. Q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는 말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1절)
   A (1)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신 것이다.
   (2) 즉 모세가 기록한 말씀은 모세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주신 계시(啓示)이다.
   (3) 그러므로 모세가 기록한 모든 규례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법도이다.
3. Q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2절)
   A (1) 누구든지 드릴 수 있다.
   (2) 여기서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네페쉬〉인데 영혼, 영, 바람 등의 뜻이다. 이 말은 성경에서 남자, 여자 모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3) 본장은 제사장, 온 회중, 족장, 평민의 구분으로 속죄제의 방법과 그 예물을 언급하였다.
   (4)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의 예표이다(요 3:16).
4. Q '여호와의 금령(禁令) 중 하나라도'에서 '금령'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2절)
   A (1) 여기서 '금령'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미츠오트〉인데 계명들을 가리킨다.
   (2) 그러므로 금령이란 말은 모세의 법으로 규정된 성문화된 율법을 포함하여 모든 규례, 제도, 지시 등을 의미한다.
5. Q '그릇 범하였으되'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절)
   A (1) '그릇'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비쉬가가〉인데 비틀거리다, 실수하다, 방황하다 등의 뜻을 가진 말에서 나왔다.
   (2) 그러므로 '그릇' 범죄하였다는 말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범죄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했거나 외부의 시험에 이끌려(믿음이 부족하여) 죄를 범한 것을 말한다.
   (3) 그러나 이것은 죄를 피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참조, 히 10:26-29; 요일 5:16).
   (4) '그릇'에 해당하는 〈비쉬가가〉는 '부지중에'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한다.
   (5) 이 말 (비쉬가가)을 KJV에서는 '알지 못하여' (through ignorance) 라고 번역하였고 RSV에는 '무의식적으로' (unwittingly)라고 되어 있다.
6. Q 속죄제를 드리는 4가지 경우에 있어서 제물의 종류를 말하라.
   A (1)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 흠 없는 수송아지
   (2)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 흠 없는 수송아지
   (3) 족장이 범죄했을 경우: 흠 없는 수염소
   (4) 평민이 범죄했을 경우: 흠 없는 암염소 혹은 흠 없는 어린 암양
7. Q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3절)

Ⓐ (1) 구약 시대에 왕이나 제사장 등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 그 직위를 받았다.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만왕의 왕이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참조, 히 2:17).

(2) 예수는 메시야(히, 쉬아호),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졌다. 이 말이 헬라어로 그리스도(헬, 크리스토스)가 되었다.

(3) 마 16:16에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를 가리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여 주의 칭찬과 축복을 받았다.

(4)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은 그의 죽음과 희생의 피를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분(영원한 대제사장, 히 2:17)으로 믿는 신앙이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구속을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즉 제사장마다 예물을 드려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으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되신 것이다(롬 6:10; 히 7:27; 9:28).

8. Ⓠ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는 어떻게 조치했는가?** (3절)

Ⓐ (1) 제사장은 히브리어로 〈코헨〉인데 '옆에 서 있다', '준비하다' 등의 뜻이 있는 말에서 나온 명사형이다.

(2) 즉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언제나 제사 드릴 준비와 중재의 일을 담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3) 그런데 제사를 주관하는 자신이 범죄했을 경우에 그는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다.

(4)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속하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도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다.

(5) 즉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불의한 자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라는 말씀에 잘 나타나 있다.

(6)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속죄의 필요성을 알게 된다(참조, 눅 15:7; 롬 5:8; 딤전 1:15).

9. Ⓠ **'범죄한다'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3절)

Ⓐ (1) '범죄한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하타〉인데 본래 이 말의 뜻은 '과녁을 맞추지 못하다', '빗나가다' 등이다.

(2)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은 범죄에 해당된다.

10. Ⓠ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얼을 입게 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3절)

Ⓐ (1) 한 마디로 제사장의 범죄로 인한 그 죄과(罪過)가 백성에게 미치게 된다는 뜻이다.

(2) '죄얼'(罪孽)은 히브리어로 〈아숌말〉인데 '유죄가 된다', '다른 죄를 느끼다' 등의 뜻이 있는 말의 명사형이다.

(3) 그러므로 백성의 대표자인 제사장이 죄를 짓는 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결과가 되며 그 죄로 인한 재앙이 백성에게 임하게 된다는 뜻이다.

(4)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 또한 지도자로서 성도들에게 실망과 시험을 받게 하는 장소에도 출입해서는 안 된다(고전 8:13).

11. Ⓠ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 속죄제 드리는 방법을 말하라**(3-12절).

Ⓐ (1) 흠 없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 준비한다(3절).

(2) 그 수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곳에서 도살한다(3절).

(3) 대제사장은 도살한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성소 장(帳) 앞에 일곱 번 뿌린다(5, 6절).

(4) 또한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안의 향단 뿔에 바른다(7절).
(5) 나머지 피는 모두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는다(7절).
(6) 그 뿌리는 일을 마친 후에 모든 기름 부분 곧 내장과 콩팥에 붙은 기름과 허리 근방의 기름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여 불에 태워 여호와께 드린다(8-10절).
(7) 마지막으로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등 콩팥과 기름 부분을 제외한 모든 것은 재 버리는 곳에서 불태워 없애 버린다(11, 12절).

12. Q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 수송아지의 피는 어디에 뿌리는가? (6절)
A (1) 여호와 앞 곧 성소 장(帳) 앞에 7번 뿌린다.
(2) 여기서 성소 장(帳)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는 휘장을 가리킨다.
(3) 이 휘장 안은 지성소이며 여호와가 계신 곳으로 여겨졌다.
(4) 그러므로 이 휘장 앞을 여호와 앞이라고 부른다.

13. Q 제사장이 성소의 장 앞에 일곱 번 피를 뿌린 의미는 무엇인가? (6, 17절)
A (1)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개척함을 상징한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이다.
(2)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참조, 막 15:37, 38; 히 10:20)는 말씀에 나타나 있다.
(3) 그러므로 휘장에 피를 7번이나 뿌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육체에서 나온 피는 인간의 완전한 구속을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다.
(4) 한편 '7'이라는 수자는 완전한 거룩함을 상징하는 수자였다.

14. Q 피를 번제단 밑에 쏟는 것은 무엇을 예표하는가? (7절)
A (1) 번제단은 성도들이 헌신과 감사를 위하여 생축을 불사르는 곳이다. 이 단밑에 피를 붓는 것은 속죄가 피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2) 즉 범죄자의 범한 죄와 그의 인격의 사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열납되어지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寶血)밖에 없다는 것을 예표한다(참조, 골 1:20; 벧전 1:19).

15. Q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7절)
A (1)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등은 시내 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여호와께 드려졌다(참조, 창 8:20; 출 20:24). 물론 그때도 각자의 죄를 염두에 두었고 또 그 죄가 속해 지기를 원했었다(참조, 욥 1:5).
(2) 그러나 율법이 정해짐으로 범죄 의식이 뚜렷하게 인식되었고(롬 5:20) 죄를 속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특별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3) 이 제사는 의식적인 것이며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이다(히 10:1). 즉 속죄제는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와 구원을 나타내는 모형으로서 드려졌다.
(4) 이와 같이 속죄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용서받기 위해 드렸던 제사이다.

16. Q 피를 향단 뿔에 바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7절)
A (1) 향단은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금으로 만들어진 단이다.
(2) 1년에 한차례씩 대제사장은 이 향단 뿔에 속죄의 피를 발라 속죄하였다(16장; 출 30: 1-10; 37:25-29).
(3) 대제사장의 속죄와 온 회중의 속죄를 위해서만 이 성소 안의 향단 뿔에 피를 발랐으며 그 외의 다른 속죄제의 경우는 성소 밖의 번제단 뿔에 피를 발랐다(18, 25, 30, 34절).
(4) 뿔은 일반적으로 능력과 힘을 나타내므로 피를 뿔에 바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이 크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의미가 있다.

17. Q 두 콩팥과 기름을 드리는 의미는 무엇인가? (8-10절)
A (1)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콩팥(신장)은 생명, 영혼, 감정이 깃든 곳으로 생각되었다.

(2) 그러므로 기름 부분과 더불어 콩팥이 여호와께 드려졌는데 이것은 생명 전체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다.

18. Q 번제와 속죄제가 주는 의미를 구분해서 말하라.

A (1) 번제와 속죄제는 다같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분명히 구별된다.

(2) 번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시키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속죄제에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다.

(3) 번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으나 속죄제는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리스도를 제시해 준다.

(4) 번제를 통해서는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고귀성을 배우고 속죄제를 통해서는 죄의 증오를 배운다.

19. Q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의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는가? (13-21절)

A (1)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한 후에 그 죄를 깨달으면 수송아지를 잡아 속죄제로 드렸다.

(2) 특히 이 경우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의 제물과 그 드리는 방법이 똑 같다.

(3) 이것은 민족의 지도자의 범죄와 온 백성의 범죄를 동일하게 여겼던 제정 일치 시대의 특징을 잘 말해 주고 있다.

20. Q '회중'(會衆)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13절).

A (1) '회중'의 히브리어는 〈콜 에다〉인데 '지명하다', '불러내다' 등의 뜻을 가진 말(히, 야안)에서 나왔다.

(2) 그러므로 '회중'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불러내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무리들을 의미한다(참조, 민 16:3).

(3) '회중'을 나타내는 말로서 히브리어로 〈콜 에다〉 외에 〈카할〉이 있다.

(4) 이 두 낱말은 신약 시대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번역되었는데 '부름을 받은 자', '불러냄을 받은 자' 등의 뜻이다.

(5)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교회'로 번역되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는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안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을 가리킨다.

21. Q 회중 전체가 범죄하였을 때는 누가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는가? (15절)

A (1) 온 회중을 대표하여 몇 사람의 장로들이 안수하였다.

(2) 이것은 백성 전체가 일일이 안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대표해서 몇 사람의 장로들이 안수한 것이다.

(3) 이렇게 안수하는 것은 백성들의 죄악이 수송아지에게 전가되고 그 수송아지는 죄의 삯인 죽임을 당하여 백성들의 죄를 속하게 되는 것이다.

(4) 이 안수 의식을 통해서 죄의 회개와 새로운 삶에 대한 다짐을 의미하였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신약 시대의 안수(按手) 의식도 상징적인 것이다.

(5) 교회가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할 때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참조, 딤1:6).

22. Q 족장을 위한 속죄제와 다른 속죄제의 경우와 비교하여 말하라(22-26절).

A (1) 제물의 종류는 수송아지가 아니라 수염소였다.

(2) 수염소의 피를 번제단 뿔에만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쏟았다.

(3) 이 경우의 속죄제는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가지 않았다.

(4) 기름과 콩팥은 단 위에서 불살라 드렸으나 나머지 고기는 불사르지 않았다.

(5) 이 경우의 고기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다.

23. Q 속죄제를 드릴 때는 죄를 깨달은 후 드렸는데 이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23절)

A (1) 죄에 대한 인식 없이는 그 죄의 해결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하는데 이것은 죄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죄에 이

르게 하는 유혹의 손길은 중생한 성도에게까지도 미쳐 많은 성도들을 실족케 한다(참조, 롬 7:24, 25).

(2) 죄를 깨닫는 일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번째 단계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지름길이다.

(3) 불신자가 회심하게 되는 경우도 대부분 그가 건강하고 잘 될 때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지극히 가난하여지고 겸손하여 질 때가 대부분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더욱 느끼는 때도 이런 위기에 처해서이다.

(4) 따라서 성도는 날마다 내가 죄인된 것을 깊이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경건 생활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참조, 마 5:1-14; 딛 2:12).

24. Q 평민이 범죄하였을 경우에 무엇으로 속죄제를 드렸는가? (27-35절)

A (1) 족장이 범죄했을 경우와 같으나 단지 제물의 종류만 다르다.

(2) 즉 족장의 경우는 흠 없는 수염소였으나 평민의 경우는 흠 없는 암염소나 흠 없는 어린 암양이었다.

25. Q 제물의 피와 고기가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A (1) 피는 예배 행위의 기초이며 진 밖에서 불태워진 제물의 몸(고기)은 징계 행위의 기초이다. 우리가 편안한 마음과 자유하는 양심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문제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원히 종결되어야 한다.

(2)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완전히 가리울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완전히 헌신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제물이신 그리스도 자신은 거룩하며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제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는 안식도 거룩하고 또한 영원하다.

(3)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던 것이다(참조, 히 9:11, 12).

본장의 요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얼(罪蘖)을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 지니' (3절).

제 5 장 속죄제와 속건제

단락구분 *1-6* 여러 가지 허물의 속죄제 / *7-10* 가난한 자를 위한 속죄제 / *11-13* 극빈자를 위한 속죄제 / *14-16* 성물(聖物)을 범한 자의 속건제(贖愆祭) / *17-19* 율법을 어긴 자들을 위한 속건제

1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2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에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3 혹시 부지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4 혹 누구든지 무심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것이니
5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6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7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 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8 제사장에게로 가져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9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10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11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십분 일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12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라
13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5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양을 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16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오분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17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18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떼 중 흠 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19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

1. Q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A (1) 4:1-5:13까지는 속죄제에 관한 규례가 언급되어 있고 5:14-6:7 에는 속건제의 규례가 나온다.

(2)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사 드리는 법은 똑같으나 다만 구분이 있다면 속건제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5분의1에 해당하는 배상액을 더 내야 했다.

(3) 영어 성경에는 속죄제(sin offering) 와 속건제(trespass offering)의 구별이 있다. 즉 속죄제는 근본적인 죄의 속죄를 위하여 드린다는 뜻이 강하며 속건제는 구체적인 침해,

불법 행위(trespass)에 대하여 드린다는 의미가 있다.

2. Q '누구든지'가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1절)
   A (1) 히브리어로 이 말은 〈네페쉬〉인데 주로 육체(body, flesh)와는 대조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2) 성경에서 이 말 〈네페쉬〉는 영혼, 영, 사람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다.
   (3) 그러므로 〈네페쉬〉가 사용될 때는 어떤 사람의 영혼을 포함한 인격 전체를 의미한다.
   (4) 사람의 범죄가 비록 육체적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영적인 범죄가 되는 것을 가리킨다.
   (5) 예를 들면 아담의 범죄는 육신의 죽음 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가져왔다.
   (6) 따라서 믿기 전의 성도들은 아담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다(엡2:1).

3. Q '맹세시키는 소리'란 무엇인가? (1절)
   A (1) 법정에서 죄인을 심문하거나 변호할 때 증인을 세울 수 있다.
   (2) 이때에 판사는 증인이 증언대에 서서 진실만을 말할 것과 만약 허위 진술을 할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맹세를 하도록 구두 서약을 받는다.
   (3) 그러므로 이 일이 증인의 입장에서 보면 재판자가 그에게 맹세시키는 것이 된다.
   (4) 본래 '맹세'란 말은 '저주의 약속을 하라'라는 뜻의 말에서 나왔다.
   (5) 즉 그 약속(맹세)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하라는 뜻이다.
   (6) 그러므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며 이 말은 법정 용어가 되었다(참조, 삼상14:24;마26:63).

4. Q 증인의 입장이 되어 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1절)
   A (1) 죄를 숨겨 주는 행위는 그 자체가 죄가 된다. 법정 증인으로 지명을 받았을 경우에는 하나님께 고하듯 사실을 말해야 된다. 증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거짓 증거를 한다면 그것은 도적과 같은 행위이다(참조, 잠29:24).
   (2) 또한 성도들은 수동적으로 법정에 서서 남의 행위에 대한 시비를 논할 뿐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도 무책임하게 지날 수 없으며 언제나 비판하고 약자와 피해자를 능동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남이 범죄하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묵과하는 것은 죄인과 다를 바 없으며 자기 자신의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다.

5. Q '허물'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1절)
   A (1) 이 말의 히브리어는 〈아온〉인데 '굽은 길로 가다', '나쁘게 취급하다', '죄가 되다' 등의 뜻이 있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2) 그러므로 '허물'이라는 말은 옳은 길에서 벗어난 그릇된 것, 즉 죄를 가리킨다.
   (3) 허물이 있을 것(2절)이라는 말도 유죄(有罪)가 되는 것을 뜻한다.

6. Q '부정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절)
   A (1) 여기서의 부정은 실제적인 부정이 아니라 의식상(儀式上)의 부정(不淨)을 의미한다.
   (2) 즉 종교적인 '부정한 것'으로 취급된 것들의 시체(주검)를 만졌거나 접촉된 자는 부정, 즉 정결하지 못한 자로 취급되어 범죄한 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았다.

7. Q '사람의 부정'이란 무엇인가? (3절)
   A (1) 피부병, 문둥병, 여자의 경도(經度), 출산, 시체 접촉 등 사람에 관한 부정을 말한다(참조, 12:1-5;13:1-8).
   (2) 이러한 부정을 입으면 그 범과(犯過)를 제거해야 할 책임이 뒤따른다.
   (3)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식적(儀式的)인 불결을 통하여 종교적 불결을 느끼게 하셨고 외부의 의식적 정결을 통하여 영적인 정결을 가르치셨다(참조, 11-15장;신10:16). 동물의 사체(死體)에 관한 부정과 사람의 부정에 대해서는 11-15장을 보라.

8. Q 무심중(無心中)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4절)
A (1) '무심중에'란 말은 히브리어로 〈레바텐〉인데 '거칠게 말하다', '어리석게 말하다' 등의 말에서 나왔다.
(2) 그러므로 무심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한다는 뜻을 무모하게(흥분하여) 아무렇게나 맹세한다는 뜻이다.
(3)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은 말하는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 아무리 화가 나고 서운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말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참조, 약1:19;3:6).
(4) 만약 무모하게 아무렇게나 맹세한 일이 있다면 맹세한 자는 그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9. Q 무심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는 것은 왜 허물이 되는가? (4절)
A (1)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특히 꼭 지키려는 깊은 생각도 없이 험한 소리로 아무렇게나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위이다(참조, 전 5:2).
(2) 하나님께서는 신·구약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진실을 강조하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10. Q 자기의 허물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5, 6절)
A (1) 즉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해야 한다.
(2) 이렇게 고백하는 일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있어야 할 필수적인 순서였다.
(3)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일은 사죄(赦罪)의 첫 단계이다.
(4)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어린 암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렸다.
(5) 이때 제사장은 속죄제의 경우처럼 회생 제물을 여호와께 드려 허물을 깨달은 자를 위해 속죄하였다.

11. Q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면 먼저 그 죄를 자복(自服)해야 한다. 죄인의 자복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5절)
A (1)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 가운데 죄인이 자복하고 통회하는 것을 으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는 집에 돌아가기 전에 먼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라고 자복하였다(눅 15:18). 그의 이러한 자복의 결과는 아버지의 용서는 물론 아버지에게 큰 기쁨을 안겨다 주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죄(赦罪)와 더불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이다(눅 15:10).
(2) 인간이 율법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필요성을 알게 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
(3) 그러므로 자복하는 심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 있는 영적 실체이다.
(4) 본문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허물을 시인하고 자복하는 절차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먼저 죄에 대한 통회와 자복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한다. 죄의 자복의 결과는 자신에게는 큰 은혜요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이 된다.

12. Q 소, 양, 염소 등으로 속죄제를 드릴 수 없는 자들은 어떤 예물을 드렸는가? (7-13절)
A (1) 첫째,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드릴 수 있었다.
(2) 둘째,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의 경우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다.
(3)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이처럼 가난한 자의 속죄에까지도 미치고 있다.
(4) 언제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날에는 성도 개개인을 통하여 이웃에게 나타나야 한다(참조, 시 72:13;사 63:9;슥 7:9).

13. Q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를 말하라(7-10절).
A (1) 먼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온다.

(2) 제사장은 범죄자를 위하여 먼저 속죄 제물로 비둘기의 머리를 비틀어 꺾고 그 피를 번제단 곁에 뿌리고 남은 피는 단 밑에 쏟았다.

(3) 다음에 일반 번제의 규례대로 다른 한 마리를 번제로 드렸다.

14. Q **범과(犯過)한 자가 새의 종류나 고운 가루로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주는가? (7, 11절)**

A (1) 하나님께서는 허물이 있는 자가 예물을 드릴 때 최대한의 정해진 예물을 드릴 것을 바라신다. 그러나 힘이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

(2) 이것은 가난한 이가 예물이 없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므로써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긍휼(矜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말해 준다.

(3) 이것은 신약 시대에 누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음의 보편성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느 누구도 너무 가난하여 천국 가는 교통비를 준비할 수 없다는 말을 결코 할 수 없게 되었다.

15. Q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어떤 속죄제가 있는가? (11-13절)**

A (1)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약 1.2되)을 제사장에게로 가져 왔다.

(2) 본래 속죄제는 피 흘리는 제사이므로 고운 가루 자체로서는 속죄 제물이 될 수 없다. 다만 희생 제물을 대신하여 고운 가루가 허용된 것뿐이다.

(3) 그러므로 고운 가루를 속죄 제물로 드릴 경우에는 그것을 매일 드리는 번제 희생 제물 위에 올려 놓아 같이 불살랐다.

(4) 가난한 자들도 속죄의 근본 의미와 그 규례 속에서 얼마든지 사죄받을 수 있는 사실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 계급,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구원받는 사실에 대한 예표이다.

16. Q **고운 가루를 속죄제로 드릴 때는 그 가루를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소제와 어떻게 다른가? (11절)**

A (1) 고운 가루는 일반적으로 소제를 드릴 때 사용되는 예물이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이것이 속죄 제물로 쓰일 경우에는 기름을 붓거나 유향은 놓지 않았다.

(2) 소제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 있는 자들이 더 나은 은혜와 축복을 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제사로서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 제사를 드린다.

(3) 그러나 고운 가루가 속죄 제물로 사용될 경우에는 범죄한 자로서 죄의 용서를 위한 것이므로 기름이나 유향을 함께 드릴 수 없는 것이다.

17. Q **속건제는 속죄제와 어떻게 다른가? (14절-6:7)**

A (1) 속죄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든 경우에 드려지는 제사로서 그 범위가 넓다.

(2) 그러나 속건제는 주로 하나님의 권위나 이웃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드리는 제사로서 그 범위가 좁은 것이 특징이다.

(3) 그리고 속건제는 속죄제에 비하여 배상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속건제는 속죄제의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4) 이런 의미에서 어떤 학자(Fairbairn)는 속건제를 '제 2 급의 속죄제'라고 한다.

18. Q **속건제의 의미를 간략히 말하라(15절).**

A (1)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인데 영어 성경에는 범죄제(trespass offering)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속건제는 속죄제(sin offering)와는 구분된다.

(2) 즉 속건제는 남의 권리나 재산을 침해한 사실에 대하여 그 책임을 느끼고 보상하며 용서를 구하는 제사이다.

(3) 배상하는 방법은 그 본물(本物)에 5분의 1을 더해 돌려주었다. 이는 일종의 벌과금이다.

19. Q **성물(聖物)에 대하여 범죄하면 어떻게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가?** (15, 16절)

A (1) 수양을 속죄제의 경우처럼 여호와께 드린다.

(2) 성물에 대한 벌과금으로 본물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내야 했다.

20. Q **금령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7-19절)

A (1) 여기서 '부지중에'라는 말은 4:22;5:2 등의 '부지중에'(히, 비쉬가가)라는 말과 전혀 다른 의미이다.

(2) 즉 이곳의 '부지중에'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로 야다〉인데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범죄한 것을 의미하며, 4:22;5:2의 '부지중에', 즉 히브리어로 〈비쉬가가〉인 '믿음이 연약하여 어쩔 수 없이 범죄한 것'과는 다른 것이다.

(3) 이와 같이 죄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범죄한 경우에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드려 사죄를 구하였다.

21. Q **속건제 규례에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18절)

A (1) 배상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2) 배상하는 근본 의미는 화해에 있다. 남의 권리나 재산을 침범한 자에게 있어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의미의 배상은 양측 사이의 화해를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3) 삭개오는 부당하게 징수한 세금에 대해서는 4배를 갚겠다고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예수께 보여 드렸다(눅 19:1-10).

(4)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화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속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배상함으로 진정한 화해를 이루셨다(참조, 히 10:14).

22. Q **속건제를 드려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나타내는 의미를 요약하라.**

A (1)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구속을 이루신 사역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시고 당신의 거룩성이 파괴되는 것으로 그의 권위가 상실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구속(救贖) 사역으로 인하여 더 많은 영광과 찬송을 거두셨다.

(2)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창조 완성에 대한 놀라움과 경이에 대하여 영광과 찬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역과 텅빈 무덤(부활의 사건)으로 인해 더 많은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3)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10, 11). 이것이야말로 속건제를 드려 구속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이며 성도들이 영원히 감사해야 할 조건이다.

23. Q **속건제에 나타난 죄의 용서와 손해 배상의 원리에서 배울 수 있는 성도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제시하라.**

A (1) 마 5:23, 24과 18:21, 22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두 사람 사이에 생긴 과오와 손실을 해결하는 놀라운 원리와 방법이 있다. 먼저 가해자는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기 전(예배를 드리기 전)에 피해자에게 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 형제가 '원망하고 있는 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통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2)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를 받아들이는 데에 배워야 할 아름다운 방법을 살펴보라.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일곱 번 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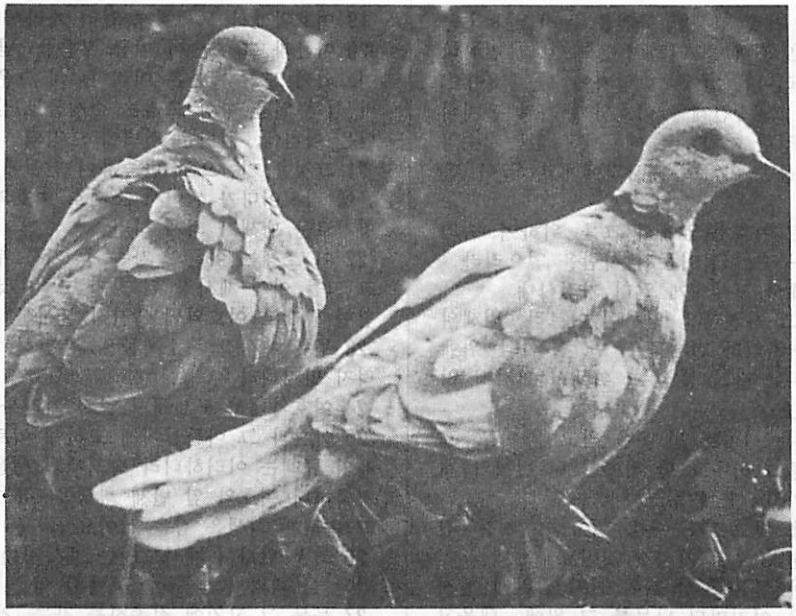
(3) 형제 사이의 모든 문제 해결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누가 뉘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같이 너희도 그리하고'(골 3:13).

(4)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심판하고 정죄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오히려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 주기를 바라신다.

(5)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취해야 할 마땅한 삶의 자세이다. 예수는 이에 대해 일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 가르쳐 주셨다(마 18:23-35).

화보자료

비둘기. 아래의 사진과 같은 비둘기(히, 요나)는 팔레스틴에서 들비둘기과에 3종, 산비둘기과에 3종 등 약 6종류가 살고 있다.



재산이 넉넉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양 대신으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사실은 (12:7, 8, 비교, 14:22) 여호와께서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심을 보여 준다.

제 6 장 각 제사에 대한 제사장의 직무

단락구분 *1-7* 속건제를 드려야 할 여러 가지 죄 / *8-13* 번제를 드리는 세부 방법에 대한 규정 / *14-18* 소제의 규정에 대한 정리 / *19-23* 아론 가문의 제사장 위임을 위해 드려야 할 제사들 / *24-30* 속죄제에 대한 보충 규정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맡거나 전당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3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4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5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 보내되 곧 그 본물에 오분 일을 더하여 돌려 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6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 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떼 중 흠 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 올 것이요
7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9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0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의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11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12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여 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사를지며
13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14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15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16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17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18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1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0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에바 십분 일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21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번철에 굽고 기름에 적시어다가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22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23 무릇 제사장의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2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5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26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 뜰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27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28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29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30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1. Q 본장의 개요와 특징을 말하라.
   A (1) 앞장의 5:14부터 본장의 7절까지는 속건제의 규례가 언급되었으며 본장의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내용이다.
   (2) 제사의 종류와 방법이 언급되었고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임무가 뒤따르는 것은 모든 제사가 제사장을 거쳐 여호와께 드려지기 때문이다.

2. Q 속건제를 드려야 할 이웃에 대한 범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인가? (1-5절)
   A (1) 남의 물건을 맡거나 전당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죄이다.
   (2) 또한 남의 잃은 물건을 얻었으나 그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의 범죄이다.
   (3) 이러한 범죄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범죄 행위로 규정되었다.

3. Q 이웃의 재난이나 권리를 침해한 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가 되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1-4절)
   A (1) 모든 범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치 못한 결과로 일어난다. 인간이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Coram Deo)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한다면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2) 특히 이웃에 대한 거짓된 행동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치 못한 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범죄한 것과 마찬가지이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서로 지체로서 한 형제요 자매들이다(엡4:25). 그러므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3) 그러므로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서로 존경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19:18)고 가르치셨다.
   (4) 그러므로 외로운 자를 돌아보지 않고 약자를 후원하지 않으며 굶주린 자를 구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가 되는 것이다.

4. Q 이웃에게 해를 주는 범죄 행위는 어떻게 속건제를 드렸는가? (4-7절)
   A (1) 먼저 이웃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되 본물(本物)에 5분의 1을 더해 배상해야 한다.
   (2) 그리고 범죄자가 수양을 속건 제물로 가져오면 제사장이 여호와께 드려 속죄하였다.
   (3) 결과적으로 속건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죄를 깨닫고 배상하는 일이 앞선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4) 예수께서도 먼저 형제에 대한 범죄 행위(원망 들을 만한 일)를 용서받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치셨다(마5:23,24).

5. Q 악한 수단으로 얻은 물건을 본물(本物)에 오분 일을 더하여 배상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5절)
   A (1)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며 새 삶의 길로 방향을 바꾸어 들어서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단지 원상 복귀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신실한 생활 방식의 변화를 가리킨다.
   (2) 그러므로 이웃에게 해를 끼친 자가 본물(本物)만을 돌려준다면 그 동안 이웃이 받은 손해나 고통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3) 성도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회개와 더불어 손해 배상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
   (4)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진정한 회개의 표시로써 남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던 모든 경우에는 4배로 갚아 주겠다고 말했다(눅19:8).
   (5) 이와 같이 배상하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데 회개의 참 의미는 행위가 수반되는 진정한 돌이킴과 아울러 전보다 더 나은 생활에로의 발전이다.

6. Q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배상하는 순서는 어떤 교훈을 주는가? (5절)

Ⓐ (1) 만일 남의 물건을 훔친 자가 속건제를 먼저 드려 용서를 받는다면 하나님은 죄인의 예물을 받으신 결과가 된다. 하나님은 도적의 물건을 받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먼저 이웃을 찾아가 진정한 용서를 받고 그 후에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아야 한다.

(2) 신약 시대에 예수께서도 이 원리를 강조하셨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이웃)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 드리기를 멈추고 먼저 이웃에게 가서 화해을 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다(마5:24). 하나님과 교제를 갖기 전에 먼저 이웃과 화목해야 성도들에게 합당한 신앙 생활이 이루어짐을 보여 주신 것이다.

(3) 제물을 드려 속죄를 받는 의미는 하나님과 범죄자 사이의 화목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화목을 위해서는 이웃과의 화목이 선행(先行)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참조. 잠17:1;마5:24;막9:50;고후5:19;살전5:13).

7. Ⓠ 속건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6절)

Ⓐ (1) 이웃에게 해를 끼친 것은 하나님께 신실치 못한 데서 나온 결과이므로 하나님께도 속죄해야 한다.

(2) 이 속죄제 자체가 죄를 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대속을 상징하며 그것에 대한 모형(type)임을 나타낼 뿐이다.

8. Ⓠ '제사장은…사함을 얻으리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7절)

Ⓐ (1)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행위는 반드시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다. 즉 제물은 범죄한 자가 이끌어 오지만 이 제물을 드려 속죄의 행위를 구하는 자는 제사장이었다.

(2) 이것은 신약 시대에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속죄가 가능한 것을 예표하고 있다.

9. Ⓠ 구약 시대의 희생 제사 제도의 의의(意義)를 말하라(7절).

Ⓐ (1) 구약 시대의 의식과 제도는 영적 진리에 대한 상징을 포함하고 있다. 즉 짐승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속죄의 예물을 드리며 자원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모형(type)인 것이다.

(2)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를 가리켜 '육체의 예법'(히9:10)이라고 말했다. 즉 구약의 제도들이 신약 시대의 영적 제도의 표상임을 말한 것이다.

(3) 결국 구약의 희생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누구라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4) 더 이상 의식이나 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대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더욱 깊어졌고 이 길만이 참 길이 되었다(요14:6).

10. Ⓠ 속죄의 원리는 용서에 있다. 성도들의 용서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7절)

Ⓐ (1)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가 죄인되어 있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사실에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용서해야 한다.

(2) 용서는 그리스도와 나와 형제 사이의 상호 관계를 화평하게 유지하는 일이다. 용서와 사랑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단지 반영하는 것뿐이다.

(3) 형제를 향한 용서는 그 형제의 선함이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참 용서의 근본이신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에 그 근거를 둔다.

(4) 결론적으로 형제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그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을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5) 용서에 관한 주요 성경 귀절은 다음과 같다(참조. 잠17:9;마6:14,15;18:21,22;눅17:3;고후2:7;골3:13;요일1:8-10).

11. Q 단 윗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는 번제물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9절)

A (1) 상번제로 드리는 양의 희생 제물을 가리킨다.

(2) 상번제(常燔祭)는 매일 아침과 저녁 두 번에 걸쳐 드리는 제사로서 일반적으로 해질 무렵과 그 이튿날 아침에 드린다.

(3) 그러므로 아침까지 두는 번제물은 전(前)날 해질 때에 드린 번제물이 그 이튿날 아침까지 계속 타고 있는 번제물을 가리킨다.

(4)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은 저녁 때가 한 날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상번제는 저녁에 한 마리의 양을 드려 이튿날 아침까지 타도록 하고 또 아침에 한 마리를 더 드려 저녁까지 타도록 했다.

(5) 상번제를 드려 제물이 단에서 계속 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충성과 헌신을 상징한다.

12. Q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9절)

A (1) 이 말은 계속 번제물을 놓아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2) 즉 불이 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번제물을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드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번제를 계속 드려서 여호와께 끊임없는 헌신을 나타내라는 의미이다.

13. Q 제사장이 매일 아침에 하는 중요한 직무는 무엇인가? (10-13절)

A (1) 세마포 긴 옷과 세마포 고의(袴衣)를 입고 번제의 재를 긁어 모아 단 곁에 두고 다시 평상복으로 갈아 입는다.

(2) 평상복으로 갈아 입은 후 그 재를 가져다가 진(陣) 바깥 정결한 곳에 버린다.

(3) 그 후에 다시 나무를 가져다가 단 위에 벌여 놓고 그 위에 번제물을 놓는다.

14. Q 제사장이 재를 버리는 곳인 '진 바깥 정결한 곳'은 어디인가? (11절)

A (1) 이곳은 제단 동편의 재 버리는 곳을 의미한다(1:16).

(2) 재 버리는 곳을 '정결한 곳'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버리는 곳이기 때문이다.

15. Q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사를지며'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12절)

A (1) 화목제를 드릴 경우에는 화목제의 예물인 기름 부분을 항상 타고 있는 상번제물 위에 놓아 같이 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화목 제물 위의 모든 다른 제사들도 화제(火祭)로 드릴 경우에 언제나 상번제와 더불어 드렸다.

16. Q 제사 예물이 제사장의 몫으로 되는 경우의 제사 종류는 무엇인가? (16-18절)

A (1) 소제로 가져온 예물 가운데 제사장이 취하여 화제를 드리고 남은 부분 전체이다.

(2) 속죄제와 속건제 중에서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의 예물은 그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먹을 수 없으나 족장이나 일반 평민을 위한 속죄제와 속건제의 예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다.

(3) 화목제물 가운데 거제와 요제로 드린 부분들이다.

(4) 번제 가운데서도 가죽 부분이다.

17. Q 아들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 받아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날에 드리는 소제의 규례를 말하라(19-23절).

A (1)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소제물로 삼아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린다.

(2) 이 경우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반죽한 후 번철에 굽고 '기름에 적시어다가 썰어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렸다.

(3) 그리고 이 소제물을 조금도 남겨 두지 않았으며 전부 불살랐다.

(4) 제사장이 다른 사람을 위한 소제를 드릴 경우에는 소제의 남은 부분이 그들의 몫이 되

었으나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소제물을 드릴 때에는 남기지 않고 온전히 불살랐다.

18. Q 속죄제의 고기는 어디서 먹을 수 있는가? (26절)

A (1) 회막 뜰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과 그의 가족 중 남자들이 먹었다.

(2) 속죄 제물로 드린 고기를 먹는 자는 역시 거룩한 자로 취급되었다.

19. Q 제사장의 옷에 묻은 피는 어떻게 하였는가? (27절)

A (1)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은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옷에 희생 제물의 피가 묻게 된다. 이 경우에는 옷을 물에 빨아야 한다.

(2) 피는 생명을 상징하며 여호와께만 드려져야 할 희생의 상징이다.

(3) 그러므로 피는 여호와께 드려 속죄하는 일 외의 어떤 다른 목적에도 이용될 수 없다.

(4) 피묻은 옷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여호와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20. Q 속죄 제물을 삶은 토기나 유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가? (28절)

A (1) 토기는 깨뜨리고 유기는 닦고 물에 씻었다.

(2) 왜냐하면 제물은 성물(聖物)이므로 성별시키기 위해서이다.

(3) 그런데 토기를 깨뜨린 이유는, 토기는 흡수성이 있으므로 제물의 성분을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4) 하지만 유기는 닦고 씻음으로써 제물의 성분이 제거될 수 있으므로 깨뜨리지 않았다.

(5) 이와 같이 성도의 삶도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므로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21. Q 성소에서 속하게 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하고 불사른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30절)

A (1)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죄를 속하는 경우의 속죄제의 희생 고기는 먹을 수 없다는 뜻이다.

(2) 이 경우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의 두 종류가 있다(4:1-21).

22. Q 본장을 중심으로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설명하라.

A (1) 주님은 형식으로 섬기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진실히 섬김을 원하신다(2절).

(2) 일평생 변함없이 항상 섬겨야 한다(8-13절).

(3) 사람의 성의껏 섬겨야 한다(14-18절).

(4) 몸과 마음을 다하여 완전히 섬겨야 한다(19-23절).

(5)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므로 거룩히 섬겨야 한다(24-30절).

본장의 요절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여
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사를지며' (12절).

제 7 장 각 제사에 있어서 제사장의 몫

단락구분 *1-7* 속건제에서 제사장이 할 일 / *8-10* 번제, 소제에서의 제사장의 몫 / *11-21* 화목제 중 감사제와 자원제에서의 제사장의 몫과 공동 식사의 법 / *22-27* 피와 기름의 식용 금지 / *28-34* 화목제 중에 얻을 제사장의 몫에 대한 세부 규정 / *35-36* 제사장의 분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 *37-38* 제사 제도의 규정 부분의 종결론

1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2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3 그 모든 기름을 드리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4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고
5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는 속건제요
6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7 속건제나 속죄제는 일례니 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8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9 무릇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솥에나 번철에 만든 소제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10 무릇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이 평균히 분배할 것이니라
11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12 만일 그것을 감사하므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13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14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15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16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17 그 희생의 고기가 제 삼 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18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 삼 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열납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19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20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21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3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24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25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26 너희의 사는 모든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27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2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9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30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 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31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32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33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34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35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36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37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38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

1. **Q 본장의 중심 내용을 말하라.**
   A (1) 본장에는 전장(前章)에 이어 속건제 및 화목제의 규례가 언급되어 있으며 이 제사들에 있어서 제사장의 몫과 그 제물을 먹는 규례가 언급되어 있다.
   (2) 제사의 종류와 방법에 대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
   (3) 특히 제사 제도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2. **Q '지극히 거룩하니'란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1절)**
   A (1) 이 말은 히브리어로 〈코데쉬 카다쉼〉인데 본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출29:37;40:10)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에 대하여 사용되는 말이다(2:3, 10;6:17, 25, 29;7:1;10:12, 17;14:13;24:9;27:28;민18:9, 10).
   (2)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의미에서 여호와께 가져 온 모든 예물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좇아 모두 성물(聖物), 즉 거룩한 것으로 여겨졌다.
   (3) 그러나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 불태워져 드려진 부분과 제사장을 비롯한 그의 가족 중 남자들이 거룩한 곳, 즉 회막에서 먹을 수 있었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지성물, 至聖物)으로 여겼다(6절).
3. **Q 속건제의 희생은 어디서 잡았는가? (2절)**
   A (1)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았다.
   (2) 이곳은 번제단의 북쪽을 가리킨다.
   (3) 즉 번제단의 북쪽으로 모든 희생 제물을 잡는 곳으로 지정되어 있다.
   (4) 속건제의 제사는 속죄제와 성질이 거의 같으므로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었다.
4. **Q 속건제의 경우 피 뿌리는 곳은 어디인가? (2절)**
   A (1) 희생 제물을 잡는 법과 피를 뿌리는 것은 번제의 경우처럼 단 사면에 뿌렸다.
   (2) 즉 속건제의 경우는 번제단의 사면의 중앙에는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는데 그 줄을 중심으로 피를 뿌렸다고 한다.
   (3) 피 뿌리는 것은 제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를 예표한다.
5. **Q 속건제의 희생 제물은 무엇인가? (3절)**
   A (1) 속건제의 예물은 언제나 수양이었다(5:15, 18;6:6).
   (2) 수양의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여 단에 불살라 드렸다.
6. **Q '속건제나 속죄제는 일례(一例)니'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7절)**
   A (1) 두 제사에 있어서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권한과 방법이 동일하다는 뜻이다.
   (2) 즉 속건제는 속죄제와 같이 제사장의 남자들이 회막에서 그 예물을 먹을 수 있다.

(3) 이 경우의 제사장의 몫은 기름 부분과 콩팥을 제외한 희생 제물의 모든 부분이었다.
(4) 그러나 속죄제의 경우 제사장 및 온 회중을 위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했다.

7. Q '사람의 번제'란 무슨 뜻인가? (8절)
A (1)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매일 두 번 드리는 상번제와 구분하여 일반 개인이 드리는 번제를 가리킨다.
(2) 즉 특정한 어떤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죄의 회개를 위하여 번제물을 드리는 경우를 말한다.

8. Q 번제를 드릴 때의 제사장의 몫은 무엇인가? (8절)
A (1) 희생 제물의 가죽 부분이다.
(2) 이 경우 개인이 드리는 번제의 가죽은 제사장의 몫이 되지만 상번제의 희생 제물의 가죽은 제사장의 몫이 되지 않는다.
(3) 상번제의 경우 그 희생 제물의 가죽은 성막 유지비로 사용되었다.

9. Q 소제를 드릴 때의 제사장의 몫은 무엇인가? (9절)
A (1) 모든 소제물로 가져온 예물 가운데 단에 올려져 화제로 드려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체는 제사장과 그 가족을 위한 음식으로 사용되었다.
(2) 단에 드려진 후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극히 거룩한 것, 즉 성물(聖物)이라고 불려졌다.

10. Q 화목제를 드리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11절)
A (1) 경배자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와 친교를 회복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나타낸다.
(2)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은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참조, 롬5:1;골1:20).
(3) 그러나 성도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희생의 제물 이전에 진실한 회개와 눈물의 자세가 수반되어야 했다.
(4)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화목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악의 벽을 무너뜨렸다.
(5) 그러므로 성도의 진정한 화목 제물은 회개를 통한 삶의 변화와 용서와 사랑의 삶을 실현하는 것이다.

11. Q '감사하므로 드리거든'의 의미와 그 제사의 방법을 말하라(12절).
A (1) 화목제의 희생은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다. 이 세 가지의 제사법 중 여기서는 감사제를 가리킨다.
(2)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는 무교병과 무교전병과 구운 과자를 소제로 같이 드렸다.
(3) 이때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더불어 드리는데 이 유교병을 제단에 올리지 않고 다만 제사장의 응식(應食)으로 삼았다(10:13).
(4)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제사 응식은 당일에만 먹을 수 있고 그 이튿날에는 먹을 수 없었다.

12. Q 화목 제물의 음식을 먹는 규례는 어떠했는가? (15-18절)
A (1) 화목제의 종류로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는데 화목제의 종류에 따라 그 음식을 먹는 방법이 다르다.
(2) 감사제의 화목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당일에만 그 제물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3) 그리고 서원제와 자원제의 화목 제물은 제사 드린 당일과 그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제 3일에는 남은 모든 제물을 불태웠다.
(4) 만약 제 3일에 그 제물을 조금이라도 먹게 되면 그 화목제는 열납되지 아니했으며 오

히려 가증한 것이 되어 고기를 먹는 자는 정죄를 받게 되었다.

13. Q 화목 제물을 먹는 사실에서 나타난 의미는 무엇인가? (15절)

A (1) 이것은 화목제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과의 친교를 나누는 것을 뜻한다. 즉 하나님과 인간이 한 식탁에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식사를 하는 것과 같은 정겨움을 느낄 수 있다.

(2) 화목 제물은 이웃과도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었다. 이것은 가난한 자에게 사랑을 주는 기회도 되었다.

(3)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히13:16)고 하였다.

14. Q 화목 제물을 먹을 수 없는 자는 누구인가? (19절)

A (1) 깨끗치 못한 자들이다.

(2) 비록 화목제는 예물을 드리는 자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라 할지라도 의식적(儀式的)으로 불결한 자들은 참예할 수 없다.

(3) 즉 문둥병자, 유출병 환자, 설정(泄精)한 자 시체를 만진 자 등 깨끗치 못한 자는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4)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은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자로 인정받은 자들만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15. Q 부정한 자가 화목 제물을 먹을 수 없는 규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20절)

A (1) 의식상(儀式上) 조금이라도 부정한 자는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없었다. 만약 부정한 자가 그 제물을 먹으면 생명에 위험이 뒤따랐다.

(2) 이것은 오늘날 죄악의 오염으로부터 성도들이 철저하게 격리되어야 할 것을 말한다. 자신을 더럽히는 자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모독하는 죄악을 행하는 자이다.

(3) 오늘날 주의 식탁에서 거룩한 식사(성만찬)를 할 때에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죽음과 보혈을 모독하는 결과가 되어 죄의 형벌을 면치 못한다.

(4) 이러한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고전11:29).

16. Q 부정한 자가 제사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21절)

A (1) 부정하게 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된다.

(2) 즉 그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로부터 제외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누릴 자격을 상실하고 마는 것이다.

17. Q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21절)

A (1) 예물로 드려진 희생 제물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여호와의 거룩성을 따라 거룩한 것이 되었다.

(2)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하여 거룩하게 된 화목제 희생의 고기(제물)를 먹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다.

(3)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쳐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성도)이 되었다.

18. Q 어떤 제물을 먹을 때 백성들로부터 끊쳐지는 벌을 받았는가? (22-27절)

A (1)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짐승, 즉 소, 양, 염소 등의 희생 제물의 기름은 여호와께 바쳐지는 예물이므로 하나님께만 구별하여 바쳐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2) 만약 여호와께 제물로 사용되어지는 짐승의 기름을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졌다.

(3)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축복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서도 제외되어 어떤 국가의 법이나 혜택도 받을 수 없

는 것을 의미한다.

(4)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벌을 받은 자를 죽여도 죽인 자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5) 그러므로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벌을 받는 것은 영적, 육적인 모든 형벌을 의미했다.

19. Q 피를 먹지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반복되어 강조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26, 27절)

A (1) 사람이나 짐승의 피는 절대적으로 그리고 영구히 먹지 못하도록 금지되었다.

(2)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이 피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죄를 속하는 일 이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사용될 수 없다.

20. Q 화목 제물 가운데 여호와의 몫은 무엇이며 이 가운데 제사장에게 돌려지는 몫은 무엇인가? (28-36절)

A (1) 화목제의 희생 제물은 짐승의 기름 부분과 뒷다리와 가슴 부분이었다.

(2) 이렇게 드려진 희생 제물 가운데 기름 부분은 제단에 올려져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 드려지고 거제와 요제로 드려진 뒷다리와 가슴 부분은 다시 제사장에게로 돌려져 제사장의 음식이 되도록 하였다.

(3) 그러므로 기름 부분은 하나님 몫으로 그리고 뒷다리와 가슴 부분은 제사장의 몫으로 처음부터 분리하는 것은 잘못이다.

(4) 여호와 앞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은 전부 여호와의 몫이며 그 가운데 일부가 다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질 뿐이다.

21. Q 요제는 무엇인가? (30절)

A (1) 요제(wave offering)는 히브리어로 〈테누파〉인데 손으로 흔들다는 말(히, 누프)에서 나왔다.

(2) 그러므로 요제는 제사장이 손 위에 제물을 올려 놓고 제단 앞에서 수평되게 앞뒤로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말한다.

(3) 제물을 앞으로 밀었다가 뒤로 움직이는 것은 여호와께 드린 예물이 다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4) 이렇게 요제로 여호와께 드려진 화목 제물의 가슴 부분은 늘 제사장의 몫이 되었다.

(5) 하나님을 위한 봉사에만 전념하는 제사장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의 음식을 제공하셨다.

22. Q 거제란 무엇인가? (32절)

A (1) 거제(heave offering)는 히브리어로 〈테루마〉인데 '높이 들다', '들어 올리다' 등의 뜻이 있는 말(히, 룸)에서 나왔다.

(2) 드리는 방법은 제물을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높이 쳐들었다가 다시 아래로 내린다.

(3) 높이 쳐드는 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표현이며 다시 내려 놓는 것은 여호와께 드려진 예물이 다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23. Q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34절)

A (1) 요제로 드려진 화목 제물의 가슴 부분을 흔든 가슴으로 표현했으며 거제로 드려진 뒷다리 부분을 든 뒷다리로 표현하였다.

(2) 즉 요제와 거제로 드려진 화목제의 고기를 의미하며 이 경우의 고기는 모두 여호와의 몫으로부터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졌다.

24. Q '영원한 소득'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34절)

A (1) 여호와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는 제사장에게 생계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거제와 요제로 드린 부분을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되게 하셨다.

(2) 그러므로 '영원한 소득'의 의미는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한 거제와 요제의 화목 제물은 언제나 그들의 몫이 된다는 뜻이다.

(3)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종사하는 한 그에게는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받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4) 공중의 새 한 마리까지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우주적인 사랑을 배울 수 있다(참조, 마 6:26).

25. Q 속건제나 화목제의 경우에도 제사장의 몫이 있었다. 제사장의 몫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4절)

A (1) 제사를 집행하는 거룩한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에게도 생계에 필요한 음식이 공급되어야 했다. 제사장들은 생계를 위해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백성이 가져온 제물 가운데 정해진 부분이 그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2) 즉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몫으로 가져온 예물 중에서 하나님이 다시 제사장에게 몫을 떼어 주신 셈이 된다. 그러나 그들이 제물에 욕심을 보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제물은 본래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예물이기 때문이다.

(3) 따라서 오늘날 주의 종들도 생계에 필요한 그 이상의 물질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일용할 양식(참조, 잠 30:8; 마 6:11)으로 감사해야 한다. 성직자의 타락은 필요 이상으로 물질을 추구하는 일에서 발생된다.

(4)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해진 분복에 감사하는 생활에 힘써야 한다. 이것이 행복이다. 하나님은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으신다(고전 9:9).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그의 몫을 주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전 9:9, 10).

26. Q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이란 어떤 날인가? (35절)

A (1) 이날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날을 가리킨다.

(2) 모세가 관유와 제단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옷에 바르고 7일간의 위임식을 진행하였으며 이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삼았다.

27. Q 위임제에 대해서 설명하라(37절).

A (1) 위임제(consecration)를 가리키는 말의 히브리어는 〈밀루임〉인데 '손을 채우다', '채우다' 등의 뜻이 있는 말(히, 말레)에서 나왔다.

(2) 즉 이 말은 여호와를 위해서 손을 채운다는 뜻인데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 제물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출 29:29; 대상 29:5; 대하 29:31).

(3) 그러므로 위임제는 제사장에게 어떤 특별한 권위를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로 성별하는 의식을 가리킨다.

28. Q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의 규례와 제물에 대하여 자세히 지시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A (1)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제사 형식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제사 드리는 데 있어 인간이 소홀히 대하지 않도록 교육시키기 위해서였다. 즉 예배 형식은 변할 수도 있으나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불변하다.

(2) 하나님을 섬기는데 있어서도 자기 마음대로 방자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오직 올바른 예배, 즉 온 마음을 다한 예배만이 열납된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배 시간을 잘지키며 처음부터 끝까지 경건하게 드려야 한다.

(4) 설교 시간만이 중요하고 기도 시간만이 엄숙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모든 절차, 즉 찬송, 헌금, 광고, 기타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의식과 절차이므로 모두 엄숙하고 거룩하게 행해야 한다(참조, 요 4:23).

제 8 장 아론 가문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다

단락구분 *1-3* 제사장 위임식 집행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 *4-9* 제사장 정의(聖衣)의 착용법 / *10-13* 관유를 아론에게 붓다 / *14-17* 제1 차 속죄제 / *18-21* 제2차 번제 / *22-29* 제3차 화목제 / *30-36* 위임식의 장소와 기간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둘과 무교병 한 광주리를 이끌고
3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으라
4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 문에 모인지라
5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6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7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의 기묘하게 짠 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매고
8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9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10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11 또 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 그 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12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13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14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15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16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17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 밖에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18 또 번제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19 모세가 잡아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20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각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21 물로 내장과 정갱이들을 씻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22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23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24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25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우편 뒷다리를 취하고
26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취하여 그 기름 위에와 우편 뒷다리 위에 놓아
27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28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윗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29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 수양의 모세의 응식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30 모세가 관유와 단 위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31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

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32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지며
33 위임식은 칠 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마치는 날까지 칠 일 동안은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34 오늘날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니
35 너희는 칠 주야를 회막 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36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

1. Q 본장의 개요와 특징을 말하라.

A (1) 본장에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성별되는 위임식(委任式)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2) 이 위임식 제사는 제사의 한 종류가 아니라 위임식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일반 제사의 방법과 절차를 사용하던 복합적인 제사였다.

(3) 특히 본장의 위임식과 더불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자신과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림으로써 비로소 제사장의 직무에 임하였는데 이것은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새로운 방법으로 시작된 것을 나타내 준다.

2. Q 위임식 제사에 나타난 의의를 말하라.

A (1)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는 모든 제사의 방법이 계시된 후 모세에 의해 실시되었다.

(2) 이 엄숙한 의식은 모든 백성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3절). 왜냐하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중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었다.

(3) 대제사장이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는 중보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예표한다.

(4) 위임제에 대해서는 7장 Q28을 참조하라.

3. Q 구약의 대제사장적 사역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A (1) 구약의 대제사장의 속죄 사역은 단번에 속죄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되었다.

(2) 그러므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적 사역을 친히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3) 이런 의미에서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4) 이제 성도들은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벧전 2:9).

(5) 성도들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직접 선포하는 이러한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주어진 성도들만의 특권이다.

4. Q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을 위한 준비물은 무엇인가? (1-3절)

A (1) 의복, 관유, 속죄제를 위한 수송아지와 수양 둘, 무교병 한 광주리였다.

(2) 의복은 제사장이 제사 직무를 수행할 때 입는 7가지의 제복을 가리킨다.

(3) 관유는 히브리어로 〈세멘 하미쉬하〉인데 이 말은 제사장이나 왕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할 때나 거룩한 목적에 사용되는 기름을 말한다.

(4) 수송아지는 죄를 속하는 속죄제로 드렸고(14-17절) 수양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전적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18-21절)로 드렸으며 다른 한 마리는 교제의 기쁨과 회복을 상징하는 화목제(22-29절)로 드렸다.

(5) 무교병 한 광주리는 속죄제나 번제를 드린 후 함께 드리는 소제를 위한 것이다.

5. Q 회중을 회막 문에 모은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1) 회중이란 말은 여기서 히브리어로 〈콜 에다〉인데 모인 무리들 개개인을 지칭하는 말(congregation)로 사용된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로 번역되었으며 개역 성경에는 대부분 '교회'로 번역되었다.

(2) 회중을 회막 문에 모이라고 명령한 이유는 제사장의 위임이 백성들과 직접 관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3) 즉 장차 거행될 위임식을 통하여 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6. Ⓠ 위임식 제사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독특한 교훈은 무엇인가? (4-9절)

Ⓐ (1) 하나님의 임명에 의해서만 제사장으로 위임될 수 있는 사실은 신약 시대에 있어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보여 준다.

(2) 한편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모세가 아론을 위임시킨 사실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나타나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한시키실 수 있으나 당신은 어느 누구에게나 어떤 제도를 통해서도 현실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홀로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때로 인간에게 필요한 형식을 세워 주신다.

(3) 아론의 대제사장적 사역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상징이다. 위임식의 피 뿌리는 의식을 통해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으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는 구속의 은총을 받는다.

(4) 제사장으로 위임될 때 기름과 피를 뿌려 성별된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받은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사역으로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나타낸다.

7. Ⓠ 위임식에 앞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행한 첫번째 일은 무엇인가? (6절)

Ⓐ (1) 물로 몸을 깨끗이 씻도록 하였다. 즉 손과 발 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씻게 했다.

(2) 이것은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여 죄에서 깨끗함을 입은 후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계 1:5, 6).

(3) 아론이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 일을 행한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도 큰 무리 앞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비로소 공적인 사역,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마 3:13-17).

8. Ⓠ 제사장이 입는 제복의 종류는 어떤 것인가? (7절)

Ⓐ (1) 속옷, 겉옷, 띠, 에봇, 흉패, 관, 금패 등 7가지이다(참조, 출 28:4; 29:5, 6).

(2) 이 옷을 입은 후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 위임되었다.

(3) 이 제복의 하나하나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9. Ⓠ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에봇이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7절)

Ⓐ (1) 이 옷은 제사장의 제복 가운데 대표적인 옷이며 어깨에 띠를 걸쳐 제사장의 앞을 가리는 옷이다.

(2) 이것은 죄를 가리어 주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따라서 구약 시대에 제사장은 반드시 에봇을 걸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다(참조, 삼상 21:9; 22:18; 23:6).

(3)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께서 구약의 상징적 예표를 성취하셨으므로 이와 같은 외형적인 제도는 소멸되었다.

10. Ⓠ 제사장의 복장에서 나타나는 그의 세 가지 기능은 무엇인가? (7절)

Ⓐ (1) 어깨의 에봇 견대 위에 있는 두 개의 '보석'(호마노)은 제사장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두 개의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이 각각 6명씩 새겨져 있다. 그러므로 이 보석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한 제사직을 담당하는 자임을

나타낸다.

(2) 흉패와 그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의 선지자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3) 제사장의 앞이마에 붙은 '금패'는 그의 왕적 사역, 즉 중보자 메시야적인 사역을 나타내고 있다.

(4) 제사장의 이러한 3가지 직분은 왕적, 선지자적, 제사장적인 사역을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위한 예표이다.

11. Q 우림과 둠밈이 보여 주는 계시 방법의 발달 과정은 어떠한가? (8절)

A (1) 판결 흉패 속에 들어 있는 우림과 둠밈은 '빛남'과 '완전함'을 나타낸다. 이것은 어떤 일을 판결할 때 쓰는 제비 기구인데 그 모양과 사용 방법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이것은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특별하신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는 도구로 이용되었을 것이나 그 구체적 사용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전혀 없다.

(2) 이것은 일반 이방 종교에서와 같은 점치는 도구 정도로 쓰인 것이 아니라 신들의 신탁(oracle)이 신봉되고 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던 시대에 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개입하시고 계시를 주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만 있었는지도 모른다.

(3) 어쨌든 구약 시대의 계시는 대부분 단편적인 구체적 행동의 지시뿐이었지 모든 행동의 원리에 대한 하나님의 포괄적인 지식은 구약의 계시가 성취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비로서 나타나게 되었다.

(4) 오늘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의 뜻을 아는 일은 계시된 그의 완전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주위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신자가 점장이에게 묻듯이 기계적이며 단편적인 미신적 방법(점, 특별한 심령 체험 등)을 구하는 자는 성경의 깊은 뜻을 모르는 자이다.

(5) 성경은 모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행동 원리를 명확하게 보여 준다.

(6) 따라서 구체적인 결정이 어떻게 내려져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욕망이 아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과 기도로 결정을 내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실 것이다.

12. Q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이 보여 주는 것은 무엇인가? (10-12절)

A (1) 제사장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받으심에 대한 전조(前兆)이다(눅 4:18-21; 히 1:9).

(2) 이 관유는 몰약, 육계, 창포, 계피, 감람 기름을 섞어서 만들어진 것이다(출 30:22-25).

(3) 구약에서의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며 여러 가지 재료가 섞여 향기를 내는 기름은 성령의 다양한 은혜의 연합을 연상케 한다(참조, 시 133:2).

(4) 그러므로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과 중재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13. Q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각각 누구에 대한 상징인가? (13절)

A (1) 일반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의 복장은 대제사장인 아론의 복장에 비하여 간소하다.

(2) 이것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권위에 대한 차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혹자는 대제사장 아론은 그리스도의 상징이요, 그의 아들들은 신자의 상징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4)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므로 거룩하고 성별되게 살아가야 한다.

14. Q 제사장의 머리에 관유를 붓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13절)

A (1) 이것은 그리스도의 메시야(기름 부음 받은 자)적 사역을 상징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야(구세주)이며 그의 백성을 구원할 자로서, 영적 의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참조, 마 1:21).

(2) 제사장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그의 제사직을 위임받았다.

(3)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대신 속죄의 피를 흘린 우리의 구세주로서 보내심을 받은 메시야이다. 그는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았으나 성령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신 능력의 주님이셨다.

(4) 지금도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믿는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중보적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다(참조, 롬 8:34; 히 8:25).

15. Q **위임식을 위한 세 가지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14-30절)

A (1) 먼저 속죄제를 드려 죄의 더러움에서 청결케 되는 의식을 하였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 위임받는 일에 있어 죄의 오염으로부터 청결케 되는 의식은 가장 중요한 제사였다.

(2) 다음으로 드리는 번제는 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 위임받는 자가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가 있다. 먼저 죄의 용서를 받는 제사를 드리고 자신을 헌신하는 자세로 번제를 드려 완전한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위임제 수양을 화목 제물로 드렸다. 이것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감사 제사이다. 아론의 제사직의 위임은 백성이 선택한 것도 아니며 모세가 추천한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되어 제사장과 그의 가족으로 임명받은 것이다.

(4) 오늘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족속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다(벧전 2:9).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복음을 전하며 의로운 생활을 힘쓰며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일이다.

16. Q **'오른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피를 바르고'라는 말은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가?** (23절)

A (1) 모든 제사장들은 모두 피의 능력 아래 있어야 한다.

(2) 우선 '오른 귓부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해야 함을 상징한다.

(3) 그리고 '오른손 엄지가락'은 올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섬겨야 함을 상징한다.

(4) 또한 '오른발 엄지가락'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령 속에서 행해야 하고 불평하지 않고 성소의 뜰에 서야 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5)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다.

17. Q **위임식의 화목 제물 중 요제로 드려진 가슴 부분은 누구의 몫이 되었는가?** (29절)

A (1)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아직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드린 제물이므로 이 경우는 제사를 주관하는 모세의 몫이 되었다.

(2) 그러나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직을 수행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제사장의 몫이 되었다.

18. Q **위임식은 며칠 동안 거행되었는가?** (33절)

A (1) 7일 동안 매일 반복되었다.

(2) 즉 회생 제물의 피와 기름을 단에 발라 거룩하게 하는 일과 매일 수송아지와 수양 들을 드리는 일을 계속 반복하였다.

(3) 이러한 7일간의 반복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제사장 성별 의식의 완전성을 나타낸다.

19. Q **위임받은 제사장과 오늘날의 신앙 지도자들을 비교하라.**

A (1) 사람이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것은 어떤 권위나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다. 위임제의 근본 의미는 여호와께 제사 드릴 수 있는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맡는 것에 있다.

(2) 오늘날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이 위임제의 성격이 적용된다. 그들은 교회나 종교

단체에서 우두머리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을 맡은 자로서 책임의 중함을 알고 성실하게 봉사자의 자세로 일해야 한다.

(3) 봉사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벧전 4:11).

화보자료

제물(祭物)로 바쳐진 소와 양. 아래의 그림은 18세기 네덜란드의 성경 학자 얀 브라우니우스가 1701년에 출판한 책에 그려진 소에게 안수하는 대제사장(왼쪽), 제사장과 양(오른쪽)의 모습이다.

제사장이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14절) 그 행위가 하나님께 열납되어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가 속죄되는데 그 후 제사장들은 제물을 잡아 그 피는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리고 몸은 각을 뜬 후 번제로 드렸다.

제 9 장 위임받은 후 드린 아론의 첫 제사

단락구분 *1-7*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위임받은 후 드려야 할 첫 제사의 명령 / *8-14* 대제사장 아론 자신을 위한 제사 / *15-21* 온 백성을 위한 제사 / *22-24* 모세와 아론의 축복과 여호와의 불

1 제 팔 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2 아론에게 이르되 흠 없는 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흠 없는 수양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고
3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소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송아지와 어린 양의 일 년 되고 흠 없는 것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고
4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양을 취하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5 그들이 모세의 명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 오고 온 회중이 나아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6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7 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하되 무릇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8 이에 아론이 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9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받들어 주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단 밑에 쏟고
10 그 속죄제 희생의 기름과 콩팥과 간 꺼풀을 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고
11 그 고기와 가죽은 진 밖에서 불사르니라
12 아론이 또 번제 희생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 오니 그가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13 그들이 또 번제의 희생 곧 그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 오매 그가 단 위에 불사르고
14 또 내장과 정갱이는 씻어서 단 윗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라
15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취하여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16 또 번제 희생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17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18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 희생의 수소와 수양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 오니 그가 단 주위에 뿌리고
19 그들이 또 수소와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20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단 위에 불사르고
21 가슴들과 우편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의 명한 것과 같았더라
22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필하고 내려오니라
23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24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

1. Q 본장의 개요 및 특징을 말하라.
   A (1) 7일 동안의 위임식이 끝나고(8장) 제 8일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의 제사직을 위한 첫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2) 즉 위임식을 마친 아론은 첫 제사로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8-14절) 다음에는 백성을 위한 속죄제,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3) 아론의 첫 제사의 의의는 이제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그가 신적인 권위를 갖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첫 출발을 의미한다.

2. Q '제 팔 일에'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1절)

A (1)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기간은 7일 동안이었다. 그러므로 여기 제 8일은 제사장 위임식의 첫날로부터 시작하여 위임식이 끝난 다음날을 가리킨다.

(2) 제 8일은 아론이 그의 제사직을 수행하는 첫날이다.

3. Q 모세는 위임식 다음날 누구 누구를 불렀는가? (1절)

A (1)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다.

(2) 이것은 위임식을 마친 후 첫 제사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제사장과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먼저 정결해야 함을 나타낸다.

(3) 이 제사에서 제사장은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렸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속죄, 헌신, 유지 그리고 친교이다.

(4) 이러한 것은 교회의 사명 곧 전도, 교육, 예배, 교제, 봉사와 그 성격상 부합된다.

4. Q 모세가 제사장의 첫 직무에 들어가는 날 장로들을 부른 이유는 무엇인가? (1절)

A (1) 장로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자켄〉이다. 이 말은 '턱수염', '턱'을 가리키는 말인 히브리어 〈자칸〉에서 유래했다.

(2) 본래 구약 시대의 장로, 즉 〈자켄〉은 노인, 늙은이, 나이든 자, 지도자 등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3) 모세가 아론의 첫 제사직의 직무에 장로들을 부른 것은 그들이 백성을 대표하여 예물을 가져 오는 등의 지도자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아론의 제사직에 대한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5. Q 제사장의 첫 직무에 들어가는 날 아론은 자신을 위해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 (3절)

A (1) 흠 없는 수송아지를 취하여 속죄제를 드렸다.

(2) 흠 없는 수양을 번제로 드렸다.

(3) 제사장의 위임식 7일 동안에도 매일 속죄제와 번제가 드려졌다. 그러나 제사장의 직무에 임하는 날 또 같은 제사를 반복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제사의 불완전성을 의미한다.

(4)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희생 제사를 드리심으로 모든 의식적(儀式的)인 제도를 완성하셨다.

6. Q 백성을 위해서는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 (3, 4절)

A (1) 수염소를 속죄제로 드렸다.

(2) 송아지와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다.

(3) 수소와 수양으로 화목제를 드렸다.

(4)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 와 소제로 드렸다.

7. Q 제사장의 첫 직무에 임하는 날 온 회중이 여호와 앞에 선 이유는 무엇인가? (5-7절)

A (1) '온 회중'이란 말은 여기서 히브리어로 〈콜 하에나〉인데 이 말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무리를 이룬 상태를 의미한다.

(2) 그러나 여기서 '온 회중'이 모였다라는 의미는 200만 이상이나 되는 백성 전체가 회막에 모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백성들을 대표한 장로들과 일반 지도자들이 다 모인 상태를 가리킨다.

(3) 이렇게 백성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유는 그들의 제사장직은 곧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수행되는 직무이기 때문이다.

8. Q 아론이 첫 직무에 임하는 날 자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린 이유는 무엇인가? (7절)

A (1) 아론 자신도 죄인임을 깨달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해서 우선 자신

을 위해 제사를 드렸다.

(2) 이것은 먼저 자기 자신의 신앙과 생활에 죄악의 모습이 없는지 살핀 후에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 수고해야 함을 말한다(참조, 행20:28;딤전4:16).

(3)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부정한 자임을 인식하여 자신의 정결을 위해 우선 힘써야 한다.

9. Q '무릇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는 모세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7절)

A (1) 모세의 명령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였다. 백성의 영도자인 모세는 자신의 의지나 방법대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며 그의 주권 아래서 움직였다.

(2)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가감(加減)하지 않았다. 명령에 대하여 '적절하다'거나 '이해가 가는 명령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지 않았다. 또한 조상의 유전이나 장로들의 교훈이나 박사들의 의견에 하나님의 명령을 비추어 보지도 않았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를 지시할 뿐이었다.

(3) 모세에게는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말씀에 순종할 의무만 있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그를 경외하며 순종하는 배운 사람의 심정 속에는 유전이나 전통 등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4) 하나님의 말씀에 무서울 만큼 집착한 결과는 오직 영광, 영광이었다. 여호와께 영광이 되는 성도의 삶은 순종의 아름다움과 경건함이 아울러 나타나는 삶이며 또한 이 삶은 여호와께 복된 삶이다.

(5) 모세의 이와 같은 태도는 한마디로 계시 의존 인생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지식 중에서 절대 불변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결국은 절대 불변하다고 믿는, 즉 '증명할 수 없는' 어떤 개념으로부터 그 다음의 것들을 추론해 낼 뿐이다.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은 어떤 종류이든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계시 의존 신앙의 종교인 것이다.

10. Q 아론이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그 순서가 주는 의미를 말하라(8-21절).

A (1) 이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순서로 볼 수 있다. 첫번째로 드리는 속죄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죄책을 제거하여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2) 두번째로 드리는 번제는 속죄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헌신을 나타낸다.

(3) 마지막으로 드리는 화목제는 하나님과 백성의 진정한 교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에 감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11. Q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8절)

A (1) 아론은 그가 제사장으로서의 첫 직무에 임하기 전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다.

(2)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제사였다.

(3) 오늘날에도 비록 하나님의 자비로 죄의 용서를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언제나 영혼의 회개와 속죄가 선행(先行)되어야 한다.

12. Q 번제의 희생 중에 '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13절)

A (1) 여기서 '각'(脚)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네타헤하〉인데 '여러 조각'이란 뜻이다. 이 말은 나누다, 여러 조각으로 자르다 등의 뜻이 있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2) 번제 희생을 드릴 때에는 이렇게 고기를 전부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 불살랐다.

(3) 이렇게 각을 뜨는 것은 몸 전체를 여호와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다.

13. Q 아론의 첫 직무에 임하는 제사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23절)

Ⓐ (1)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2) 이것은 아론의 제사장직을 만족하게 여기시고 앞으로도 그가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의미가 있다.

(3)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백성들은 기쁨과 감사와 두려움이 섞인 환호를 지르며 일제히 엎드렸다. 이것은 성도의 진정한 예배 태도를 말해 준다.

(4) 즉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야 하며 동시에 두려움으로 그 앞에서 경배해야 한다.

14. Ⓠ 불이 여호와로부터 나오고 온 백성이 소리 지르며 엎드리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23,24절)

Ⓐ (1) 제사장과 제물이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며 백성들이 기뻐하는 이러한 모습은 장차 올 좋은 일의 지극히 아름다운 그림자이다. 이것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구속의 능력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인 것이다.

(2)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통하여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며 그의 백성들은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치있는 존재가 되었다.

15. Ⓠ 기독교와 불교를 간략히 대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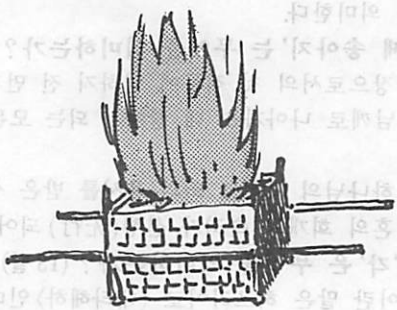
Ⓐ (1)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로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믿는 주체인 사람 사이를 엄격히 구분한다. 이러한 면에서 기독교를 신인현격교(神人懸隔教)라고 한다. 그러나 불교는 신과 인간의 구별이 없으며 인간은 언제든지 신(부처)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점에서 불교를 신인동격교(神人同格教)라고 부른다.

(2) 기독교는 인간의 절대 타락(전적 부패)을 말하며 이러한 상태에서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인간 뿐만 아니라 삼라 만상(森羅萬象)이 모두 부처(신)의 성향(性向)을 가진 것으로 본다(一切衆生悉有佛性).

(3)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인간 스스로의 수양이나 노력으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成佛).

(4) 즉 기독교가 타력(他力) 종교라면 불교는 자력(自力) 종교이다.

본장의 요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24절).

제 10 장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단락구분 *1-3* 자의(恣意)로 분향하던 나답과 아비후가 불타 죽다 / *4-7* 장례식에 관한 명령 / *8-11* 성막을 출입하는 제사장들의 음주를 금하다 / *12-20* 제사장들이 제물을 먹는 법

1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3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4 모세가 아론의 아자비 웃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아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 가라 하매
5 그들이 나아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웃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 내니
6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7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8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9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10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11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12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 중 소제의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단 곁에서 먹되
13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네 응식과 네 아들의 응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14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희생 중에서 네 응식과 네 자손의 응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15 그 든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응식이니라
16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가로되
17 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뇨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18 그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할 것이니라
19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더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기셨으리요
20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

1. **Q 본장의 중심 화제(話題)를 말하라.**

A (1) 본장에는 나답과 아비후 두 제사장의 죽음이 언급되어 있다.

(2) 즉 제사장의 위임식이 끝나고 제사장으로서의 첫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나답과 아비후가 자의(自意)로 분향하던 중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죽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3)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불성실과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의 불경건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 행위인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4) 결국 하나님께서는 두 제사장의 불성실함으로 파괴된 당신의 거룩성을 그들의 죽음을

통하여 회복하셨다.

(5) 율법에 대한 태만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백한 거부이므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불러 일으킨다. 그들이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조차도 여기서는 아무런 특권이 될 수 없었다.

2. Q **아론의 아들은 누구이며 그들이 받은 축복은 무엇인가?** (1절)

A (1)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이다.

(2)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 엘리세바와 결혼하여 그들을 낳았다(출6:23).

(3)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는 특별한 축복을 받았으며 그 후손들만이 대대로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4)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직을 잘못 감당하여 여호와의 불로 죽임을 당하였다.

(5) 그러므로 세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아론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겸 레위 지파의 어른이 되었다(출6:25).

(6) 성도들도 이미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왜냐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미물(微物)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다(참조, 롬15:15, 16).

3. Q **나답과 아비후가 가져간 향로는 무엇인가?** (1절)

A (1) 여기서 '향로'(censer)로 번역되어 있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흐타〉이다.

(2) 이 말은 순금으로 만든 '불 담는 그릇'이라는 뜻인데 출25:38에는 '불똥 그릇'으로, 출27:3 및 38:3에는 번제단에서 나오는 재를 담는 '통'으로 각각 번역되어 있다.

(3) 그러므로 이 향로는 성막 안에 설치된 분향단에서 아침과 저녁마다 향을 사르기 위해 번제단의 불을 담아 옮기던 그릇이었다.

4. Q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는 무엇인가?** (1절)

A (1)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한 죄였다.

(2) 여기서 말하는 '다른 불'은 제단에서 제물을 불사르는 불이 아닌 다른 불, 즉 자신들 스스로 만든 불이거나 고기를 삶을 때 피우는 불을 가리킨다.

(3) 본래 향단에 피울 때는 번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 향단에 옮겨서 분향하였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들 멋대로 이 규정을 어기고 제사장의 직위를 남용하여 규정된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4) 결국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5) 교회에서 주를 위해 봉사할 때도 나의 경험과 철학으로 하기보다는 성경의 교훈을 따라 봉사해야 한다. 즉 나의 원대로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한다(참조, 창26:5; 신30:8; 삼상15:22).

5. Q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죽었는가?** (2절)

A (1)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다.

(2) 불이 그들을 삼켰다는 말은 그들을 완전히 태워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죽임을 당한 것을 나타낸다.

(3) 즉 그들은 옷과 몸이 타지 않은 가운데 죽임을 당했다(5절).

(4)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아론의 가문에 대단히 슬픈 일이었으나 다른 제사장들에게는 큰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6. Q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급사(急死)한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의미를 주는가?** (1, 2절)

A (1) 나답과 아비후는 분향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들 마음대로 경솔하게 실행하였다. 그들의 경솔함은 여호와께 대한 신앙의 순수성을 타락시키는 죄악이었다.

(2) 왜냐하면 그들이 행하였던 제사의 방법은 여호와께서 지시한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은 그가 지시하신 방법, 즉 계시(啓示)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만 가능하다.

(3) 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준다.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거룩하게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외적인 형식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순수한 예배를 기뻐하신다(요4:24).

(4) 그들의 죽음은 그 후의 제사장들에게 유익한 본을 보여 주었다.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성결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아론은 두 아들이 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대제사장 직무를 더욱 잘 수행하였다.

(6) 우리의 주변에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하다가 순간적인 실수나 세상적인 유혹에 이끌려 범죄함으로 무서운 징벌을 받는 자들이 있다.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성도들은 주 안에서 더욱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참조, 느9:8; 단6:4; 마25:21; 고전4:2).

7. Q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하여 아론은 어떤 태도를 나타냈는가? (3절)

A (1) 두 아들을 잃은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였다.

(2) 이것은 아론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인정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참된 신앙의 자세를 보인 증거다. 그는 결코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3) 성도들의 생활 중에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시련과 고난이 임할 때가 있다. 그러나 성도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 시련 속에 내포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4) 성도에게 임하는 시련과 고난은 인내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험에 대한 인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더욱 확고히 다짐하게 한다(약1:2-4).

(5) 그러므로 감정이 과격하게 흥분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주님의 능(能)하신 손길 아래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지향해야 하는 신앙이며 주님의 권위를 높이며 인정하는 진실된 삶이다(참조, 시39:9).

8. Q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진 밖으로 옮겨 간 자들은 누구인가? (4절)

A (1) 모세가 아론의 삼촌(작은 아버지) 웃시엘의 아들들인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회막 성소 앞에 있는 두 시체를 옮겨 가도록 명하였다.

(2) 죽임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의 복장을 한 그대로 진 밖으로 옮겨 장사되었다.

(3) 시체와 관련된 정결 율법에 의하면, 백성들은 골육 지친, 곧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 그리고 처녀로서 아직 남편이 없는 자매를 위해서는 몸을 더럽혀도 무방했다(21: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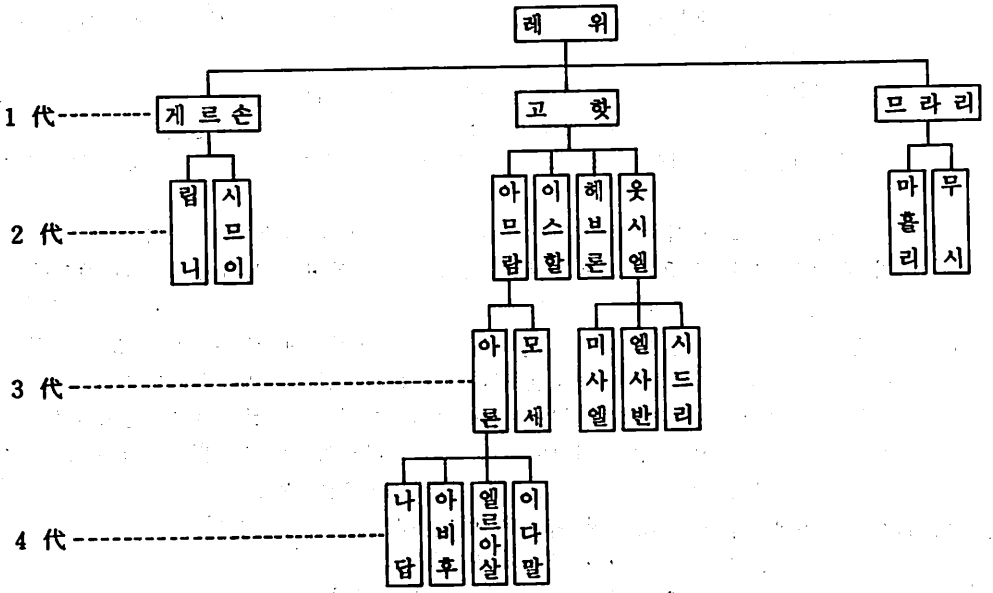
(4) 그러나 하나님과 백성 앞에 중책을 맡은 제사장된 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막론하고 죽은 시체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다(21:11).

(5)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에도 아론과 그의 형제인 엘르아살, 이다말이 손을 대지 않았다.

9. Q 아론과 웃시엘의 관계 및 그 아들들의 관계를 말하라(4절).

A (1) 아론은 죽은 두 아들(나답과 아비후)의 장례를 위하여 자신의 사촌 형제인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명하였다. 결국 죽은 나답과 아비후는 당숙(아버지의 사촌 형제)에 의해 장사되었다.

(2) 이들의 관계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0. Q 모세가 아론과 그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부른 이유는 무엇인가? (6절)

A (1)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신 자세와 그들의 임무를 다시 새롭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제사장으로 위임되었지만 아직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2) 두 제사장이 일시에 죽임을 당한 일로 그들은 심히 당황하였으며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들을 불러 안심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부탁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3) 이러한 사실은 어려움을 잘 대처한 모세의 원숙한 신앙과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4) 이와 같이 교회의 지도자는 슬픈 자를 위로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바른 길을 제시하여야 한다(참조, 엡 4:11, 12; 딛 1:5-9).

11. Q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6절)

A (1)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행위는 슬픔의 표현으로서(삼하 15:30), 제사장에게는 금지된 행위였다(21:10).

(2) 여기서 제사장이 머리를 푼다는 것은 제사직의 중단을 의미한다. 제사장은 어떠한 경우라도 제사장의 위치에서 떠날 수 없다.

(3) 만약 슬픔을 나타내기 위하여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행위를 한다면 결국 제사장직의 거부와 중단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한다.

(4)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은 가정 문제나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 때문에 그의 공적인 제사직을 결코 멈출 수 없다.

12. Q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6절)

A (1) 제사장의 범죄는 백성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치게 되어 있다(4:3).

(2)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제사장이 슬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3) 이러한 불만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화가 미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미치게 된다.

(4) 이와 같이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므로 제사장의 범죄는 곧 백성의 범죄로 간주되었다.

(5) 성도들의 원망과 불평은 불신자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방해 요소가 되며, 그 불평의 화살은 결국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되므로 성도로서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이다(참조, 빌2:14; 약5:9).

13. Q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금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8-11절)

A (1)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2) 즉 제사장들이 회막에서 봉사의 직무를 수행할 때는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다.

(3) 특히 이렇게 음주를 금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철저히 '구별' 해야 됨을 의미한다.

(4) '거룩한 자' 와 '성도' 란 말은 '구별된 자' 를 의미한다. 즉 하나님께 구별된 자는 모두 구원받은 백성으로 신약에서는 '성도' 로 불리어진다(참조, 마27:52; 행9:41).

14. Q '속된 것' 의 의미는 무엇인가? (10절)

A (1) 이 말은 본래 히브리어로 〈홀〉인데 '상처받다', '파괴되다' 등의 뜻이 있는 〈하랄〉에서 유래되었다.

(2) 그러므로 '속된 것' 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파괴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상처를 입히는(어긋나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3) 결국 '속된 것' 은 거룩한 것의 반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15. Q '부정한' 의 의미를 말하라(10절).

A (1) 이 말은 더럽히다, 모독하다 등의 뜻이 있는 히브리어 〈타메〉에서 유래하였다.

(2) 하나님의 거룩성에 합당치 못한 것이 '속된 것' 이듯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한 것은 모두 '부정한 것' 이 된다.

(3) 그러므로 성도는 행위를 삼가 조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참조, 출20:7; 시 119:9).

16. Q 제사장의 몫으로 허락되는 제물은 무엇인가? (10-18절)

A (1) 소제의 남은 부분은 제사장이 먹었다.

(2) 화목 제물 가운데 거제와 요제로 드린 뒷다리와 가슴 부분은 제사장의 웅식이 되었다.

(3) 속죄 제물 가운데 그 속죄 희생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은 제물은 제사장의 웅식이 되었다.

17. Q '웅식' 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13절)

A (1) 웅식(應食)은 제사장의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들의 몫을 가리킨다(민18:11, 19).

(2)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일정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의 제물 가운데 일부를 그들의 몫으로 허락하신 것이다.

(3)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사역자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제공하신다.

(4)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히 공급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로 그들의 양식을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한다(참조, 출13:21; 16:35; 마6:25, 26).

18. Q 모세가 아론에게 노(怒)한 이유는 무엇인가? (16절)

A (1) 아론이 속죄제로 드린 염소 고기를 먹지 않고 불살라 버렸기 때문이다.

(2) 즉 성소 안으로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은 염소의 제물은 먹을 수 있었으나 아론이 먹지 않고 불살라 버린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범죄였다.

19. Q 모세가 아론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20절)

A (1) 모세는 희생 제물을 먹지 않은 아론을 단지 규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꾸짖었으나 아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사장으로서 바른 판단을 하고 먹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였다.

(2) 이러한 아론의 판단은 모세에게도 수긍되는 일이었으며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동정을 받을 만한 일이었다.

(3)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동정(긍휼)과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4) 결국 아론은 두 아들을 잃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5) 성도는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신앙의 성숙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참조, 약 5:10).

20. Q 본장이 주의 사역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A (1) 말씀에 순종해야 하되 특히 행위를 통한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한다(참조, 약 3:26). 말씀을 선포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과 제도에 의해서만 사역해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인위적인 방법은 절대로 배척되어야 한다(1절).

(2) 사역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우선해야 한다. 세상의 형통이나 인간적인 일에 얽매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친다면 주의 종으로서 합당치 않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적인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포기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6절; 눅 9:59-62; 14:26).

(3)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술을 마시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것은 오늘날의 사역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명령이다. 이들에게 금주(禁酒)의 명령을 내린 이유는 신령한 일과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가르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9, 10절). 오늘날의 영적 지도자도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이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신다.

(4) 제사장이나 주님의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할 필요가 있다. 술이 성도의 품위를 해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서 술을 멀리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술을 마시는 것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유치한 질문을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 때문이다(참조, 수 4:24; 느 9:5; 시 72:19; 단 2:20).

본장의 요절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9절).

제 11 장 정결(淨潔)한 짐승과 부정(不淨)한 짐승

단락구분 *1-8* 짐승에 있어서 / *9-12* 물고기에 있어서 / *13-19* 새에 있어서 / *20-24* 날개 있는 곤충의 경우 / *25-28* 땅에 기는 것들에 대해서 / *29-43* 부정한 짐승의 시체를 만진 자의 정결법 / *44-47* 정결법의 원칙

1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3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4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5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6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7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8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9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10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11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12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13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응과
14 매와 매 종류와
15 까마귀 종류와
16 타조와 다호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17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18 따오기와 당아와 올응과
19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니라
20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21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22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베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팟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23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 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24 이런 유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25 무릇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26 무릇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네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27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네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28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네게 부정하니라
29 땅에 기는 바 기는 것 중에 네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쪽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30 합개와 육지 악어와 수궁과 사막 도마뱀과 칠면석척이라
31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네게 부정하니 무릇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32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목기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부대에든지 무론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33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34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같은 그릇의 마실 만한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35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 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질탕관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36 샘물이나 방축물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다닥치는 것만 부정하여질 것이요
37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질지라도 그것이 정하거니와
38 종자에 물을 더할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39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40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41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42 곧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증함이니라
43 너희는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증하게 되게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말라
44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46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 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47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

1. **Q 본장과 관련하여 15장까지의 특징을 말하라.**
   A (1) 지금까지(1-10장)는 제사 제도와 제사직을 통하여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길과 친교의 삶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2) 그러나 본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친교에 있어서 방해가 되거나 친교를 저해(沮害)하는 요소 등을 언급하고 있다.
   (3) 특히 정(淨)한 것과 부정(不淨)한 것에 관한 율법이 언급되는데 동물, 식사, 출산, 나병성적 유출물, 속죄일 등의 항목에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4) 만약 부정을 입은 것으로 판정되면 정결케 하는 의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정결함을 받아야 한다.
   (5) 이것은 죄의 오염으로부터 오는 부패와 더러움에 대하여 온 국민이 완전하게 성결을 유지해야 함을 보여 준다.
   (6) 즉 외적인 정결 의식을 통하여 내적인 영적 성결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7) 오늘날 성도들도 내적인 영적 성결 뿐 아니라 외적인 경건의 훈련에도 힘써서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44절).
2. **Q 본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의 특징은 무엇인가? (1-47절)**
   A (1) 본장은 뒤따르는 12-15장의 정결법에 대한 서두(서론적 도입)로 볼 수 있다.
   (2) 즉 본장에 나타나 있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은 일상 생활 중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에서의 정결에 관한 정·부정의 규례이며 이것을 통하여 모든 다른 분야의 정·부정의 규례가 언급되었다.
   (3)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은 노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창 7:2).
   (4) 본래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합당한 짐승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었다(Calvin) 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왔다.
   (5) 그러나 본장의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에 대해서는 그 구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6) 다만 이와 같은 구별은 종교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 무난하다. 즉 '구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참조, 수 7:13; 대하 29:5; 눅 1:75).

3. Q 짐승 중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만이 정결하다고 간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8절)
   A (1) 이러한 짐승은 부정한 것으로 구분된 짐승과 비교해 볼 때 주로 풀을 먹고 사는 것으로서 매우 깨끗하고 평화스러운 동물들이었다.
   (2) 또한 이러한 짐승들은 온유하며 정결한 동물들이었다.
   (3) 굽이 갈라진 것은 성도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상징하며, 이러한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내적 성결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4. Q 육지 짐승 중 먹을 만한 짐승(생물)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가? (2, 3절)
   A (1) 첫째,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둘째는 새김질을 하는 짐승이어야 한다.
   (2) 이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조건만 부족해도 먹을 수 없다.
   (3) 이러한 조건을 갖춘 짐승은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등이 있다(신 14:4, 5).
   (4)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고기를 먹어도 좋다고 최초로 허락하셨다(창 9:2).
   (5) 그 이전에는 땅의 소산물, 즉 채소와 곡식을 주식으로 했다.
5. Q 새김질을 하는 약대, 사반, 토끼는 왜 부정한 짐승으로 구분되었는가? (4-6절)
   A (1)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새김질을 하더라도 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면 부정한 짐승으로 구분되어 먹을 수 없었다.
   (3) 여기서 우리는 내가 원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절제해야 됨을 깨닫게 된다.
6. Q '사반'은 어떤 짐승인가? (5절)
   A (1) 사반의 히브리어는 〈샤판〉인데 이 말이 시 104:18에는 '너구리'로 번역되어 있다.
   (2) 이 짐승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떼를 지어 사는 초식 동물로서 토끼와 비슷하다는 견해가 가장 유력하다.
   (3) 성경에는 이 동물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먹을 수 없는 짐승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아랍인들은 이 짐승을 잡아먹는다.
7. Q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을 정하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뜻은 무엇인가? (8절)
   A (1) 정결한 짐승도, 부정한 짐승도 하나님이 정하셨다.
   (2)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성과 거룩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3)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구별시키시 위해 그들이 먹는 짐승까지도 정하셨기 때문이다.
   (4) 다시 말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과 당신의 택한 백성을 분리하기 위해서였다.
   (5) 즉 이것은 성도들에게 성결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였다(참조, 행 10:10-16; 히 9:9,10).
8. Q 물 속에 사는 것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9-12절)
   A (1) 지느러미와 비늘의 유무(有無)에 의해서이다.
   (2) 비늘이 없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뱀을 상징하는 뱀장어 종류와 미꾸라지 등이다. 이것들은 뱀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3) 또한 갑각류(甲殼類), 가재류, 연체 동물(軟體動物) 등도 물 속에 사는 동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기에 가증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4) 비록 가증한 물고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을 알려 주지는 않았으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를 가증한 것으로 정하여 먹지 말라고 하셨다.
9. Q '가증한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0절)
   A (1) 여기서 '가증한 것'의 히브리어는 〈쉐케츠〉인데 '더럽히다', '물들다', '혐오하다' 등의 뜻이 있는 말 〈샤카츠〉에서 나왔다.
   (2) 그러므로 '가증한 것'은 죄에 물들게 하는 것으로서 대단히 싫은 것을 의미한다.

10. Q 주검(시체)을 가증히 여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11절)

A (1) 일반적으로 히브리인들은 죽음이나 죽음에 관계된 모든 것을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였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2) 따라서 부정한 생물은 그 죽은 시체까지도 더럽게 여겼으며 그것을 접촉함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시킨 것이다.

11. Q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먹을 수 있으나 그것이 '없는' 물고기는 먹을 수 없다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11절)

A (1) 지느러미와 비늘의 유무(有無)에 따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했는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일반적으로 정결하며 그 모습이 험상스럽지 않다. 이것은 성도들이 세속과 구별되는 성결의 삶과 온유한 심령을 소유해야 함을 상징한다.

(2) 또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주로 물에 떠서 사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위에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을 의미한다(골 3:1,2).

(3) 한편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들은 그 모습이 험상스러울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물 밑에서 기어다니며 공격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마치 저주받아 땅으로 기어다니는 뱀의 모습과 흡사하며 또한 비열하고 간사한 뱀의 이미지를 연상케 한다(창 3:14). 이러한 자들에게서는 하나님 나라의 의(義)를 위하여 양보하며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만이 나타날 뿐이다.

(4) 양심을 팔고 신앙을 포기하며 비굴하게 살아가는 자들도 모두 여기에 속하는 무리이다(참조, 행 23:1; 롬 13:5; 딤전 1:5; 히 9:14).

12. Q 새 종류 가운데 가증하여 먹을 수 없는 새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13-19절)

A (1) 맹금 종류이다. 매와 솔개, 독수리 종류는 잔인하며 야만스럽고 피를 흡리게 하거나 약탈을 좋아한다.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남을 핍박하고 억누르며 환난을 일으키는 자들의 습성과 흡사하다.

(2) 고독하고 슬픈 새들이다. 올빼미, 당아새, 까마귀 등은 어둡고 한적한 곳에 산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로 더불어 기쁘고 즐거운 생활에 힘쓰는 것은 구속받은 백성으로서의 본분이다. 고독하고 슬퍼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다. 죄를 슬퍼하고 죄의 용서를 위해 애통하는 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지만 그 외에는 감사와 찬양의 삶이 성도들에게 합당한 삶이다.

(3) 불결하고 더러운 것을 먹고 사는 새들이다. 뱀을 먹고 사는 새와 벌레를 먹고 사는 새 등은 하나님의 거룩성에 특히 위배되었다.

(4) 다른 나머지 새들은 이방인이나 당시 애굽의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 사용된 길조(吉鳥)나 흉조(凶鳥)였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우상 숭배자들의 관습으로부터 멀리하여 하나님의 거룩에 그들이 합당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신 것이다(참조, 엡 4:1; 빌 1:27; 살후 1:11; 딤후 2:21).

13. Q 어응과 다호마스는 어떤 종류의 새인가? (13, 16절)

A (1) '어응'(魚鷹)은 바다 독수리의 일종으로 부리 밑에 깃털이 많은 새를 가리킨다.

(2) '다호마스'는 원어 〈타흐마스〉를 우리말로 음역한 것이다.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KJV, RSV, Living Bible) '밤매'(nighthawk)로 번역되어 있다.

(3) 이와 같은 짐승은 잔인할 뿐만 아니라 시체, 돌, 유리까지도 구별 없이 마구 삼킨다.

14. Q 노자와 당아와 올응과 대승에 대하여 설명하라(17-19절).

A (1) 노자'는 히브리어 〈솨라크〉인데 가마우지(cormorant)를 가리킨다. 이 새는 부리가 길며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다.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며 헤엄을 잘 치며 다이빙도 잘하는 새이다.

(2) '당아'(塘鵝)는 황폐한 곳이나(사34:11; 습2:14) 광야에서 사는 새(시102:6)인데 일반적으로 펠리칸 (peilcan) 을 의미한다.

(3) '올응'(兀鷹)은 독수리의 일종이다.

(4) '대승'(戴勝)은 일반적으로 오디새(RSV, NIV에는 hoopoe)를 말한다. 영어 성경 KJV에는 댕기물떼새(lapwing)로 번역되어 있다. 이 새는 벌레나 곤충들을 찾아 늪지대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몸에서 심한 냄새가 난다. 이 새는 사람의 똥이나 더러운 곳에 둥지를 잘 만드는 새로 알려져 있다.

(5) 이러한 짐승은 모두 가증한 것으로 규정되었다.

15. Q 곤충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 규정한 종류를 말하라(20-23절).

A (1) 곤충 가운데 ① 날개가 있고 ② 발은 네 개이며 ③ 네 개의 발 이외에 두 개의 뛰는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뛰어다닐 수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었다.

(2) 즉 메뚜기 종류와 베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

(3) 그러나 곤충 중에 날개는 있으나 기어 다니는 곤충은 먹을 수 없는 가증한 것으로 규정되었다.

16. Q 부정한 것으로 규정된 모든 것의 주검에 접촉된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24-28절)

A (1)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으로 규정한 모든 것의 주검(시체)에 접촉된 자는 부정을 입게 되어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였다.

(2) 이렇게 부정을 입은 자는 옷을 빨고 정결케 되는 의식을 해야 했다.

(3) 성도들은 외적인 정결 뿐만 아니라 더욱 내적 성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17. Q 땅에 기는 것으로서 부정한 종류는 무엇인가? (29-38절)

A (1) 쪽제비, 쥐, 도마뱀 종류, 합개, 육지 악어, 수궁, 사막 도마뱀, 칠면석척 등이다.

(2) 이러한 종류의 생물은 부정하며 이것들의 주검(시체)에 접촉된 목기(木器), 의복, 가죽, 부대(負袋) 그릇 종류 등은 부정하다.

(3) 만약 음식물이나 물건이 담긴 그릇에 이러한 종류의 주검(시체)이 떨어지면 음식물과 그릇이 모두 부정하게 된다. 이 경우 그릇은 깨뜨려야 했다.

(4) 그러나 이러한 기는 생물의 시체가 샘물이나 방축물 웅덩이에 떨어지면 그 물은 부정을 입지 않았다.

(5) 씨앗(종자)에 그 시체가 떨어질 경우에는 부정을 입지 않으나 그 씨앗에 물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해졌다.

18. Q 먹을 수 있는 생물의 시체에 접촉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39, 40절)

A (1) 비록 먹을 수 있는 종류의 생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죽은 경우에는 가증한 것이 되어 그 시체에 접촉된 자는 부정하게 되었다.

(2) 이 시체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여 옷을 빨고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해야 했다.

19. Q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하신 하나님의 근본 의도는 무엇인가? (44, 45절)

A (1)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었음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2) 즉 이러한 의식적(儀式的)인 구별을 통하여 그들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냈다.

(3) 오늘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한다(참조, 롬6:16; 히11:8; 벧전1:14).

20. Q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에서 '구별하다'는 의미와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를 말하라(44절).

Ⓐ (1) 본래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하다'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즉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 자체가 '거룩'이다.

(2) 그러므로 성도는 구별된 존재로서 거룩한 자들이며 이렇게 구별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3) 결국 성도들이 구별되게 사는 것은 곧 거룩하게 사는 것을 나타낸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적인 유행과 풍습 등 그 조류(潮流)에 아무런 평가 없이 편승할 수 없다(참조, 겔 20:30; 엡 2:2; 벧후 1:4).

21. Ⓠ 구약에서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된 부정한 짐승은 오늘날에도 먹을 수 없는가?

Ⓐ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수 있는 짐승을 구별해 주신 것은 그들이 외적인 정결을 통하여 내적인 영적 성결에 이르도록 교훈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2) 특히 외적인 성결을 위하여 먹을 수 없는 짐승을 구별하고 그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이런 부정한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법칙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이것들은 하나님의 거룩성에 비추어 볼 때 합당치 않는 것들이었다.

(3)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이 완성된 이후에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 어떤 고기든지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즉 이제는 외적 상징을 통하여 영적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 직접 만남으로 이런 외적 상징에 의한 구분은 무의미하여졌다.

(4)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딤전 4:4) 우리는 아무것도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할 수 없다(참조, 행 10; 28). 즉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속된 것은 없다.

(5)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면 지금도 그러한 부정한 짐승을 먹는 일은 삼가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관없이 신앙인의 경건과 덕(德)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6)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있으나 우리에게 모든 일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또한 모든 것이 가(可)하나 모든 것이 다 덕(德)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7)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먹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억제할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기 때문이다(고전 10:23-33).

22. Ⓠ 레 11장과 행 10:11-16을 비교할 때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1) 베드로는 유대교의 울타리 안에 자기의 신앙을 가두어 놓고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먹을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은 율법의 울타리를 넘어 오히려 그 율법을 덮어 버렸다. 즉 은혜 아래서 모든 식물은 선한 것이 되었고 모두 깨끗한 것이 되었다. 우리는 이 은혜에 한없는 감사를 드리자.

(2)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가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한계를 넘어 전세계의 모든 이방인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임한다는 놀라운 비전(vision)을 보여 준다. 속되거나 깨끗한 짐승을 막론하고 모두 선한 것이 된 것처럼 복음 전파의 대상에도 차별이 없게 되었다.

(3)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善)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게' 된 이유는 은혜 시대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졌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딤전 4:4, 5).

23. Ⓠ 특히 레 11-15장에 언급된 정결의 법에서 볼 수 있듯이 외적인 정결을 통해 내적 정결을 교훈하는 구약의 방식은 현대의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1) 인간에게는 예절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어떤 지방에서는 존경심을 표시하기 위해 일어서는 것이 예의이지만 다른 지방에서는 땅에 엎드리는 것이 존경심을 표시하는 예절이다. 그러나 이 양자간에 존경심의 표시라는 근본 목적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즉 인간은 이처럼 어떤 외부적 동작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이다.

(2) 또 다른 예로 우리는 국기를 그 자체가 신이라거나 아니면 국가 자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이 국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경의를 표한다. 이처럼 인간은 외적 상징으로 내적 정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3) 따라서 하나님은 보다 완벽한 계시가 주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인들에게 율법 이외의 여러 의식적인, 즉 상징적인 세부 조항 특히 정결의 법 같은 의문(儀文)의 율법을 주셔서 내적 정결의 상징적 방법으로 삼으셨다. 즉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신 것이다.

(4) 따라서 구약의 여러 율법 중에서 그 근본 규정의 범위가 절대적이고 영원한 생활원칙에 관계된 것들은 오늘날의 우리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 규정이 고대라는 문화적 배경하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의식적(儀式的)인 법들인 경우는 그 근본 사상만은 계속 지키되 그 세부 조항은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

(5) 우리는 이 부분에 언급된 정결의 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매우 철저하게 우리의 정결을 요구하심을 배운다. 이런 하나님의 요구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요청되는 것이다.

연구자료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분 류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
포유 동물	두 가지 조건 : 1. 갈라진 발굽 2. 새김질하는 것 11:3-7;신 14:6-8	식육 동물과 2가지 정결 조건을 갖고 있지 않는 동물
날짐승(새)	금지될 것으로 특별히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들	맹금(猛禽)이나 혹은 썩은 고기를 먹는 새 11:13-19;신 14:11-20
기는 동물 (파행 동물)	없 음	모 두 11:29,30
어 족	두 가지 조건 : 1. 지느러미 있는 것 2. 비늘 있는 것 11:9-12;신 14:9,10	2가지 정결 조건을 갖고 있지 않는 것들
곤 충	메뚜기 종류에 속하는 것들(메뚜기 종류, 베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 팟종이 종류)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곤충

제 12 장 산모(産母)에 대한 정결의 규례

단락구분 *1-5* 해산한 산모의 정결 예식 / *6-7* 정결식에 드릴 제물 / *8* 생활 수준에 맞는 제물을 정하다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칠 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 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3 제 팔 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4 그 여인은 오히려 삼십 삼 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5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칠 일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됨은 육십 륙 일을 지나야 하리라
6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일 년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 문 제사장에게로 가져 갈 것이요
7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8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

1. Q 본장에서 다루고 있는 정결 규례에 관해 말하라.

A (1) 정결의 율법(11-15장) 가운데 전장(11장)에서는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에 관한 율법이 나왔다.

(2) 본장은 전장에 이어 정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에 관한 율법(12-15장) 가운데서 첫번째인 출산한 여인의 부정과 정결식에 관한 규례를 언급하고 있다.

(3) 즉 여인이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여인은 부정(不淨)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정결 의식을 통하여 부정에서 정결케 될 수 있었다.

2. Q 여인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하였는가? (2절)

A (1) 7일 동안 부정하였다.

(2) 본래 해산 그 자체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의 출혈(出血)과 여러 가지 분비물 때문에 의식상(儀式上) 부정한 것으로 취급된 것이다.

(3) 경도(經度) 할 때에도 7일 동안 부정하였다.

(4) 여인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였으며, 제 8일에는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5) 그러나 남자 아이를 낳은 여인이 완전히 깨끗케 되기 위해서는 부정한 기간인 7일 후 33일이 또 지나야 했다.

(6) 결국 해산한 여인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40일이 지나야 했다. 이 40일의 의미는 해산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기 위하여 겪는 시련(시험)의 기간을 의미한다.

(7) 특히 이 40일은 인간이 부정한 죄인임을 깨닫고 통회하는 회개의 기간이다(Calvin).

3. Q '경도할 때와 같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2절)

A (1) '경도'(經度)는 히브리어로 〈니다〉인데 '흐르다'의 뜻의 〈니단〉에서 유래한 말이다.

(2) 즉 여인의 생리 현상인 월경(月經)을 가리킨다. 여인이 경도할 때에는 7일 동안 부정

한 자로 취급되었다.

4. **Q 양피를 벤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3절)

A (1) 이것은 산모가 그 부정한 기간이 지난 바로 다음 날인 제 8일에 남자 아이의 성기 표피를 자르는 할례 예식을 말한다.

(2) 성경에 나타난 할례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아브라함 때 시작되었다(창 17:10-14).

(3) 이스라엘의 할례 예식은 종교적인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즉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명심하며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임을 기억하고 더불어 도덕적 성결을 간직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4) 이 할례는 신약 시대의 세례 의식 곧 성부·성자·성령의 이름으로 씻음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입(迎入)된다는 것에 대한 전조(前兆)가 된다(참조, 골 2:11, 12).

5. **Q '정결케 하는 기한'의 의미는 무엇인가?** (4절)

A (1) 남자 아이를 낳았을 경우 7일 동안의 부정한 기간과 피가 완전히 그치는 기간을 합쳐 모두 40일간의 기간을 의미한다.

(2) 이 정결케 하는 기간이 끝난 후에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 정결 예식을 행해야 했다.

(3) 만약 정결케 하는 기한이 끝난 후에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으면 여전히 부정한 상태로 남아 있게 되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

(4) 구약 시대의 정결 예식은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피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는 자신의 선행과 수양으로는 이뤄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참조, 요 14:6).

6. **Q 하나님의 축복이자 명령이었던 인간의 출생 과정 중 산혈(産血)을 흘린 여인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된 성경적 배경은 무엇인가?** (4절)

A (1)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의 근원을(창 9:4-6) 땅에 흘리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인류의 타락 이후 새로이 주어진 여인의 해산의 고통 이외(창 3:16)에 산혈도 의식상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2) 한편 인간의 타락 이후 인간의 출생은 영생을 위한 탄생이 아니라 죽음을 향한 탄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며 각 개인에게 회개와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긴 하지만 타락 이전처럼 출생 자체가 곧 완벽한 출생의 시작이 될 수는 없게 되었다(시 51:5; 전 2:22).

(3) 그러나 구약 시대에 번제와 속죄를 드려 정결식을 행한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영원한 희생 제물 그 자체이며 동시에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히 4:14; 7:24; 9:12, 26; 10:21) 인간의 출생에 관계된 모든 영적 부정도 말끔히 제거되었다.

(4) 따라서 모든 인간에게 출생이 곧 영생의 축복이 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만은 출생이 곧 영생의 기쁜 출발이 될 수 있게 되었다.

7. **Q 산모가 남자 아이를 낳음으로 40일 동안 부정케 되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40일이란 의미를 말하라.**

A (1) 성경에서는 40이라는 수자를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귀중한 뜻을 암시하고 있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에 40일 동안을 두 번이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출 24:18; 34:28). 또한 엘리야는 천사가 제공한 음식을 먹고 40일간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간 적이 있었다(왕상 19:8). 예수님도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으셨다(마 4:2). 이와 같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관련된 40일의 기간들이 자주 나오는데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 수자는 시험의 기간 또는 시련의기간으로서 믿음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기간으로 사용되어졌다. 본장에서도 부정한 산모가 40일(여자의 경우에는 그 두 배인 80일)을 부정한 모습으로 지내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의 부정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시련 기간으로 지내는 것을 암시한다.

(2) 이와 같은 믿음의 시련의 기간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일찌기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성장하며 연단한 것처럼(갈1:17) 또한 목자로 광야에서 양을 키우면서 40년을 내적인 신앙 인격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견고히 다지는 모세의 연단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행함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 인격을 성숙시키며 내적으로 하나님께 향한 경외의 마음을 연단해야 하겠다.

(3) 우리가 이렇게 하여 성숙 단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쓰시며 우리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다. 성숙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한 미비한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펴실 수가 없으시다.

(4) 따라서 잠언서는 성숙을 위한 권장의 말로서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잠6:8),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잠10:5)라고 하였다. 이 귀절들은 모두 성숙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해야 됨을 암시한다. 성숙한 자를 통해서만 비로소 신령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

8. Q 여자 아이를 낳을 경우 그 여인은 며칠 동안 부정하였는가? (5절)

A (1) 이 칠 일(二七日), 즉 14일 동안 부정하였다.

(2) 이 경우에는 부정한 기간 14일 외에 66일이 지나야 정결 의식을 행할 수 있었다.

(3) 결국 남자 아이를 낳았을 경우의 40일간의 부정에 비해 그것의 두 배인 80일이 지나야 의식적인 불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4)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을 위해서 그의 협력자로(창2:18-25) 그리고 그의 영광으로(고전11:7-9)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불순종과 그 책임에 있어서 여자 편이 범죄의 시발인 것으로 말하고 있다(참조, 창3:16; 딤전2:14).

9. Q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이라는 말에서 기한은 얼마 동안인가? (6절)

A (1)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의식적으로 불결한 자로 취급되었다.

(2) 이 경우 남자 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하였으며 여자 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하였다.

(3) 이러한 기간을 '정결케 되는 기간'이라고 말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정결식을 행하여 깨끗케 되었다.

10. Q 아이를 낳은 여인은 어떻게 정결 예식을 행하였는가? (6-8절)

A (1)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

(2) 번제물로는 1년 된 어린 양을 드렸으며 속죄 제물로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렸다.

(3) 이때 제사장은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하였으며 그 후에는 깨끗한 자로 인정되었다.

11. Q 해산한 여인의 정결 예식에 있어서 번제를 드린 후에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6-8절)

A (1) 아이를 낳은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부정한 기간이 있더라도 그 자체는 축복이었다.

(2) 그러므로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에 대한 감사로 번제를 먼저 드렸다.

(3) 그 후 부정에 관한 의식적인 죄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

12. Q 가난한 여인은 자신의 정결케 되기 위한 번제의 제물로서 양 대신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가난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교훈을

진술하라(8 절).

Ⓐ (1) 성경은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이 규례에 따라 마리아의 정결케 하는 결례 의식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당시에 마리아는 예수을 출산한 후 결례 의식의 제물로서 집비둘기 둘과 산비둘기 둘을 가지고 갔다(눅 2:22-24).

(2) 이 사실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신 사실을 암시한다. 예수께서는 부유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로서(고후 8:9) 스스로 비천하고 가난한 자로 태어나심으로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의 위로가 되시며 그들을 돌보시는 친근자가 되셨다.

(3) 이런 사실을 볼 때에 우리들은 가난하다고 부끄러워하거나 비천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자신의 환경 속에서 굴하지 않고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4)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잠 17:5),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잠 14:31) 라고 증거하고 있다. 이는 성경이 가난한 자를 멸시하거나 또는 부한 자들과 구별하여 취급하는 사상을 가르치지 않음을 암시한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주시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묘사하였다.

(5)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 주나 악인은 알아 줄 지식이 없느니라'(잠 29:7). 가난한 자를 가난하다는 이유 한 가지로 인하여 멸시하고 천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숙하지 못한 인격의 저질과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그의 가치관의 야비함을 보여 주는 좋은 표본이 된다.

(6) 따라서 누구든지 가난하다고 부끄러워하거나 열등감을 갖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에게 닥치는 가난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더 한층 **상승**(**上昇**)시키며 승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7) 성경은 이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고전 1:28) 라고 하였다.

(8) 또한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RSV, those who are poor in the world)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시고'(약 2:5) 라고 하였다.

(9) 가난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멸시와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를 더욱 굳게 의지하고 믿는 신앙을 자아내는 유익한 축복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본장의 요절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일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 문 제사장에게로
가져 갈 것이요'(6절).

제 13 장 문둥병에 대한 규례

단락구분 *1-8* 피부에 나타난 증상으로 문둥병을 분별하는 법 / *9-17* 난육(爛肉) 증상에 의한 진단법 / *18-23* 종기의 상처에 의한 진단법 / *24-28* 화상(火傷)의 상처에 의한 진단법 / *29-46* 기타 여러 증후에 의한 진단법 / *47-59* 의복의 문둥병에 대한 법

1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2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3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희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4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칠 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5 칠 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칠 일 동안을 금고할 것이며
6 칠 일 만에 재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7 그러나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8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문둥병임이니라
9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10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희어지고 거기 난육이 생겼으면
11 이는 그의 피부의 오랜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금고하지는 않을 것이며
12 제사장의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13 그가 진찰할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14 아무 때든지 그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그는 부정한즉
15 제사장이 난육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그 난육은 부정한것인즉 이는 문둥병이며
16 그 난육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17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처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18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19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20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문둥병의 환처임이니라
21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칠 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22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이는 그 환처임이니라
23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24 피부를 불에 데었는데 그 덴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25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발한 문둥병인즉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문둥병의 환처가 됨이니라
26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면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칠 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27 칠 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은 문둥병의 환처임이니라
28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29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처가 있으면
30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라 머리에

나 수염에 발한 문둥병임이니라
31 만일 제사장의 보기에 그 옴의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칠 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32 칠 일 만에 제사장은 그 환처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른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거든
33 그는 모발을 밀되 환처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칠 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34 칠 일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는 그 옷을 빨지니 정하려니와
35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36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37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38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39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한 어루러기라 그는 정하니라
40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41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42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문둥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함이라
43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한 문둥병과 같으면
44 이는 문둥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확실히 진단할 것은 그 환처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45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46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47 만일 의복에 문둥병 색점이 발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48 베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있되
49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문둥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50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피고 그것을 칠 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51 칠 일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문둥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니
52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베의 날이나 씨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문둥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53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54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칠 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55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치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문둥병이니라
56 빤 후에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 버릴 것이요
57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복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58 네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그 색점이 벗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59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발한 문둥병 색점의 정하고 부정한 것을 단정하는 규례니라

---

1. Q 본장의 개요와 그 교훈을 말하라.

A (1) 본장 전체는 문둥병에 관한 규례와 문둥병을 진단하는 규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 또한 본장의 문둥병에 이어 다음 장에서는 문둥병으로부터의 정결법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피부병을 대표하여 일상 생활에서의 정결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3) 문둥병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저주받은 죄의 결과로 취급된다. 즉 문둥병의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증세는 죄의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성격(죽음)을 나타낸다.

(4) 그러므로 본장은 문둥병의 부정을 통하여 죄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문둥병으로부터의 정결 의식을 통하여 죄를 멀리하는 성결한 삶에로의 교훈을 준다.

2. Q 문둥병의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가? (2절)

A (1) 문둥병(leprosy)은 성경에서 죄의 대표적 상징으로 나타나며 죄의 파괴적인 상태가 이 나병(문둥병) 속에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참조, 시 38:3-11; 사 1:6).

(2) 첫째, 나병은 내부적 질병이다. 이것은 죄의 내재적인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3) 둘째, 나병은 치명적인 질병이다. 이것은 죄의 파괴적 속성을 나타낸다(참조, 롬 7:13).

(4) 세째, 나병은 환자를 사람과 사회 그리고 성소의 봉사로부터 격리시키는 질병이다. 이것은 죄가 사람과 사람, 사회와 개인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참조, 사 59:2; 계 21:27).

(5) 네째, 나병은 조그만 반점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온몸에 퍼져 전신을 파괴하는 무서운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죄가 서서히 침투되어 결국은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참조, 사 59:2; 계 21:27).

(6) 다섯째, 나병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어 만연되는 질병이다. 한 사람을 통하여 들어온 죄악의 속성은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전염되어 온 인류가 죄 아래 있게 되었다(참조, 롬 5:21).

3. Q 문둥병의 징후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을 누구에게 데리고 갔는가? (2절)

A (1)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기면 문둥병의 징후로 생각하고 제사장에게 데리고 갔다.

(2) 제사장에게 데려간 이유는 이 병을 질병이라기 보다는 부정함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참조, 민 12:10; 대하 5:27; 26:19).

(3) 문둥병은 의식적인 부정일 뿐만 아니라 죄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 일에 관여하였다.

4. Q 제사장이 문둥병으로 선언하는 경우는 어느 때인가? (3절)

A (1) 환처의 털이 희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을 때는 문둥병으로 진단하였다.

(2) 이렇게 문둥병으로 판명되면 진(陣) 밖으로 쫓겨 났다.

5. Q 제사장이 진단했을 때 피부의 털이 희어지지 않았고 피부가 우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환자를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4, 6절)

A (1) 7일 동안 격리 수용하였다.

(2) 7일 후에 제사장이 다시 진단하여 전과 다름없으면 또다시 7일 동안 격리 수용했다.

(3) 그 후에도 아무 이상이 없으면 제사장은 피부병으로 진단하고 그를 정(淨)하다고 선언하였다.

(4) 정(淨)한 자로 선언된 자는 옷을 빨았으며 그 후에는 정결한 자로 인정되었다.

(5) 그러나 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문둥병자로 취급되어 진 밖으로 쫓겨 났다.

(6) 이와 같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중하게 처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특히 성도의 허물에 대해 조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갈 6:1).

6. Q 문둥병이 전신(全身)에 퍼졌을 경우에 제사장은 어떻게 진단했는가? (13절)

A (1) 그 환자를 정(淨)하다고 선언하였다.

(2) 즉 문둥병이 전신에 퍼진 것은 내부의 병독(病毒)이 모두 밖으로 표출된 사실을 의미하며 이런 문둥병은 이제 곧 완쾌되기 때문이다.

(3)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볼 때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숨기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받는다(요일 1:9)는 것을 알 수 있다.

(4) 한편 우리들은 죄를 토설치 않으므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죄함을 받는다(시 32:3).

(5)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한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아무리 심각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기억치도 않으신다(참조, 사 43:25; 렘 31:34).

7. Q 난육(爛肉)이 피부에 발생하면 왜 부정한 것으로 선언되었는가? (14-17절)

A (1) 난육(raw flesh)은 문둥병의 병독(病毒)에 의해 나타나는 인체의 파괴적 현상인데 피부가 터져 겉으로 살점이 드러나는 상태를 말한다.

(2) 즉 난육이 발생되는 것은 몸 안에 문둥병의 균이 잠재해 있는 징후이기 때문에 문둥병으로 판명되어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다.

(3) 그러나 이러한 난육이 말라서 다시 흰 돌기로 변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문둥병자가 아니며 따라서 정(淨)한 자로 선언되었다.

(4) 이와 같은 현상은 범죄한 인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즉 죄로 인하여 저주의 판결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한 자도 죄의 해결을 받으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은혜 가운데 의(義)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

8. Q 피부에 종기가 발생했다가 나은 후에 다시 그 부위에 이상한 징후가 있으면 어떻게 진단하였는가? (18-23절)

A (1) 피부에 나타난 발진이 모두 문둥병은 아니므로 제사장이 증세에 따라 보통 발진(피부병)과 문둥병으로 구분해야만 했다.

(2) 이 경우 그 환처가 다른 피부보다 얇고 그곳의 털이 희면 그는 제사장에 의해 문둥병 환자로 판정되었다.

(3) 다 나은 종기의 환부에 다시 발진이 생기는 것처럼 세상의 더러움과 죄악에서 벗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거기에 얽매이고 정복될' 위험이 있다(벧후 2:20).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하며 경건의 덕을 쌓아야 한다(참조, 딤전 2:2; 4:7, 8; 딛 2:12; 벧후 3:11).

9. Q 화상을 입었을 경우 언제 제사장에게 그 환자를 데려갔는가? (24-28절)

A (1) 화상을 입은 곳이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또는 흰 색점이 생기면 문둥병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진단을 받아야 했다.

(2) 제사장이 진단했을 때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화상으로 인한 문둥병이 틀림없다.

(3) 그러나 색점의 털이 희지 않고 환부가 다른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7일 동안 금고(禁錮)하여 그 후에 다시 진찰하였다.

10. Q 남자나 여자의 머리와 수염에 나는 문둥병은 어떻게 진단하였는가? (29-37절)

A (1) 제사장이 진단하여 만약 환부의 털이 노랗고 환부가 다른 피부보다 우묵하면 머리에나 수염에 난 문둥병으로 판명했다.

(2) 그러나 다른 피부병과 같은 증세이면 머리나 수염에 난 옴으로 판명했다.

(3) 옴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7일씩 두 번 금고되었다가 다시 제사장의 진단을 받고 문둥병과 일반 피부병 중 어느 한 종류로 선언된다.

11. Q 어루러기 환자는 옷을 빨지 않고도 곧 정하다고 선언된 사실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38, 39절)

A (1) 계속 강조한 대로 구약은 외적인 사실로 진리를 교육하는 경우가 많다. 문둥병 환자도 영원히 저주받는 자로 판단되지 않았지만 그가 갖고 있는 문둥병 때문에 종교 의식적으로는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다.

(2) 한편 문둥병이나 어루러기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겉으로 보기에 흉한 것은 둘 다 동일하다. 그러나 어루러기는 피부 내부가 썩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겉에만 번진 피부병으로서 전혀 부정하게 간주되지 않았다.

(3) 이처럼 성경의 법은 비록 의식적인 법을 가르쳤던 구약에도 겉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속 모습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4) 하나님은 인간의 외형적인 공로나 재물이나 권세로 인간을 평가하지 아니하시며 인간의 중심을 보신다(삼상 16:7; 시 34:18).

12. Q 문둥병으로 판명된 자는 어떻게 되는가? (45, 46절)

A (1) 문둥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고 외치며 다녔다.

(2) 문둥병이 나을 때까지는 계속 부정하였으며 진(陣) 밖에서 살아야 했다.

(3)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았으며 나중에는 문둥병 환자끼리 무리를 이루어 살았다.

13. Q 문둥병 환자가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이유는 무엇인가? (45절)

A (1) 일반적으로 슬픔을 나타낼 경우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었다.

(2) 문둥병 환자들은 진 안에 거할 수 없는 자신들을 죽은 자로 간주하였으며 죽은 자에 대한 애도의 표현으로 머리를 풀고 옷을 찢었다.

14. Q 윗입술을 가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45절)

A (1) 사람이 윗입술을 가리는 것은 자기 증오와 자기 비하(卑下)를 나타낸다.

(2) 그러므로 문둥병 환자들은 사람이 접근해 올 때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았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한 모습을 스스로 증오하였다.

15. Q 제사장은 의복에 발생된 문둥병을 어떻게 판정했는가? (47-59절)

A (1) 의복의 종류에 붉은 점이나 푸른 점의 색점이 있으면 7일 동안 있은 후 다시 살폈다.

(2) 그 후에 이 색점이 퍼졌으면 악성 문둥병으로 판정되어 그 옷은 불태웠다.

(3) 그러나 7일 후에도 색점이 퍼지지 않았으면 그 옷을 빨았다. 빤 후에도 그 색점이 변치 아니하면 문둥병의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고 불태웠다.

(4) 빤 후에 그 색점이 엷어졌으면 그 부분을 절취해 버리고 남은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였다. 만약 빨았을 때 색이 약간 흐려졌으면 다시 빨아야만 정하게 되었다.

16. Q 문둥병으로 판정된 옷을 불사르는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55절)

A (1) 하나님께서는 입는 옷에 문둥병이 발생했다면 비록 신체의 일부에는 문둥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불태워 없애라고 명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한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에 죄악적인 것은 외부적으로라도 접촉하지 말고 버리라는 의미를 암시한다.

(2) 이에 대하여 유 1:23에서는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고 했으며 바울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고 했다(살전 5:22).

(3)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죄악의 단체에 가거나 어떤 죄악적인 환경에 처하게 되면 그들은 자칫 부정한 죄악에 오염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외부인들에 의하여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힐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 거룩한 삶을 견지(堅持)해야 하겠다(살전 5:22).

(4)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옷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생활품이지만 그것이 문둥병에 오염되었으면 단호히 불태워 제거해야만 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들의 생활 가운데서 죄악의 경향이 있는 필수적인 요인들이 때때로 그들의 신앙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호이 척결하고 제거해야 할 것을 암시한다.

(5) 구약의 이방 여인 들릴라는 삼손이 하나님을 따르고 좇는데 결정적인 방해 요소가 되었으며(삿 16:4-21) 신약의 한 부유한 유대인 관원은 그가 예수를 따르고 구원받는 데 그의 재물이 방해 요소였다(마 19:16, 23; 눅 18:18, 23).

(6)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따라가야 함은(마 16:24, 25)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진리이다.

(7) 부정한 옷을 불사른다는 것은 문둥병으로 상징되는 죄악을 심판하여 그것을 멸절하는 행위를 암시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악에 대하여 단호한 자세를 취하여 죄악과는 끊어 상종(相從)치 않는 태도를 항상 고수해야 하겠다.

(8) 예수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百體) 중 하나가 없었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마 5:29)라고 하셨다.

(9) 이런 믿음의 자세야 말로 세인(世人)들이 모방할 수 없는 것으로서 거룩한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들이다.

17. Q **본장에서 문둥병에 걸린 자에게 적용되었던 율법의 규례를 신약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라.**

A (1) 구약에서는 백성 중 한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면 그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며 진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만 하였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한 특징을 보여 준다. 즉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행위 언약적이었으므로 인간은 그의 행위의 온전함과 거룩함을 가지고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따라서 문둥병자와 같은 부정한 자로 판정받은 자는 다른 방도를 강구(講究)할 여지도 없이 즉시 진을 떠나 하나님의 임재가 단절된 곳에서 살아야만 했다.

(2)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야 했던 구약 시대와는 달리 문둥병자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적극적으로 나아왔다(마 8:2; 막 1:40, 41; 눅 5:12-14; 17:11-19). 이와 같은 현상은 구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떠나야만 했던 사실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신약 시대에 문둥병자들은 자신들의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처지를 하나님께 고하며 당신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왔던 것이다.

(3)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기 표현과 그에 따른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접근 방법이 각각 다르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공의와 진노의 하나님으로 백성들에게 계시하였다(참조, 창 19:16-22). 즉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 속에서 사랑을 나타내며 자신을 계시하셨던 것이다. 따라서 백성들은 사랑과 더불어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자신의 추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떨 수밖에 없었다(창 20:18, 19).

(4) 그러나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은혜와 진리'(요 1:14, 17) 가운데서 계시하셨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나아 '오라'(마 11:28)고 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짐을 친히 담당하여 당신께 나아오는 자들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기 때문이다(참조, 요 1:17; 롬 5:8).

(5) 따라서 신약 시대에는 정한 자나 부정한 자 또는 신분이나 성(性)에 대한 차별이 없이 모두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제 14 장 문둥병자의 정결 예식

단락구분 *1-10* 문둥병 치유의 확인과 비둘기의 피를 뿌리는 제1차 정결식 / *11-20* 속건제, 번제, 소제로 구성된 제2차 정결식 / *21-32* 가난한 자를 위한 정결의 법 / *33-53* 주택에 발생한 문둥병에 대하여 / *54-57* 문둥병에 대한 규정의 결론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3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4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5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6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7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8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칠 일을 거할 것이요
9 칠 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10 제 팔 일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수양 둘과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십분 삼에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한 록을 취할 것이요
11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12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13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 희생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일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14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15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16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의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17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우편 귓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18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19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20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21 그가 가난하여 이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하나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에바 십분 일에 기름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22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취하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23 제 팔 일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 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 갈 것이요
24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25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26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27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의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28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29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30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하나나 집 비둘기 새끼 하나를 드리되
31 곧 그 힘이 미치는 것의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32 문둥병 환자로서 그 결례에 힘이 부족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33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34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발하게 하거든
35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고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36 제사장은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장 집물에 부정을 면케 하기 위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37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38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칠 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39 칠 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40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41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42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43 돌을 빼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복발하거든
44 제사장은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문둥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45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재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46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47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
48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 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49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취하고
50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51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산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일곱번 뿌릴 것이요
52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케 하고
53 그 산 새는 성 밖 들에 놓아 그 집을 위하여 속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54 이는 각종 문둥병 환처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55 의복과 가옥의 문둥병과
56 붓는 것과 피부병과 색점의
57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문둥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

1. **Q 본장의 개요와 특징을 말하라.**
   A (1) 앞의 13장은 문둥병에 대한 여러 진단법의 규례를 언급하였다.
   (2) 본장에서는 문둥병 환자가 나았을 경우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행해야 할 정결 의식의 법이 규정되어 있다.
   (3) 이 경우에 제사장은 먼저 문둥병에 걸렸던 자가 정결해졌다고 선포하고 그 후에 회생 제사를 드려 정결 예식을 행하였다.
   (4) 문둥병으로 인해 진 밖으로 쫓겨 난 자가 다시 정결 예식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죄인들이 죄의 해결(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2. **Q 문둥병 환자의 정결 의식 규정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
   A (1) 하나님께서는 문둥병에 걸린 자를 진 밖으로 축출하여 하나님이나 백성들과의 교제를 상징적으로 단절시키셨다. 그러나 그가 문둥병으로부터 완쾌되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의식 절차를 통하여 백성들이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도록 허락하셨다.
   (2)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정을 얼마나 혐오하시는지를 단적으로 암시하고 표현한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부정한 것을 배척하신다.
   (3) 따라서 비록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범죄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되는 것이다.

(4)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맞아 주시며 한없는 은혜를 주신다.

(5) 결국 죄로 인한 죽음을 상징하는 문둥병과 같은 병에서도 고침을 받고 다시 정결 예식을 통하여 정하게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결코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참조, 시 74:12; 요 10:9; 행 2:21).

3. Q 문둥병자의 정결케 되는 규례를 설명하라(1-7절).

A (1) 먼저 제사장이 진찰하여 문둥병의 환처가 다 나았음을 확인한다.

(2) 제사장은 그를 위해 정한 산 새 두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준비해야 한다.

(3) 그리고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을 놓고 산 새 한마리를 질그릇 속에서 잡아 그 피를 취하여 다른 산 새 한마리와 더불어 준비물들을 가지고 가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제사장이 7번 뿌리며 '정하다' 하고 선언한다.

(4) 그 후에 산 새는 들에 놓아 주었으며 정결함을 받을 사람은 그날로부터 7일 만에 옷을 빨고 몸의 모든 털을 밀었다.

(5) 제 8일에 속건제, 속죄제, 번제 및 소제를 드림으로써 완전히 정결하게 되었다.

4. Q 백향목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4절)

A (1) '백향목'은 팔레스틴 지역에 없는 레바논의 특산물로서 여기서는 생명력을 상징한다. 문둥병은 그 환자의 피부에 부패를 유발시키는데 이 부패는 죽음을 나타내는 외형적인 한 현상이다.

(2) 따라서 백향목은 죽음을 나타내는 부패를 제거하고 새 생명을 부여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다.

5. Q 홍색실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4절)

A (1) '홍색실'은 피에 의한 치유와 구원을 의미한다(참조, 수 2:18).

(2) 문둥병은 부정한 것으로서 죄악을 상징하여 환자로 하여금 죽음(격리)을 요구한다(롬 6:23). 그러나 그는 생명을 가리키는 피(레 17:11,14)에 의해서 죽음을 요구하는 죄를 속할 수 있다.

(3)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

6. Q 우슬초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4절)

A (1) '우슬초'는 죄의 정결에 필수적인 물품이었다(참조, 출 12:22; 시 51:7).

(2) 다윗은 이에 관련하여 고백하기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시 51:7) 라고 하였다. 문둥병은 부정한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 환자에게 죄악의 더러움을 오염시켰다.

(3) 그러나 그는 우슬초에 의하여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정결케 되었다.

(4) 성도의 정결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구원을 확보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간인고로 세상의 유혹에 자주 물들기 때문이다(참조, 요 17:16; 딛 2:12; 요일 4:1; 요이 1:7).

7. Q 산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는 의미는 무엇인가? (5절)

A (1) 문둥병은 그 환자에게 죽음의 고통과 쇠잔함을 안겨 주나 이 흐르는 물은 그를 소생케 하는 생명을 부여한다.

(2) 이처럼 '흐르는 물'은 죽음과 절망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생명과 소망을 의미한다.

(3) 신약 시대의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이 때의 물 역시 생명을 상징한다.

8. Q 새를 '질그릇' 안에서 잡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5절)

A (1) '질그릇'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인간을 의미한다.

(2)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의 효력들을 상징하는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흐르는 물, 새 등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 인간을 상징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고후 4:7) 라고 묘사함으로써 더욱 분명히 밝혔다.

9. Q **'죽음을 당한 산 새'와 '놓임을 받은 산 새'가 각각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6, 7절)**

A (1) '죽임을 당한 산 새'는 인간의 죄를 속(贖)하기 의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2) 그리고 '놓임을 받은 산 새'는 죽음의 고통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또 한편으로는 죄와 죽음의 구속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

(3) 문둥병은 죄악을 상징하는 부정한 것으로서 그 환자에게 죽음(결별)을 요구하여 새가 그 죄로 인하여 대신 피를 뿌리고 죽었다.

(4) 그리고 문둥병자는 '놓임을 받은 산 새'가 상징하는 것처럼 모든 죄악과 죽음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었다.

10. Q **정결함을 받을 자는 정결의 선언을 받은 날부터 며칠 만에 제사를 드렸는가?** (10절)

A (1) 제 8일 만에 드렸다.

(2) 태어난 지 8일 된 신생아들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처럼 8일 만에 회생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것은 죽은 자로 간주되었던 문둥병 환자가 새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한다.

11. Q **제 8일에 흠 없는 어린 수양 둘을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 (10절)

A (1) 한 마리는 속건제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속죄제 회생으로 드렸다.

(2) 여기서 배상의 의미가 있는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는 문둥병자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 나기 전에 이스라엘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12. Q **흠 없는 어린 암양은 무엇에 사용되었는가?** (10절)

A (1)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린 후의 번제 제물로 사용되었다.

(2) 번제는 속죄에 대한 감사와 전적 헌신을 나타낸다.

13. Q **기름 한 '록'은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10, 15-18절)

A (1) '록'은 액체의 단위로서 그 분량은 약 0.3ℓ 가량이다.

(2) 기름은 속건제의 회생을 드릴 때 제사장이 왼편 손바닥에 부어 오른편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리고 또 찍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신체의 여러 부분에 발랐다.

(3) 기름을 바를 때는 속건 제물의 피가 발라진 부분 위에 발랐다.

(4) 기름을 바르는 것은 성령의 온총과 사역을 나타낸다. 즉 문둥병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었으나 이제 다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음을 나타낸다.

14. Q **가난한 자는 정결 예식에 있어서 어떻게 제물을 준비하였는가?** (21-32절)

A (1) '힘이 미치는 대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릴 수 있었다.

(2)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의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했다. 즉 소, 양, 염소, 비둘기, 곡식, 기름과 같이 눈에 보이는 제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을 상징케 한 것이다.

(3) 그러나 제사를 드리는 각 사람이 동일한 재산을 소유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원칙을 세우셨다.

(4) 이러한 규례는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자하심을 보여 준다. 인간적으로 가난한 자, 약한 자, 억눌린 자, 외로운 자, 못난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공평하며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영혼들이다. 오히려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경고(警告)가 있듯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인간적으로는 못난 자라도 영적으로

는 더욱 고결한 경우가 많다.

(5) 한편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사실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대상 29:14) 라고 하였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한 권면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고후 9:7) 라고 하였다.

(6)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구약적이면서 또한 신약적인 원리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극빈자들까지도 그 형편을 참작하여서 물질의 양(量)에 의존하지 말고 힘이 미치는 대로 재물을 바칠 것을 명하셨다. 소유한 재물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인색하게 바치는 것은 잘못이지만 또한 힘이 없으면서 무리하게 바치는 것도 잘못이다.

(7) 왜냐하면 힘이 없으면서 무리하게 바치려는 것은 자기 과신(過信)과 외식(外飾)의 그릇된 처사이거나 또는 스스로 얽매인 자기 구속적(拘束的)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8) 하나님께서는 결코 물질의 양을 보시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 주님께서는 많은 양의 돈을 헌금하는 부자들 앞에서 두 렙돈의 동전을 낸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다(막 12:41-44).

(9) '힘이 미치는 대로' 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헌신하여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태도이다.

15. Q 본장의 사람이 사는 가옥에 발생된 문둥병을 처리하는 규례에서 우리가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신령한 뜻은 무엇인가? (33-47절)

A (1) 이스라엘이 정복하여 거주할 가나안 땅이 비록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거룩한 땅이지만 그곳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옥에는 문둥병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땅도 저주를 받았으므로(창 3:17) 땅의 것으로 지은 가옥도 또한 부정한 병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의미이다.

(2) 땅에 있는 장막 집(RSV, the earthly tent)으로 묘사된 인간의 육체도 이와 같다(고후 5:1-4). 육체라는 썩은 장막 가운데 거하는 인간은 끊임없이 솟아오르며 발생하는 죄악으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고 온갖 상처를 입은 상처 투성이의 존재가 되었다.

(3) 따라서 인간은 문둥병이 발생한 집 돌을 떼내고 흙을 긁어 내어 새로운 돌과 흙으로 대체하여 새로이 지은 것처럼 죄악과 부정으로 부패해지고 상처를 입은 마음을 사랑과 진실의 능력으로 싸매고 다음에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야만 한다.

(4) 그러나 돌과 흙으로 새로이 다듬어 지은 집이 문둥병이 복발(復發)할 가능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죄와 부패의 찌꺼기가 여전히 육체 속에 남아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도 죄악의 웅크렸던 싹을 복발시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5) 이것은 문둥병이 발생한 집은 돌을 떼내고 흙을 긁어 내어 다시 바르는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 장막의 흙 집이 무너지고 철거되기 전까지는 문둥병에서 깨끗케 될 수 없는 것처럼 죽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는 죄에 대한 인간의 본성을 가리킨다.

(6) 따라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전 15:31).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후 4:10)라고 고백함으로써 가증스런 죄악의 독버섯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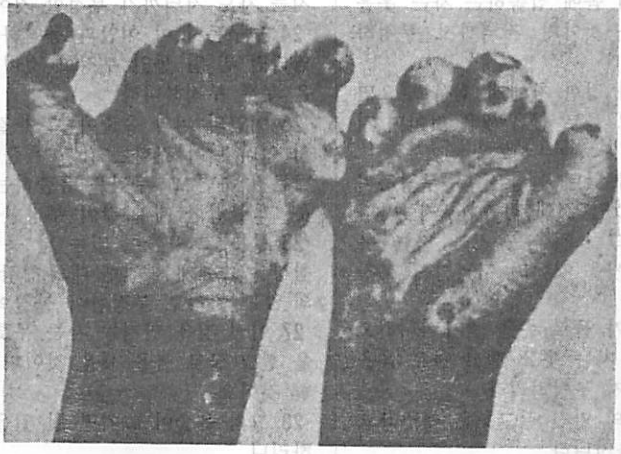
(7)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고백은 사도 바울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롬 8:23)라고 한 탄식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계속 삶의 한 원리가 될 것이다.

16. Q 가옥에 생기는 문둥병의 규례는 어떠한가? (33-53절)

Ⓐ (1) 이 규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지켜져야 할 규례이다.
(2) 집에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고하여야 한다.
(3) 제사장은 규례대로 판단하고 만약 그 집이 문둥병으로 확인되면 헐어 버려야 했다.
(4) 그러나 색점이 번지지 않으면 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정결 예식을 해야만 한다. 이 경우의 정결 예식은 사람의 정결 예식과 비슷하다(참조, Ⓠ3).
(5) 가옥의 정결 예식을 통해 하나님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의 내적 성결을 가르치셨다.

화보자료

문둥병. 아래의 사진은 문둥병(leprosy)이 온 몸에 퍼진 결과 손가락에 결절(結節)이 생기어 그 끝 마디가 삭은 장면이다.



문둥병은 만성 전염병 중의 하나로 주로 열대 지방과 동양에 많이 있었다. 성경에서는 문둥병에 걸린 것이 죄의 대가라 하지 않았으나(2-9절) 훗날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많이 생겼다(참조, 대하26:16-21).

제 15 장 유출병의 규례와 그 성결법

단락구분 *1-15* 유출병으로 인한 남녀의 부정 / *16-18* 설정(泄精)에 의한 부정 / *19-24* 여인의 월경에 의한 부정 / *25-30* 여인의 비정상적인 하혈(下血)로 인한 부정 / *31-33* 유출병에 대한 결론

1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3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몸에서 흘러 나오든지 그것이 엉겼든지 부정한즉
4 유출병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5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6 유출병 있는 자의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7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8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9 유출병 있는 자의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10 그 몸 아래 당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1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2 유출병 있는 자의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목기는 다 물로 씻을지니라
13 유출병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칠 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14 제 팔 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고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15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16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7 무릇 정수가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8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9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칠 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20 그 불결할 동안에 그의 누웠던 자리는 다 부정하며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21 그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22 그 좌석을 만지는 자도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23 그의 침상과 무릇 그 좌석에 있는 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24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 불결에 전염되면 칠 일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의 눕는 상은 무릇 부정하니라
25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26 무릇 그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의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는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의 부정과 같으니
27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28 그의 유출이 그치면 칠 일을 센 후에야 정하리니
29 그는 제 팔 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여 회막 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 올 것이요
30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할지니라
31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 할지니라
32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을 입은 자와

1. Q 본장은 주로 어떤 내용을 취급하고 있는가?

A (1) 본장에 나타나 있는 유출병(流出病)의 규례는 문둥병의 경우처럼 의식법상의 부정(不淨)에 관한 내용이다.

(2) 특히 본장에 열거되는 여러 유출병의 규례는 모두 성생활(性生活)에 관계되는 의식적인 부정과 그 정결법이다.

(3) 성생활은 인간 생활의 가장 은밀한 부분에 속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겉에 나타난 문둥병의 경우처럼 성생활의 의식적인 부정도 정결 예식을 통하여 깨끗함을 받아야 했다.

(4) 특히 본장은 육신의 정결한 생활 가운데 가장 유혹에 약한 성적(性的) 정결에 대한 교훈을 남기고 있다.

2. Q 성 관계 또는 성(性)과 관련된 신체 부위의 부정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제시하는 본장의 전체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A (1) 성생활은 인간 생활의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에 속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성생활에 있어서까지 철저한 정결을 요구하신 것은 우리가 생활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정결해야 할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실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시다(마 10:30).

(2) 성생활은 본래 하나님의 그지없는 축복의 일부였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 성생활도 순결한 결혼의 기쁨이 아니라 단순한 쾌락으로, 타락의 도구로 전락되기 시작했다. 그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을 얻기 원하여 가정과 자신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어리석은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물질적 풍요를 이룬 현대 선진 국가일수록 이런 성적 문란이 여러 정신병 증세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전인류의 문제이다.

(3) 본장 전체에서 보듯이 성적 부정에 대한 율법의 조처는 매우 엄격하다. 이것은 비록 현대 성도들이 이제는 본장에 제시된 것과 같은 율법의 의식(儀式) 규정의 통제는 받지 않지만 성적 타락에 대하여 매우 경건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을 보여 준다.

(4) 따라서 성도들은 2세들을 위한 건전한 성 교육(性教育)과 아울러 아름다운 가정 생활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순결한 성생활의 기쁨과 축복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성적 방종이나 또는 무조건적으로 금기시하는 것은 둘 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부자연스런 행위이다.

3. Q 유출병은 어떠한 질병인가? (2절)

A (1) 유출병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조브〉인데 '계속 흐르다'의 뜻을 가진 말 〈주브〉에서 유래되었다.

(2) 그러므로 유출병은 성기(性器)에서 계속적으로 분비물이 유출되는 질병을 의미한다.

(3) 일반적으로 유출병은 방탕하고 부정하고 음탕한 생활의 결과라고 여겨졌다.

4. Q 유출병이 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2,3절)

A (1)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은 종교적이며 의식적(儀式的)인 부정(不淨)을 말한다.

(2) 즉 불결한 방법으로 유출되는 이 병은 하나님의 거룩(성결)하심에 위배되어 결국 불의(不義)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5. Q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에 접촉된 자는 어떻게 해야 하며 그 뜻은 무엇인가? (5-12절)

A (1)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했다.

(2)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는 규정이 본장에 10번이나 언급되어 있다(5-8, 10, 11, 13, 21, 22, 27절). 이것은 몸의 청결을 위한 규정을 넘어선 종교적 의미를 지닌다.

(3) 성경에 있어서 옷은 범죄의 결과로 생겨났다. 즉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인식하게 된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입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으나 온전히 수치를 가릴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을 입히셨다. 이런 하나님의 행위는 인간을 위한 속죄의 사역을 암시하신 자비로우신 긍휼하심이다.

(4) 계 22:14에는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하였고, 계 3:4에서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가 언급되어 있으며, 계 3:7에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해야 하는 자' 도 있다.

(5) 즉 성경에서 옷은 구속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된 적이 많았다. 이러한 구속의 도가 죄악으로 인하여 더럽혀질 때 주님의 보혈이 이것을 정결케 할 수 있다. 계 7:14에서는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다. 따라서 '옷을 빨고' 라는 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다.

(6) 또한 '물로 몸을 씻어라' 는 명령도 영적으로 깨끗해야 됨을 교훈한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요 13:10) 고 말씀하셨다.

(7) 즉 예수께서는 상징적인 행동으로써 진리를 보여 주신 것이다. 따라서 본장에 언급된 유출병의 정결 의식도 진리를 계시하기 위한 상징적 교훈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6. Q 유출병자의 몸이나 그가 앉았던 자리에 접촉된 자가 부정을 입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5,6절)

A (1)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은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타인과 물건에게까지 그 부정을 옮겼다.

(2) 이것은 죄악이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3) 회개치 않은 죄인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죄악의 결과이다.

(4) 오직 의인은 악한 자와 함께 있어서도 안 된다. 또한 죄인의 길에서 서성대는 일도 피해야 한다(시 1:1).

(5) 우리의 범죄와 타락은 이웃에게도 불안과 위기를 일으킨다. 이러한 경우를 요나의 범죄에서 발견할 수 있다(욘 1장).

7. Q 유출병 있는 자의 유출이 깨끗하여졌을 때 어떻게 정결 예식을 했는가? (13-15절)

A (1) 유출이 멈춘 후부터 7일 만에 그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었다.

(2) 제 8일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제사장에게 주어 제사장이 유출병에 걸렸던 자를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다.

(3) 속죄제는 유출병으로 인한 불결의 죄악을 용서받기 위한 제사이며 그 후의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새롭게 다짐하는 온전한 헌신을 나타낸다.

(4) 그 후에 그는 모든 부정으로부터 깨끗케 된 정결한 자가 되었다.

8. Q 설정(泄精)한 경우는 왜 부정한가? (16-18절)

A (1) 설정이란 말은 남자의 정액이 분비된 상태를 말한다.

(2) 사람의 몸에서 나온 정액은 타락한 인간의 육체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부패로 돌아가는 죽음의 한 현상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3) 남녀가 동침한 경우의 설정도 저녁까지 부정하였으며 이 경우 동침한 두 남녀는 둘 다 몸을 물로 씻어야 했다.

9. Q 여인의 피의 유출, 즉 월경 현상은 왜 종교적 불결로 간주되었는가? (19절)

A (1) 여자가 월경 중에 피를 흘리는 것은 의식적(儀式的)인 불결로 간주되었다.

(2) 다시 말해 여자의 월경은 생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저주이며 또한 피의 유출로 인해 나타나는 죽음을 상징했다.

(3) 그래서 여자의 월경을 종교적인 불결로 간주하였다(참조, 창 3:16).

10. Q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은 며칠 동안 부정하였는가? (19-24절)

A (1) 7일 동안 의식적인 불결한 자로 취급되었다.

(2) 또한 여인의 부정한 기간에 그 여인이 접촉한 모든 것은 부정하였다. 만약 이 여인을 통해 부정을 입은 어떤 장소나 물건에 접촉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였으며 이 경우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만 정결케 될 수 있었다.

(3) 또한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한 자는 7일 동안 부정하였다.

11. Q 여인이 피의 유출로 인한 부정에서 정결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9,30절)

A (1) 피의 유출이 멈출 때로부터 7일 만에 옷을 빨고 몸을 씻었다.

(2) 그리고 제 8일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취하여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다.

(3) 성생활과 관계된 모든 성적 유출물은 불결한 것으로 취급되었으며 반드시 정결 예식을 통해서만 정결케 될 수 있었다.

(4) 이와 같은 성적 정결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도덕적인 순결을 교훈하신 것이다.

12. Q 본장에서는 유출병이 전염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A (1) 유출병에 대한 부정의 감염은 죄악의 전염성을 상징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2) 본래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며 이 부패성은(렘17:9) 인간의 생각, 말, 행동 등을 통해 널리 옮겨진다.

(3) 그러므로 성도들 사이에 있어서도 지체된 자 중에 한 사람이 범죄에 빠진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곧 그 죄악성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버린다.

(4) 결국 이와 같은 죄의 오염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성령의 충만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성화의 생활뿐이다(참조, 살전1:6).

화보자료

생식(生殖)의 여신 아스다롯. 옆의 사진은 가나안 지방에서 생식과 풍요를 주관한다고 믿어졌던 아스다롯의 상으로서 B. C. 6-7세기경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현재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생식과 성(性) 자체는 불결한 것이 아니나 율법은 그러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할 것을 가르친다(16-18절). 즉 인간 본연의 정당한 욕구와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화되어야 하는 것이다(롬 3:10).

제 16 장 속죄일에 대한 규례

단락구분. *1-10* 대제사장의 지성소 출입에 관한 법 / *11-14*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 *15-19* 전백성을 위한 속죄제 / *20-28* 아사셀의 염소, 즉 속죄 염소 / *29-34* 매년 7월 10일에 지켜야 될 속죄일의 법

1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3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4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의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5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6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7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8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9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10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는 산 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11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12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안에 들어가서
13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14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15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16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17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18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19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20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드리되
21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22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23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옷을 벗어 거기 두고
24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25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26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27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28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29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칠 월 곧 그 달 십 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30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31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32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의를 입고
33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34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일 년 일 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

1. Q 본장의 중심 내용을 말하라.

A (1) 본장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위하여 특별히 속죄하는 날인 속죄일에 관한 규례를 언급하고 있다.

(2) 속죄일의 제사 의식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가장 잘 나타내 준다.

(3) 즉 매년 반복되는 속죄일의 속죄 사역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으로 완성되었다(히 9:7-12, 24-28).

(4) 이처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특별히 속죄하는 날인 7월 10일의 속죄일을 일반 속죄일과 구분하기 위해 대속죄일(大贖罪日)이라고 부른다.

2. Q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사건을 다시 언급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1절)

A (1)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지정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나아가 분향하다가 회막 문 앞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2) 이러한 사건이 다시 속죄일의 규례와 더불어 언급되는 이유는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이다.

(3) 즉 성막 제도를 통하여 여호와께 나아가는 일은 비록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과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였다.

(4)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인간들은 오직 하나님의 지시하신 방법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

(5) 구약의 이러한 절대적인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만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6) 성도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뿐 아니라 여건과 처지에 관계 없이 그의 말씀도 지키는 것이다.

3. Q '성소의 장(帳) 안'은 어디를 의미하는가? (2절)

A (1) 여기서 장(帳)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veil, curtain)을 가리킨다.

(2) 그러므로 '성소의 장 안'이라는 말은 곧 지성소 안을 의미한다.

(3)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할 수 있었으며 그 외에 무시(無時)로, 즉 아무때나 들어갈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였다.

(4) 그러나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으며(마 27:51) 그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되었다.

(5) 이와 같이 성도들은 성전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성전 안에서의 매매 행위를 책망한 예수님의 행동을 기억하여야 한다(마 21:12, 13).

4. Q 일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것은 어떤 교훈을 주는가? (2절)

A (1) 만일 모든 회생 제사 때마다 무분별하게 지성소에 들어간다면 경건함과 존경심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는 보통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으로서 충분했다. 그러나 일년에 한 번 속죄일의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백성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2)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행위를 하는 동안 온 백성은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의식했고, 제정 일치(祭政一致) 사회에서 전민족이 하나로 굳게 단결하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

(3) 현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 중에 종교를 교양이나 악세사리처럼 여기는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5. Q 법궤 위 속죄소에 대해서 설명하라(2절).

A (1) 지성소 안에는 사면을 금으로 둘러싼 법궤(언약궤)가 있다. 이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 등이 들어 있다(히 9:4).

(2) 이 법궤 위에는 법궤를 덮는 뚜껑이 있는데 이것이 속죄소(the mercy-seat)이며 그 위에는 속죄소를 덮는 그룹들이 있다(히 9:4, 5).

(3) 속죄소와 그룹에 대해서는 출 25:16-22을 보라.

6. Q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 어떤 준비를 하였는가? (3-5절)

A (1) 먼저 아론 자신을 위한 제사 예물로 수송아지와 수양을 준비하였다.

(2) 물로 몸을 씻고 세마포 옷을 입었다.

(3) 백성을 위한 제사 예물로 수염소 둘과 수양 하나를 준비하였다.

(4) 아론은 온 회중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과 그 권속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다.

(5) 이것은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저질렀던 실수나 범죄 행위를 용서받기 위한 목적에서 뿐만 아니라 속죄일의 의무를 잘 감당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다.

(6)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한다(참조, 시 7:12; 겔 18:30; 행 3:19; 계 3:3).

(7)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비록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회개하는 심정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참조, 마 3:8).

7. Q 몸을 물로 씻은 후 세마포 옷을 입는 의미는 무엇인가? (4절)

A (1) 몸을 물로 씻는 것은 죄로 인한 더러운 오염을 깨끗이 씻어내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8:7).

(2) 몸을 물로 씻은 후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은 죄의 용서에 힘입어 의(義)의 옷을 덧입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백성을 위해 속죄 사역을 담당하는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8. Q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4절)

A (1) 대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예복은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할 때 입는 옷이므로 구별된 의미에서 '거룩한 옷'이다.

(2) 오늘날에도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의미에서 성도(거룩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의(義)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죄악과 세상의 풍습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18:30).

9. Q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이유는 무엇인가? (4절)

A (1) 속죄일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날로서 한편으로는 죄의 수치를 스스로 드러내는 날이었다. 따라서 이날은 특히 대제사장도 백성의 죄를 속하는 중재자로서 뿐 아니라 자신의 죄도 용서받는 날이었으므로 호화스럽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을 수 없고 아무 장식이나 색깔이 들어 있지 않은 흰 세마포 옷을 입어 겸허한 자세를 갖춘 것이다.

(2) 회개의 기본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이처럼 지극히 낮아지는 데 있다. 따라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아직도 자기가 가증한 죄인이라는 것을 숨기려 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여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따라서 '교만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면서 교만한 자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타는 얼음'이란 모순된 말과 같다.

(3)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의 죄가 인식되는 매순간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흰 옷을 입고 겸손히 속죄일의 의식을 집행하였듯이 가장 낮아진 심령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도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보시고 용서해 주신다.

(4)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한 후에 회개하며 노래하기를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시 51:17)라고 하였다.

(5) 성도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도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을 갖춰야 하며 아울러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한다(참조, 요 4:24).

10. Q 아론이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6,7절)

A (1) 여기서 권속(眷屬)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바이트〉를 가리키는데 이 말은 집(house)이나 한 세대 전체(family)를 가리키는 말이다.

(2) 그러므로 대제사장 아론은 대속죄일의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기에 앞서 자신을 비롯한 제사장 가족 전체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렸다.

(3) 이것은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준비하여야 함을 보여 준다.

(4) 교회 지도자들은 말씀을 들고 성도들 앞에 서기 전에 철저한 준비와 자신을 위한 눈물어린 회개의 기도가 요구된다.

11. Q 속죄일에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제에 있어서 염소 두 마리를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8절)

A (1) 회중이 준비하여 장로들이 이끌어 온 속죄 제물을 위한 두 염소 가운데서 제비뽑아 한 마리는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렸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삼아 광야로 내어 보냈다.

(2) 즉 이것은 1년 동안에 걸쳐 백성들의 속죄받지 못한 죄가 염소의 속죄 희생을 통하여 용서될 뿐 아니라 실제로 그 죄악이 제거되는 것을 의미한다.

(3) 이런 의미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한 마리의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것이며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불리운다.

12. Q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8절)

A (1) 아사셀은 히브리어 〈아자젤〉의 음역이다. 이 말은 '염소'를 가리키는 용어 〈에즈〉와 '가버리다', '사라지다' 등의 뜻이 있는 말 〈아잘〉의 합성어이다. 그러므로 '아사셀'이란 말은 '내어 보냄의 염소'(또는 속죄의 염소)라는 뜻으로 본다.

(2) 그러나 카일(Keil)은 말하기를 '아사셀'(히. 아자젤)은 귀신이나 악령을 나타내는 원어 〈아잘젤〉이 발음상 유음화(流音化)된 것이므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는 본문은 '아사셀(악령)에게 보내어지는 염소'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즉 악한 죄의 세력의 우두머리인 아사셀에게 염소를 내어 보내는 것은 그 염소에게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게 하여 모든 죄를 다시 아사셀에게 보낸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4) 결국 (1),(2) 중 어떤 견해를 취한다 하더라도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담당하여 광야로 나가는 염소를 의미하고 있다.

(5) 그러므로 아사셀 염소는 우리 죄를 짊어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요 1:29).

13. Q '속죄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1절)

A (1) '속죄한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키페르〉인데 이것은 '덮다', '용서하다' 등의 뜻이 있는 말(히, 카파르)에서 나왔다.

(2) 따라서 구약 시대의 속죄한다는 말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덮어 주신다는 의미가 있다.

(3) 이것은 죄인을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의인처럼 간주해 주시는 것을 가리킨다(참조, 롬 5:8; 딤전 1:15).

(4) 이와 같은 속죄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힘입는 자에게만 가능하다. 결국 오늘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모든 자는 속죄함 받은 것이며 이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엡 2:1)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된 것을 의미한다.

14. Q 속죄일에 아론은 몇 번 지성소에 들어갔으며 그 안에서 무엇을 했는가? (11-20절)

A (1)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첫번째로 하는 일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는 일이었다. 이 경우 향로에 숯불을 담고 손에는 향을 따로 준비하여 들어간다.

(2) 두번째는 아론 자신(대제사장)과 그 가족을 위해 준비한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렸다.

(3) 세번째는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앞의 수송아지의 경우처럼 뿌렸다.

(4)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향을 피운 것은 향의 연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증거궤와 그 위의 속죄소를 가리워 범죄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하도록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15. Q 속죄일에 회막 전체의 기구에 피를 뿌리는 의미는 무엇인가? (14-19절)

A (1) 속죄일에는 지성소 안에서 피를 뿌렸으며 성소의 모든 기구와 회막 뜰의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다.

(2) 이것은 구약 시대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피 뿌림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보여 준다.

(3) 그러나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려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하는 길을 열었다.

(4) 따라서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며 휘장은 그의 육체였다(히 10:20).

(5) 결국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기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이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나타낸다.

16. Q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림은 무엇을 뜻하는가? (14절)

A (1) 제한되고 구별된 속죄소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간 사실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가 회복됨을 의미한다.

(2) 특히 피를 뿌린 것은 하나님의 어린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인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3) 그리고 '7'은 완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일곱 번 뿌림은 피의 희생으로 인한 완전한 속죄를 의미한다.

(4)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였고, 또한 그 안에서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17. Q 속죄일은 1년 중 어느 시기에 있었는가? (29절)

A (1) 히브리 월력으로 7월 10일이다.

(2) 7월은 히브리 월력으로 〈에다님〉이며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는 디스리 월로 불려졌다 (태양력으로는 9, 10월).

(3) 이달, 즉 7월 1일은 나팔절이 있으며 15일에는 장막절(초막절)이 있다(23:23-43).

(4) 그러므로 속죄일은 나팔절과 장막절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의 큰 절기였다.

18. Q 속죄일에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29-31절)

A (1) 속죄일에 온 백성은 금식하고 회개하여 자신들을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한다(시 35:13).

(2)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 속에는 죄를 기억하고 각성하라는 강력한 요청이 포함되어 있다(참조, 고전 9:27).

(3) 또한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며 본토인이든지 객이든지 큰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참조, 출 20:7).

(4) 결국 속죄일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새로운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날로서 백성들에게는 속죄와 구원의 날이었다.

19. Q 속죄일이 '큰 안식일'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31절)

A (1) '큰 안식일'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샤바트 샤바톤〉인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KJV, NIV, RSV) '쉴 안식일'(a sabbath of rest)로 번역되어 있다.

(2) 개역 성경 23:32에도 이 말(히, 샤바트 샤바톤)이 '쉴 안식일'로 되어 있다.

(3) 즉 속죄일이 '큰 안식일'이라는 의미는 속죄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되 안식일보다 더 엄숙하게 지켜야 하는 사실을 말한다.

(4) 결국 속죄일은 매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의 경우처럼 모든 노동을 금하고 육체의 휴식을 취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과 묵상과 회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일반적인 안식일의 경우보다 더 철저해야 하는 날로 규정되었다.

20. Q 속죄의 피를 가진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간 것을 그리스도와 비교하라.

A (1)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상징한다.

(2) 즉 대제사장이 휘장을 통하여 지성소 안에 들어간 것처럼 그리스도는 자기 육체의 휘장을 통해(죽으심과 부활)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셨다.

21. Q 지성소 안에서 행해진 분향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A (1)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中保)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것을 상징한다.

(2) 그리스도의 이러한 중보적 사역으로 우리의 죄가 가리워져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22. Q 속죄일에 속죄제물 드릴 때 염소 한 마리는 죽이지 않고 광야로 보내어 속죄 행위를 하였는데 이것이 주는 의미를 설명하라.

A (1) 한 마리는 죽여 속죄제로 제단에 드렸고 한 마리는 죽이지 않았는데, 이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히 9:22)라는 말씀과 위배되지 않는다.

(2) 왜냐하면 이미 두 마리가 한꺼번에 속죄 제물로 준비되었다가 다같이 여호와 앞에 드려졌다. 그리고 그중에 하나를 제비뽑아 피 흘려 속죄하는 것은 둘 다 죽은 것을 상징했기 때문이다.

(3) 한 마리를 살려 광야로 내어 보냄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죄 용서받은 것을 확신케 하였다. 왜냐하면 그 염소는 죄를 짊어지고 멀리 사라지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23. Q 속죄소(시은좌, 施恩座, the mercy-seat)의 영광을 보는 자가 죽임을 당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A (1)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시는 것을 의미할 때 죄인인 인간은 죽임을 당하고 만다.

(2)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얼마나 경건하며 조심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 준다. 오늘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본의(本意) 아니게 실수하는 예(例)가 많다.

(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경솔해도 괜찮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경외하는 마음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변할 수 없다.

연구자료

히브리인들의 정결 의식(淨潔儀式)

성경상에 나타난 히브리인들의 정결과 부정 개념은 단순히 위생학적(衛生學的) 측면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측면과도 중요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특히 거룩하며 완전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도덕적, 물리적인 부정은 종교적 의식을 통한 정결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제정된 것이 곧 모세의 율법에 명기되어 있는 제반 정결 의식이다(4:22-26; 5:2-10; 12:1-8). 그러나 본고(本稿)에서는 도덕적 정결 의식과 관계되는 속죄제와 속건제(贖愆祭) 같은 제사 제도에 관해서는 다루지 아니하고 물리적, 육체적인 부정과 관계된 정결 의식에 관하여서만 살펴보려 한다. 물리적, 육체적 부정 상태(不淨狀態)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정결 행위는 모세의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있었다(참조, 창 35:2; 출 19:10, 14, 15). 그러나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의식적인 규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움을 입게 됨과 더불어 생겨 났다. 이러한 규례에 의하면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들은 죽은 시체와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을 씻기 위하여 의복 및 기구들을 깨끗케 하여야 했다(민 19:11-16). 그리고 여인들은 월경 이후(15:19-33)와 출산 이후(12:1-8)에 유혈(流血)로 인한 부정으로부터 반드시 자신의 몸을 깨끗케 하여야 했다. 이 외에도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은 그 병이 완치되었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병 나음을 보이고 의식적 정결을 받아야 하였으며(14:1-20), 부정한 짐승의 시체를 만진 자는 물로 몸을 씻고 의식적 절차를 밟아야 했다(11:1-47).

결론적으로 말해서 히브리인들의 이 같은 정결 의식에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곧 이러한 의식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選民)으로서 각종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한다는 의식(意識)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제 17 장 피에 관한 규례

단락구분 1-7 짐승을 먹기 위하여 잡는 경우 / 8-9 예배의 공식 장소인 성막 / 10-16 피를 먹지 말라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3 무릇 이스라엘 집의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4 먼저 회막 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5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6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7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8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번제나 희생을 드리되
9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10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12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13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14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15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자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물론하고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16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죄를 당하리라

---

1. Q 본장의 개요와 특징을 말하라.
   A (1) 본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다.
   (2) 즉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제사를 드릴 수 없으며 회막 문 외에서는 어떤 곳에서도 짐승을 잡을 수 없으며 제사도 드릴 수 없다.
   (3) 또 한 가지는 피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생명과 동일하므로 죄를 속하는 일 이외에는 어떤 다른 목적에 사용될 수 없었다.
   (4) 이와 같이 본장은 올바르게 생축을 죽이는 방법과 희생의 본질을 다루고 있다.
2. Q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2절)
   A (1)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 내용이 정확해야 하는 동시에 그 방법 역시 정확해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말씀과 함께 방법도 제시하였다.
   (2) 그 방법은 말하기 전에 그 말씀의 근거를 밝히는 것이다. 즉 2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는 말이 선행(先行)되어야 한다.

(3) 현대 교회의 지도자들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代言者)로서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이 인간적인 말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이다.

(4) 그러나 이러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다는 확신을 가짐과 동시에 사사(私私)로운 말로 하나님 말씀을 손상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 또한 말씀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더불어 간절한 기도가 지속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갖지 않고서 자신의 말에 신적인 권위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3. Q 짐승을 회막 문으로 끌어다가 잡는 이유는 무엇인가? (4,5절)

A (1) 제사드릴 희생 제물 뿐만 아니라 고기를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경우에도 회막 문 안에서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이것은 당시 들귀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금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3) 즉 짐승을 회막 문에서 잡아 먼저 그 기름과 피를 여호와께 드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4) 만약 회막 문 이외의 다른 곳에서 짐승을 도살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살인자로 취급되었다.

(5) 성도는 일터에서 수고하여 얻은 물질을 먼저 감사함으로 주께 드리는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일심(一心)을 보여 드릴 수 있다.

4. Q 하나님은 왜 회막 문에서만 짐승을 잡는 제도를 제정하셨는가? (4절)

A (1) 이 제도가 제정되기 전에는 백성들이 어느 곳에서나 짐승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성립됨으로써 그들은 이러한 자유를 상실한 것이다.

(2) 그러나 이 제도는 일시적인 불편함이 갖는 부정적인 면보다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유익이 훨씬 많았다.

(3) 만약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이 입회(立會)하지 않고 짐승을 잡는다면 그들이 이 짐승을 이용해서 우상을 숭배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그들은 짐승으로 우상을 숭배하던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다.

(4) 하나님은 이러한 종교적인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불편한 점이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제정하신 것이다.

(5) 오늘날 법치 국가(法治國家)에서 생활을 규정하는 법이 없다면 일시적으로는 편할지 모르나 곧 무질서로 인한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즉 법이 있음으로 해서 겪어야 하는 불편이 주는 부정적인 면보다 법이 주는 유익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법의 유용성(有用性)이 있는 것이다.

(6)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오랜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굳어진 규례나 성도의 신앙 향상을 돕기 위하여 제정된 법규는 존중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것이 무시된다면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가 손상받기 쉽다.

(7) 그러나 주의해야 하는 점은 이러한 규례나 법규가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보다 우선(優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규례나 법규는 기독교의 진리를 보호하고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8) 이것은 회막 문에서 짐승을 잡는 제도가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임과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성도들도 교회에서 지키는 제도가 포함하고 있는 진리의 일면을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약간의 불편함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이다.

5. Q 우상 숭배를 간음으로 비유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7절)
A (1) 하나님은 흔히 당신과 당신이 택한 백성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셨다(아 4:12; 사 62:5).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순결이다.
(2)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순결이 필요한다. 순결하지 못한 여자가 신부로서 자격이 없듯이 영적으로 순결하지 않은 자는 영적 신부가 될 수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영적 간음, 즉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 많이 나온다. 성경은 이들을 음부(淫婦)로 규정한다(삿 2:17; 대상 5:25; 시 106:39; 겔 6:9; 호 4:12).
(4) 오늘날 성도들도 내면적인 음행을 저지르는 때가 많다. 비록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생활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그는 이것들에 의해 몸이 더럽혀진 자이다. 즉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음부인 것이다(약 4:4).
(5) 이제 몸을 깨끗이 하며 단정한 신부의 모습을 하고 주 앞에 서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난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대우해 주실 것이다.

6. Q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는 무엇을 말하는가? (7절)
A (1) '음란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조님〉인데 '매춘 행위를 하다', '창녀와 지내다'라는 말에서 나왔다.
(2)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 일체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매춘 행위로 간주되었다(참조, 약 4:4).
(3) 여기서의 수염소는 당시 이방 신인 들귀신을 의미하며 고대 근동의 풍요와 다산(多産)을 비는 음란한 우상 숭배를 나타낸다.
(4)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수염소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 들에서 짐승을 잡을 때는 고기의 일부를 들귀신에게 바치기도 했었다.
(5)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 숭배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짐승을 잡을 때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회막 문에서 잡아야 할 것을 명하신 것이다.
(6) 성도들은 사전에 시험에 빠질 만한 사람이나 장소를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이다(참조, 살전 5:22).

7. Q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0-12절)
A (1)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2) 또한 피는 죄를 속하는 일에만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 그리고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며 장차 이 피를 통하여 믿는 자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참조, 계 1:5; 5:9; 7:14; 12:11).
(4) 또한 생명의 존중함을 가르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다.

8. Q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는 명령의 목적은 무엇인가? (13절)
A (1) 첫째는 생물의 영혼을 담고 있는 피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 둘째는 그것을 미신적으로 또 우상 섬기는 데 사용하여 욕되게 함을 막으려고 함이다.

9. Q 출애굽 사건과 성막의 준공,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임재 등 놀라운 기적을 집중적으로 체험한 광야 생활 중에도 일부 백성이 우상 숭배의 악습을 버리지 못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라.
A (1) 그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얼마나 철저히 물들어 있었는가를 잘 말해 준다. 이것은 나쁜 환경이 가져다 주는 결과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2)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음을 보여 준다. 인간 깊숙한 곳에 자리잡고 있는 죄의 성향(性向)은 계속해서 악을 좋아하며 선(善)을 행하는 일로부터 멀어진다. 한편 바울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후에도 언제나 자신의 부패한 죄의 성향(性向) 때문에 고민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심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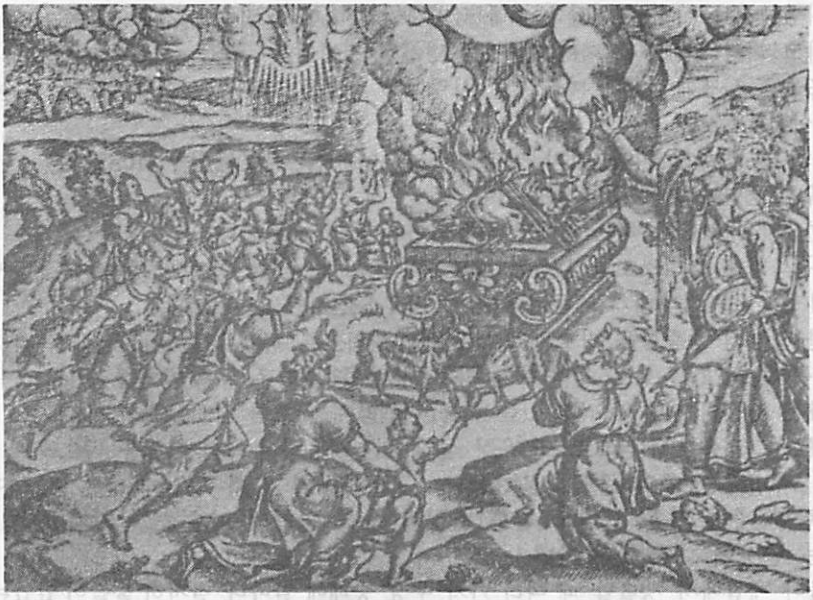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롬 7:24, 25)는 말씀에 잘 나타나 있다.

(3)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언제나 죄의 유혹 아래 놓여 있음을 명심하고 늘 깨어 기도하는 자세로 근신(謹愼)하며 살아야 한다. 이러한 삶은 순간적인 능력과 기적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계시(啓示)해 놓으신 말씀(성경)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4) 한편 원수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단을 하려 할 때 더욱 날뛰며 사악한 능력을 나타내 약한 자들을 미혹하기 마련이다(막 13:22). 또한 사단도 거짓 영으로써 신기한 일을 보이며 진리가 아니라 능력을, 구원이 아니라 순간적인 쾌락을 누리는 자들을 더욱 미혹한다. 인류 역사 이래 세계 곳곳에서 사악한 악령 숭배가 하루도 그칠 날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요일 4:1; 벧전 5:8).

화보자료

번제(燔祭)를 드리는 히브리인들. 아래의 사진은 「성경 이야기의 사람들」에 나오는 그림이다.



번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연기나 불꽃이 위로 올라가게 하다'라는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자발적인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로서 수송아지나 수양, 수염소, 비둘기 등이 제물로 사용되었다(3절).

제 18 장 성(性) 윤리에 대한 규례

단락구분 /1-5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좇지 말라 /6-8 각종 근친 상간의 금지 명령 /9-19 월경 중인 여자와의 성교 금지 /20 간통 금지 /21 몰렉 제사 금지 /22 동성 연애 금지 /23 수간(獸姦) 금지 /24-30 명령에 대한 순종과 그에 따른 상과 벌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3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4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5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6 너희는 골육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7 네 어미의 하체는 곧 네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네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8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네 아비의 하체니라
9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비의 딸이나 네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하였음을 물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10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의 하체니라
11 네 계모가 네 아비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12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아비의 골육지친이니라
13 너는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어미의 골육지친이니라
14 너는 네 아비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백숙모니라
15 너는 자부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아들의 아내니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16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네 형제의 하체니라
17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취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들은 그의 골육지친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18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형제를 취하여 하체를 범하여 그로 투기케 하지 말지니라
19 너는 여인이 경도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20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21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케 말아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22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23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24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 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25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26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의 하나도 행하지 말라
27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28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29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30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좇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

1. Q 본장의 중심되는 내용을 말하라.
A (1) 본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선택된 백성들의 일상 생활에서의 규례가 언급된다. 즉 지금

까지는 의식적(儀式的)인 율법들이 하나의 모형으로서 소개되었으나 여기서부터는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규례들이 소개된다.

(2) 특히 본장에는 성 윤리에 관한 규례가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3) 성에 관한 문제가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성적 타락이 모든 윤리의 무너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 Q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3절)

A (1) 히브리인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풍속에 익숙해 있었다. 그러나 애굽의 문화는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에 젖은 문화였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합당치 않은 풍속이었다.

(2) 그러므로 애굽의 풍속은 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성적 순결에 위배되므로 엄격히 금한 것이다.

(3)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날 죄악에서 벗어난 성도들의 모형으로 볼 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좇았던 세상 풍속을 버려야 한다(참조, 엡 4:22).

3. Q 왜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는가? (3절)

A (1)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은 우상 숭배와 더불어 음란한 성적 행위가 극에 도달해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풍속에 쉽게 물들 염려가 있었다.

(2)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직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의 풍속을 좇지 말라는 경고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성실히 준행할 것을 요구하셨다.

(3) 또한 가나안 땅의 풍속을 좇지 말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능하게 될 것임을 나타낸다.

4. Q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4절)

A (1) 하나님만이 유일하셔서 만물을 주장하시고 그의 택한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권능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말씀이다.

(2) 이방 풍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적극적으로 지켜 행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별되었다.

(3)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한 주권적 섭리로 된 것이다.

(4)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나타낸다.

(5)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시련을 극복할 힘을 공급하시고, 악한 자의 올무에서 건져 내시며 영원한 나라를 보장해 주신다(참조, 시 18:1, 2; 23:1-6).

5. Q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의 축복은 무엇인가? (5절)

A (1)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당연한 신앙이며 의무이다.

(2)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경우에는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3) 이 축복은 당대의 물질적인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영생의 축복을 가리킨다.

(4)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교훈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롬 10:5).

(5) 그러므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축복만을 위해 교회에 다니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다.

6. Q 골육지친(骨肉之親)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의미와 교훈은 무엇인가? (6절)

A (1) 히브리 성경 원문에 나타난 '골육지친을' 에 해당하는 말은 〈엘-콜-쉐에르-베사로〉인데 '그의 살(육체)의 모든 친척에게' 라는 뜻이다.

(2) 또한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의미는 성적 행위, 즉 성교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

(3) 결국 직계와 방계(傍系)의 가까운 친척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교(sexual intercourse)는 절대로 금지되었으며 만약 이러한 성교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저주받을 범죄로 간주되었다(신 27:23)

(4)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성적 질서와 순결을 통하여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영적 순결을 가르치셨다.

7. Q 성적 생활에 있어서 성교를 금해야 할 골육지친의 대상은 누구인가? (6-18절)

A (1) '어머니' 의 하체(下體)는 곧 아버지의 하체이므로 엄격히 금지되었다.

(2) '계모' (繼母)의 하체도 아버지의 하체로 취급되어 금지되었다.

(3) '자매' (姉妹) 곧 아버지가 낳은 모든 딸과의 성적 행위는 금지되었다.

(4) '손녀나 외손녀' (外孫女)의 경우도 금지되었다.

(5) '배 다른 자매', 즉 계모가 아버지로부터 낳은 여자들도 골육지친이다.

(6) '고모' (姑母)는 아버지와 같은 혈통이므로 금지되었다.

(7) '이모' (姨母)는 어머니의 골육지친이므로 금지되었다.

(8) '백숙모' (伯叔母), 즉 큰어머니와 작은어머니는 아버지의 형제들의 아내이므로 금지되었다.

(9) '자부' (子婦), 즉 며느리는 아들의 하체이므로 골육지친으로 간주되었다.

(10) '형수(兄嫂)나 제수(弟嫂)', 즉 형제들의 아내는 형제와 같은 골육지친으로 취급되어 성 행위가 금지되었다. 그러나 계대 결혼의 경우에는 형제가 다른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줄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참조, Q 9).

(11) '계모가 데리고 온 딸이나 계모의 손녀딸과의 성적 행위도 금지되었다.

(12) '처제(妻弟)나 처형(妻兄), 즉 아내의 형제들과의 성적 행위도 그 아내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엄격히 금지되었다.

(13) 위와 같은 하나님께서 골육지친과의 성 행위를 금지시키신 목적은 가정의 질서와 성 윤리를 확립시켜 하나님과 백성과의 영적 순결을 교훈하시기 위한 것이다.

(14)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며 질서와 화목을 중하게 여기는 분이시다.

8. Q 성적 생활의 제재와 질서는 어느 한 민족에게 국한된 것인가? (6절)

A (1) 성적 생활의 제재에 대한 규례는 모든 민족이 지켜야 할 보편성을 띤 것이다.

(2) 이것은 성 윤리로서 십계명 가운데 제 7계명을 넓은 의미에서 이해한 것이다.

(3) 그리고 이러한 규례들은 신약 시대에 와서도 그 효력을 지녔다.

(4) 이와 같은 성 윤리와 제재는 인류가 이 지구상에 있는 동안 어느 장소, 어느 민족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9. Q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는 규례와 계대 결혼(繼代結婚)과의 관계를 말하라 (16절).

A (1) 형이나 동생의 아내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이 규례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2) 그러나 결혼한 형제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는 남은 형제 중의 하나가 미망인(죽은 형제의 아내)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도록 해야 하는 풍습이 있었다.

(3) 이러한 제도를 계대 결혼(繼代結婚)이라고 하는데 형제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존속

되도록 하는 규례로서 모세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다(신 25:5-10).

(4) 그러므로 형제의 하체를 범치 말라는 이러한 엄격한 규례는 계대 결혼(levilate marriage)의 경우가 아닐 때에만 적용된다.

(5) 하나님의 모든 법은 언제나 그의 넘치는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인간의 삶을 더욱 성결한 방향으로 이끈다.

10. Q 비정상적이며 정욕에 이끌려 행음하는 경우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19-23절)

A (1) 월경 중의 여자와 성 행위를 하는 자는 정욕에 이끌린 자로 간주되었으며 또한 부정한 죄악을 범한 자로 취급되었다(19절).

(2) 다른 사람의 아내와 통간(通姦)하는 자는 자신을 더럽히는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나타난 결혼 질서를 파괴한 것이 되어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범법자로 취급된다(20절).

(3) 자녀를 몰렉(Molech) 신에게 주는 행위는 성적 타락을 유발하는 우상 숭배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무서운 범죄 행위이므로 엄격히 금지되었다(21절).

(4) 남색(男色)하는 자는 정욕에 이끌려 비정상적으로 남자끼리 교합(交合)하는 자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었다(22절; 롬 1:26, 27).

(5) 사람이 짐승과 성적 관계를 갖거나 특히 여자가 짐승과 교접(交接)하는 일은 자연 법칙에도 어긋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된 행위로서 무서운 죄악으로 간주되었다.

(6) 결국 정상적인 성 행위 이외의 모든 비정상적이고 정욕적인 성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7) 그러므로 무분별한 성적 관계가 만연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재촉하고 있는 실정이다.

(8) 성도들은 올바른 성경적 성 윤리관을 확립하여 성적 타락으로 인한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힘써야 한다(참조, 롬 7:3; 호 3:3; 골 3:9).

11. Q 성경에 나타난 성 범죄의 유형은 무엇인가? (6절)

A (1) 가장 대표적인 간음의 형태로는 본장에 나와 있는 성적인 부정 행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본장에는 골육지친, 즉 근친(近親)과 갖는 성적인 행위를 간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6-18절).

(2) 또한 비정상적인 대상과 더불어 성 관계를 갖는 것도 정죄된다. 본장에는 경도하는 여자, 타인의 아내, 동성, 짐승과 성 관계를 갖는 것이 금지되었다(19-23절).

(3) 또한 음행(淫行)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그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었다(마 5:32).

(4) 정당한 사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재혼하는 행위는 간음으로 규정되었다(마 19:9; 막 10:12). 뿐만 아니라 이혼당한 자와 결혼하는 것도 금지되었다(마 5:32; 눅 16:18).

(5) 그러나 그리스도는 결혼 상대자 외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을 간음과 동일시하고 있다(마 5:28). 즉 그리스도가 제시한 윤리의 기준은 행위가 아니라 인간 속에 잠재해 있는 마음인 것이다.

12. Q 성경은 간음 혹은 타락한 성 행위의 결과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29절)

A (1) 성경에는 부정한 성 행위를 금하는 규례와 더불어 그 규례를 어겼을 때 받게 되는 형벌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2) 성적인 범죄자는 피해자의 복수로 상함과 능욕의 수치를 당하게 된다(잠 6:33-35). 재물의 피해자는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으나 성적인 피해를 받은 자는 보상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흔히 성적인 범죄 후에는 복수가 뒤따른다.

(3) 성적인 타락은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온다(잠5:10;29:3).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과 같아서 여기에 한 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기 힘들게 되며(잠22:14;23:27) 마침내 재산을 탕진(蕩盡)하고 만다. 이러한 예는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4) 음녀와 가까이 하는 자는 존영(尊榮)을 잃게 된다. 그는 인간에게 조소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낮추신다(잠5:8,9;고후12:21). 또한 교회에서는 축출당하게 된다(고전5:1-13).

(5) 이런 자는 생명 길을 얻지 못하며(잠2:16-19), 마지막에 한탄하게 되고(잠5:11-15),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벧후2:9,10,14).

13. Q 하나님은 성 범죄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를 금하는 명령을 하셨다(21절). 이러한 사실이 주는 교훈을 성경의 다른 부분과 비교하여 찾아 보라.

A (1) 성경에는 육체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 즉 우상 숭배를 대비(對比)시켜 비교한 곳이 많다. 이것은 육체적인 지조(志操)를 버리고 간음하는 것과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변하는 것 사이에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2)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사사(士師)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음란으로 묘사되었다(삿2:11,17). 이와 유사한 예는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이스라엘 회중의 영적인 타락을 징계한 것에도 나타난다(호1:2,3).

(3) 신약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세속주의(약4:4)와 교회 내의 잘못된 가르침에 따르는 자를 간음하는 자로 묘사했다(계2:14,15).

(4) 세상의 남편들이 간음한 아내를 싫어하듯이 하나님 역시 영적으로 행음하는 그의 백성을 용납치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행위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는 자에게는 자비로우신 행동을 취하신다(눅15:11-32).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 범죄, 우상 숭배 뿐 아니라 세상 연락(宴樂)에 빠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간음 행위임을 깨달아야 한다.

14. Q 본장에 묘사된 당시의 성 풍속도(性風俗圖)와 오늘의 현실을 비교하여 보라.

A (1) 성적인 범죄는 동서 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있어 왔다. 그런데 부정한 성 습관이 보편화되면 그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 본장은 가나안인이 망한 원인이 여기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2) 로마 제국의 멸망은 외적(外敵)의 침입 때문이 아니라 내부적인 도덕의 타락 때문이었다는 사가(史家)들의 지적은 이러한 면에서 옳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매일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다.

(3) 오늘날을 3S시대라고 표현하는 사회학자가 있다. 소위 섹스(sex), 스포츠(sports)와 스크린(screen)의 확장(T·V, VTR, 영화)을 지칭하는 말이다. 과거에는 섹스가 밀폐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진행되었으나 현대에는 공개적으로 취급되고 있어 현실의 부패성을 잘 보여 준다.

(4) 성(性)의 공개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성의 사용도 오늘날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이다. 이제 이러한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가(史家)들의 증거을 적용시켜 볼 때 가히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5)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성적인 타락이 극심했던 소돔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던 하나님이 오늘날 이 도시에서도 의인을 찾고 계신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

(6) 요즈음 우리 주변에 '포르노' 필림(해괴 망칙한 성 행위를 찍은 필름)이 성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종종 나온다. '포르노'라는 말은 본래 헬라어의 〈포르노스〉라는 말에서 나

왔는데 음행, 간음, 행음, 음란 등의 뜻이다. 그러므로 포르노 필림이 매매되고 있다는 사실은 음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7) 우리의 도시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다. 그러나 성적인 타락은 더욱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과연 교회가 제 역할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8) 이제 나 자신을 돌아보자. 나는 이런 현대의 풍속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았는가? 당당히 '예'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럼 다시 물어 보자. 나는 과연 썩어가는 이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중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창 18:32; 약 4:7; 요일 2:16; 5:4)

연구자료

원어(原語)에 의해 분류되어지는 죄의 종류(구약)

원어	뜻	구분	성경 귀절
아온	부정 불법 죄악	악을 행함에 있어서의 그 내용적 측면을 강조	출 20:5 왕상 17:18
아솸	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및 반역	대하 19:10 호 4:19
아쉬마	허물 과실	하나님과 관계되는 죄	대상 21:3 스 9:7
하타	과오 실수	정도(正道)를 벗어나는 것	창 4:7 욥 10:6
하타트	죄	과실(過失)을 뜻함	출 10:17 단 9:24
헤트	범죄 과오 실수	패역(悖逆)한 죄	민 35:31 사 38:7
리스아	죄	죽임을 당할 죄	민 35:31 신 25:2
로아흐	악행	사악한 행위	시 28:4 렘 23:2
레야으	악 죄	신적(神的), 도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불의	삼상 24:13 잠 4:17
페아	침해 위반 범죄	하나님에 대한 거역	수 24:19 겔 18:30

제 19 장 선택된 백성의 법도와 사회 규범

단락구분 *1-8*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법도 / *9-18* 인간과 인간 사이, 즉 선택된 백성의 사회 생활 / *19-37* 여러 가지 금지 조항들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3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4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5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열납되도록 드리고
6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 삼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7 제 삼 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열납되지 못하고
8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9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10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 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1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12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13 너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군이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14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15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호 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16 너는 네 백성 중으로 돌아 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17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18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19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20 무릇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혼한 씨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은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음이라
21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를 곧 속건제 수양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어 올 것이요
22 제사장은 그의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의 범한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23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삼 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24 제 사 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25 제 오 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26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 채 먹지 말며 복술을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27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28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29 네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30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

는 여호와니라
31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32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33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34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35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36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힌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37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

1. **Q 본장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A (1) 본장에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일상 생활에 있어서 지켜야 할 규범과 법도가 언급되어 있다.
   (2) 특히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진실과 자비에 근거한 윤리 그리고 행동의 도덕적 원칙 가운데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3) 이와 같이 본장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일상 생활 가운데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4)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살 때에만 가장 성결된 삶을 살 수 있다.
2. **Q 본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2절)**
   A (1)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2) 본래 '거룩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다쉬〉인데 '구별된다', '분리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3)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언급되고 있다(참조, 출 15:11; 삼상 2:2; 사 57:15; 호 11:9).
   (4) 이러한 거룩함은 먼저 도덕적인 악, 즉 죄와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의 윤리적 성(聖)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5) 그러나 이와 같이 죄와 분리를 뜻하는 소극적인 거룩함 외에 적극적인 것, 즉 하나님의 도덕적 초월성 및 윤리적 완전성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6)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받은 성도들의 생활은 마땅히 거룩해야 한다. 이 거룩은 음성이나 표정이나 그 걸음거리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보다 무흠한 삶, 다시 말해 윤리·도덕적으로 정결한 생활의 모습이다(참조, 고후 7:1; 엡 4:24).
3. **Q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3절)**
   A (1)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 7 일 되는 날 쉬신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계명으로 인해(출 20:8) 지키기 시작한 것이다.
   (2) 이와 같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속한 것이며 아울러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명령으로서 지역이나 시대를 초월한 제도이다(창 2:1-3; 출 16:23-30).
   (3) 이러한 안식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쉼을 의미한다. 즉 6일간 창조의 작업을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신 것이다.
   (4) 이 안식에는 노동에 대한 중단과 새 힘을 얻기 위한 휴식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5) 그러므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6일 동안 힘써 일한 후의 휴식과 그 휴식을 통해 하나님을 힘써 찬양함으로 새로운 힘과 지혜를 공급받는다는 것이다(참조, 출 20:8-11).
   (6) 따라서 이날에는 세상에 속한 오락을 금하고 성일(聖日)로 지켜야 한다(사 58:13).
4. **Q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에 나타난 교훈은 무엇인가? (3절)**

(1)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과 성도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은 서로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규정되고 있다.

(2)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겠는가?(요일 4:20)

(3) 부모를 섬기는 일이 하나님 섬기는 일과 같은 수준의 종교적 율법이라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도 관계되고 있다.

(4) 결국 안식일을 지키는 근본 목적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거룩함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부모를 공경하는 근본 목적도 부모에 대한 감사와 깊은 애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참조, 출 20:12; 신 5:16).

5. Q '헛 것을 위하지 말며'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4절)

A (1) 여기서 '헛 것'에 해당하는 원어는 〈에리트〉인데 '아무것도 아닌'이란 뜻에서 유래된 말로서 '무가치한 것'을 가리킨다.

(2) 공동 번역과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우상'(idol)으로 번역되어 있다.

(3) 우상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 중의 하나이다.

(4)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헛 것'을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돈, 권력, 섹스(sex) 등을 추구하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는 자들은 모두 우상 숭배자들과 동일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 자들이다(참조, 딤전 4:7; 6:10; 딤후 3:2).

6. Q '화목제 희생을 드릴 때 열납되도록 드리라'함은 무슨 뜻인가? (5절)

A (1) '열납되도록'이란 말이 개역 성경과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으로 번역되었으며, 영어 성경에서는 '네 자신의 뜻으로' 혹은 '자원(自願)하여'라는 의미로 번역되었다(KJV, at your own will).

(2) 제사는 강요되어짐으로 드려서는 안 되며,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 아래 드려야 한다(1:3; 22:19, 21, 27, 29).

(3) 제사가 자원(自願)하는 심정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교훈은 출 35:21; 36:3; 신 16:10; 고후 8:3; 벧전 5:2 등 신·구약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제사드리는 자의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이다(삼상 15:22).

(4) 이러한 성경의 교훈은 자신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야 하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해당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는 삶을 사는 것은 그분의 요구 때문이며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즉 열납되는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롬 12:1).

(5) 그러므로 오늘날 복받기 위해 드려지는 헌금의 내용과 종류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근본 목적에 어긋난다.

(6)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헌금)은 감사와 찬양과 신앙의 표현으로 겸손하게 드려져야 한다.

(7) 만약 감사 헌금을 복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것은 뇌물(賂物)에 불과하다(참조, 고후 9:7).

7. Q 화목 제물을 먹는 규례는 어떠한가? (6-8절)

A (1) 화목 제물 가운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고기는 제사드리는 당일에만 먹을 수 있다.

(2) 즉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고기는 드리는 당일에 먹을 수 있으며 고기가 남을 경우에는 그 이튿날 불에 태워 없애 버려야 했다.

(3) 또한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로 드려진 화목 제물의 고기는 제사 드린 당일과 그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으며 제 3일에 남은 고기는 불살랐다.

(4) 만약 감사함으로 드린 화목 제물의 고기를 이튿날에도 먹거나 서원 및 자원제의 고기를 제 3일까지 먹게 되면 여호와의 거룩성을 파괴한 범죄자로 간주되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8. Q 떨어진 이삭과 포도원의 남은 열매를 버려 두라는 교훈은 무엇인가? (9, 10절)

A (1)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의 삶의 규범에 관한 한 단면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다.

(2) 즉 이 부분의 규례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그리고 자비에 근거한 이웃 사랑의 실천적 규범으로서 삶의 행동 원리이다.

(3)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뜨거운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 이시기 때문이다(요일 4:8).

(4)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에 성도들의 삶의 관심도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

(5)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의 광채를 오늘도 나타내시기 때문에 나(성도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 빛을 받아 반사하는 삶의 윤리가 나타나야 한다.

(6)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는 축복의 삶에로 우리 자신을 이끌어 간다는 진리가 평범한 일상 생활을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힘써야 한다(약 2:13)

9. Q 도적질과 거짓말이 같은 차원에서 소개되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1, 12절)

A (1) 도적질을 금하는 명령은 십계명의 제 8계명이며 거짓말을 금하는 명령은 제 9계명으로 언급되어 있다.

(2) 이 두 가지 계명은 인간이 모든 일에 정직해야 할 것을 말해 준다.

(3)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며 고통을 준다는 의미에서 도적질과 거짓말은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과 불신앙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4) 뿐만 아니라 도적질과 거짓말의 결과는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조장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에서 벗어난다(참조, 엡 4:25, 28).

10. Q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품군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라'는 의미와 교훈은 무엇인가? (13절)

A (1) 예로부터 강자가 약자 위에서 군림하며, 그들을 이용해서 더 큰 힘을 쌓아 온 일이 많다. 이와 같은 일은 과거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2)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엄히 금지하신다(약 5:4). 이러한 경제적인 부조리는 사회 조직, 즉 봉건 사회라든지 자본주의라든지 하는 문제에 귀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부패한 인간성에 기인한다.

(3) 오늘날 자유 경쟁을 하며 개인의 경제 행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 시점에도 이러한 것은 여전히 문제의 쟁점이 된다. 우리의 주위에 노사(勞使) 간의 분쟁이 얼마나 많으며 임금(賃金)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가.

(4) 특히 13절에 언급되어 있는 체불(滯拂)은 노사 문제의 큰 쟁점(爭點)이다.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 성경은 고용주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신 24:15; 엡 6:9; 골 4:1).

(5) 오늘날 성도가 기업을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기업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끌 책임이 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용주가 지켜야 할 정신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며, 자신은 단순히 그것의 관리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참조, 눅 12:43-48).

(6)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가 갖는 구조적인 모순 역시 시정(是正)되어야 한다. 개개인의 능력에 따른 부(富)의 편중(偏重)은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러한 모순은 구조적으로 부의 편중을 막으며 사회 보장 제도를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7) 성도는 경제적인 약자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며 그들을 위한 사회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이것은 약자의 친구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늘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참조, 엡 6:5-9).

11. Q '늑탈하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13절)

A (1) '늑탈(勒奪)한다'는 말은 원어의 〈가잘〉에서 나왔다. 이 말의 뜻은 '가죽을 벗기다', '찢어 내다' 등이다.

(2) 즉 폭력이나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거나 가로채는 것을 의미한다.

(3)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시고 약자를 돕고 보호하는 사실을 통하여 당신의 긍휼을 깨닫도록 교훈하셨다(참조, 약 2:5).

12. Q '사람을 논단(論斷)하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16절)

A (1) '사람을 논단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여 모략하고 중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이것은 남의 허물을 들추어 내어 공개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포함되는데 성도들은 남의 허물을 덮어 주는 진실한 이웃 사랑에 앞장서야 한다.

(3)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離間)하는 자이다(잠 17:9).

(4)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면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광이다(잠 19:11; 약 1:19).

13. Q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규례는 신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18절)

A (1) 이 규례는 하나님 섬기는 규례 다음으로 중요한 율법의 대강령이다(마 19:19; 22:39).

(2) 즉 인간에 대한 모든 율법의 성취를 나타내는 말로 이 교훈이 강조되어 있다(롬 13:9; 갈 5:14; 약 2:8).

(3)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계명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며 성경 전체의 교훈을 잘 요약하고 있는 말이다.

(4)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랑하면서 이웃을 멸시하고 이웃에게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며 모독하는 죄악을 범하는 자들이다(참조, 잠 11:12; 13:13; 눅 18:9; 고전 16:11).

14. Q 정혼한 씨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어떻게 되었는가? (20절)

A (1) 두 사람이 모두 형벌을 받았다.

(2) 이 경우 남자는 수양을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속죄를 받는다.

(3) 하나님께서는 성적인 부정(不貞)을 절대로 용납치 않으셨다.

(4) 성 관계는 생명의 창조라는 면에서 신성한 행위인데 이것을 쾌락의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삼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로 그 죄악에 대해서는 징벌을 면치 못했다.

(5) 남자가 남편 있는 여자와 통간했거나 약혼한 처녀와 통간(通姦)했을 경우 두 사람은 사형을 당하였다(20:10).

(6) 그러나 약혼한 처녀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간하였을 경우에는 남자만 죽임을 당하였다(신 22:25-27).

15. Q 이방인들의 미신적 관습을 금하는 규례는 무엇인가? (26-28절)

A (1) 이방인들처럼 피를 먹지 말라: 이방 우상 숭배자들은 피를 먹음으로써 귀신들과 교제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2) 복술 및 술수를 금하라: 이러한 행위는 일종의 점치는 행위로서 미신적 사고(思考)에 의한 귀신과의 교제 현상이다.

(3) 몸차림이나 형상에 있어서 이방인들처럼 미신적인 관습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

온 모든 면에 있어서 불신자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성도가 불신자의 외형적인 모습을 흉내낸다면 그것은 곧 타락에로의 일보 전진이다.

(4) 하나님은 의식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정결을 요구하신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 가운데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고 구분 지을 영역은 없는 것이다. 학교, 가정, 교회, 써클, 직장 등 우리가 호흡하는 현장에서 성도는 거룩해야 한다.

16. Q '음풍'이란 무엇인가? (29절)

A (1) '음풍'(淫風)이란 말은 육체적인 음란, 즉 성 도덕의 타락 현상이 강력하게 퍼지는 것을 나타낸다.

(2) 이와 비슷하게 영적 타락인 우상 숭배 현상도 주위에 미치는 현상이 대단히 큰 것을 상징한다.

(3)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교훈하였다(살전 5:22).

17. Q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32절)

A (1) 노인을 공경하라는 의미를 통하여 모든 윗사람을 존경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

(2) 노인을 공경하는 인간의 기본적 윤리 구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 윤리에서 그 근본 의미와 교훈을 발견해야 한다(참조, 잠 14:27; 16:31; 19:23).

(3)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노인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4) 이러한 현상은 각 가정에서의 신앙적 타락과 핵가족화로 인한 이기적인 삶의 추구에서 비롯된 아주 나쁜 결과이다.

(5)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은 훌륭한 예의 범절을 낳게 한다. 불신자들 앞에서 참된 신앙 인격을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삶이다.

연구자료

성(性)에 관한 여러 유형(類型)의 범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 제도를 벗어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여러 죄악들이 지적되어 있다. ① 먼저 간음(姦淫)의 죄이다. 이것은 어떤 남자가 처녀를 범했을 경우 처녀의 아버지께 은 50세겔을 주어야 하며 또한 그녀를 아내로 삼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죄악이다(신 22:28, 29). ② 이보다 더 심한 죄는 간통(姦通)이다. 통간한 남자와 유부녀는 모두 죽이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다(신 22:22). ③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한 죄악은 짐승과 성 관계를 갖는 일이다(출 22:19). 이것은 사람을 짐승의 차원으로 끌어 내리는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수간(獸姦)이라고 불린다. ④ 이 외에도 찾아볼 수 있는 죄는 동성(同性) 사이에서 행해지는 성 관계이다(18:22). 고대 그리이스와 로마에서 만연(蔓延)하였던 이러한 악행들이 오늘날에도 자행되고 있음은 하나님의 명령(엡 5:3, 4)과 경고를 업신여기는 말세의 세태를 잘 반영하고 있다.

제 20 장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들

단락구분 *1-5* 우상 숭배하는 죄 / *6-8* 복술(卜術)을 행하는 자의 죄 / *9* 불효의 죄 / *10-21* 여러 가지 경우의 간음죄 / *22-27* 선택된 백성으로서 거룩하라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우거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3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4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체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5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6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7 너희는 스스로 깨끗케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8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케 하는 여호와니라
9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0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1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2 누구든지 그 자부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3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4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15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16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7 누구든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여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그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 죄를 당하리라
18 누구든지 경도하는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19 너의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골육지친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 죄를 당하리라
20 누구든지 백숙모와 동침하면 그 백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이 그 죄를 당하여 무자히 죽으리라
21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이 무자하리라
22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치 아니하리라
23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 내는 족속의 풍속을 좇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므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24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25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26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27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 Q 본장의 개요와 특징을 말하라.

A (1) 본장은 18,19장에 이미 언급되어 있는 율법을 어겼을 경우의 그 징벌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다.

(2) 특히 우상 숭배의 죄악과 성적인 범죄에 대한 징벌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죄악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가증스러운 범죄 행위였다.

(3) 결국 본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2. Q '자식을 몰렉에게 준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절)

A (1) 몰렉은 암몬 사람들의 국가 신(國家神)이다.

(2) 몰렉 신의 모습은 황소의 머리를 한 사람의 형상이다.

(3) 이 몰렉 신은 두 팔을 앞으로 뻗고 있는데 이는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아이를 받기 위한 것이다.

(4) 결국 자신을 몰렉에게 준다는 의미는 몰렉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 행위이다.

(5) 성경에서 몰렉 숭배의 으뜸가는 장소는 힌놈 골짜기의 도벳(topheth)이었다. 그리하여 힌놈 골짜기를 '자녀들의 골짜기' 또는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불렀다.

(6) 이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7) 요시야 왕은 개혁을 단행할 때 몰렉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했다(왕하23:10).

3. Q 몰렉 신을 섬기는 자에 대해서는 어떤 형벌이 주어졌는가? (2절)

A (1)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이 가해졌다.

(2) 돌로 쳐죽이는 것은 일종의 공개적인 사형을 의미했으며 구약 시대의 형벌의 일종으로서 히브리 사회에 유포(流布)된 사형 방법이다.

(3) 스데반은 박해자들의 돌에 맞아 순교하였으며(행 14:19) 그 이전에 예수께서도 유대인들에 의해 돌로 맞을 뻔하였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 형벌을 악용한 예이다.

4. Q 몰렉 우상을 섬기는 자를 방조(幇助)하게 되면 목격자들은 어떤 형벌을 받았는가? (4,5절)

A (1) 몰렉 우상 숭배하는 자를 죽이지 않고 묵인할 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자들은 우상 숭배한 자와 동일한 형벌을 받고 백성 중에서 끊어짐을 당하였다.

(2) 이러한 규례가 주는 교훈은 오늘날의 성도가 죄 많은 세상에서 도피하고 사회 부조리에 대해 침묵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개입(介入)할 것을 보여 준다.

(3)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구원)을 선포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을 선언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4)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고 말씀(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요3:18).

5. Q 본장에서는 범죄자를 방관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4절)

A (1)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결코 용납치 않으시고 징벌하신다(신 8:5).

(2) 하나님은 죄를 짓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방관(傍觀)하는 자도 역시 징계하신다.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인간은 그 이웃이 범하는 잘못에 대하여도 연대(連帶)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3) 우리는 죄를 행하는 자를 적극적인 범죄자로, 또한 죄를 방관하는 자를 소극적인 범죄자로 규정할 수 있다. 오늘날 성도들이 범하기 쉬운 죄는 소극적인 범죄이다. 즉 자

신이 범죄에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조금만 노력했으면 막을 수 있는 범죄를 방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4) 이러한 죄는 자신의 마음에 직접 와 닿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하여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간과(看過)하지 않으시며 기억하신다.

(5) 따라서 성도들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며(살후 3:13), 각자의 주변에 있는 범죄의 요소를 없애고, 간접적인 범죄까지 두려워해야 한다.

6. Q 거룩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8절)

A (1) 거룩의 근원은 하나님이며 인간이 거룩하게 되는 근거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다.

(2) 즉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피조물과도 구별되시며 이렇게 구별된 자체가 거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특별히 불러낸 성도들은 '구별되었다'는 의미에서 거룩한 자들이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4)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규례 안에서 순종하며 살게 될 때 거룩한 백성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7. Q 부모를 저주한 자는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되는가? (9절)

A (1) 부모를 저주하는 일은 사형에 해당되는 무서운 범죄 행위로 취급되었다(출 21:17; 잠 20:20; 30:11; 막 7:10).

(2) 왜냐하면 부모에 대한 저주는 이 땅에서의 가장 숭고한 어버이의 사랑에 대한 반역 행위이며 생명의 권위와 근원을 무시하는 일로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8. Q 여러 가지 경우의 성적(性的) 범죄와 그 형벌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기는가? (10-21절)

A (1) 음행과 간음은 하나님의 신성한 결혼 제도를 파괴하는 것으로 사형에 해당된다.

(2) 특히 이러한 범죄는 은밀히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모독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참조, 마 6:4, 18; 롬 2:16; 엡 5:12).

(3)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거룩성을 모독하거나 파괴할 때의 당할 징벌이 사형에 해당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4) 간음자들과 행음자들은 우상 숭배자들과 더불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계 21:8).

9. Q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吐)하지 아니하리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22절)

A (1)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원주민이 쫓겨 나는 것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토(吐)해 내버리신 결과인 것이다.

(2)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살게 될 때 가나안 주민을 토해 버린 것처럼 그렇게 버리시지 않겠다는 뜻이다.

(3) 결국 가나안 거민들이 쫓겨 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임을 거울삼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처럼 똑같은 경로를 밟지 않도록 교훈하고 있다.

(4) 성도들은 도박, 무당, 점, 부적(符籍) 그리고 세상 열락에 대한 청산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세상과 벗된 일들로 하나님의 노여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참조, 약 4:4; 계 3:15).

10. Q 하나님은 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셨는가? (22, 23절)

A (1) 가나안 족속들의 부패하고 가증한 죄악 때문이다.

(2) 죄악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3)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 났으며(창 3:24), 소돔과 고모라의 도덕적 불결과 타락은 결국 유황불의 재앙을 초래했다(창 19:24).

(4) 오늘 우리의 사회를 둘러볼 때 성적 타락과 사회 문화적 혼탁은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한 가운데 점점 농도가 짙어가고 있다. 이와 비례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박하였음을 성도는 깨닫고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신앙을 굳게 하며 사회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참조, 단 6:13; 골 4:12; 딤전 2:1; 벧전 4:7).

11. Q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27절)

A (1) 이 우상 숭배는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특히 당시 가나안 족속들 중에 많이 있었다.

(2) 이와 같은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은 남·여를 불문하고 반드시 죽이라고 했다.

(3)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일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 숭배자들은 사단의 앞잡이이며, 하나님 백성의 원수들이므로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

(4)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앙과의 타협점은 있을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5)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고 교훈하셨다(마 6:24).

12. Q 피 흘림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실례(實例)를 성경에서 찾아 보라.

A (1) 사울을 살해한 소년은 다윗에게 그의 공로를 내세웠다. 그러나 다윗은 그에게 사울의 피에 대한 책임을 추궁(追窮)했다. 소년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죄의 값으로 사형을 당하였다(삼하 1:14-16).

(2) 타락한 유대인들은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는 자를 죽이는 죄를 범했다. 이것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죄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거스린 죄이다(렘 2:34). 그들은 마침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3) 그리스도는 창세(創世)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값을 당시 유대인들이 담당한다고 말씀하셨다(눅 11:50).

(4) 가룟 유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써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였다. 그는 그 범죄의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마 27:4, 5).

(5)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으며 충직한 그의 부하 우리아를 죽였다(삼하 11:4, 17).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다윗은 회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아들을 잃는 슬픔을 맛보았다(삼하 12:18).

(6) 이와 같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범죄는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반드시 보수(報讎)를 받는다. 오늘날 성도들은 타인의 생명과 더불어 인격 및 영을 타락시키는 행위, 즉 간접 살인을 금하여야 한다(참조, 마 5:22, 28).

본장의 요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26절).

제 21 장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정결

단락구분 *1-6* 시체와 관련된 제사장의 정결 / *7-9* 제사장의 가정 관리 / *10-15* 대제사장의 부정한 결혼을 금하다 / *16-24* 제사장의 신체 조건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의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2 골육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3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 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4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5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6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7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 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8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네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9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지니라
10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11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12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위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13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14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15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7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18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19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20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21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아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아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22 그는 하나님의 식물의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23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24 모세가 이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였더라

---

1. **Q 본장의 개요와 그 중심 교훈을 말하라.**
   A (1) 본장에서부터 22장까지는 제사장의 행실에 대한 정결의 규례가 열거되고 있다.
   (2) 제사장들은 그 독특한 지위와 직무로 인하여 보통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정결의 법을 지켜야만 하였다.
   (3) 만약 제사장에게 조그마한 흠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으며 일시적으로 제사장직이 중지되거나 영원히 박탈되기도 하였다.
   (4) 결국 본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결코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
2. **Q 일반 제사장의 성결 내용은 무엇인가?** (1-9절)

Ⓐ (1) 일반인의 시체는 만질 수 없고 골육지친의 시체는 만질 수 있다. 그 이유는 골육지친에 대한 책임은 제사장이라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딤전5:8).

(2) 또한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고, 그 수염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 것 등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행위는 주로 우상 숭배자들의 관습이었기 때문이다.

(3) 그리고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 것이다. 그 이유는 제사장이 성결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다.

(4) 마지막으로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그 몸을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르도록 하였다.

3. Ⓠ 제사장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죽은 자를 가까이 할 수 없었는가? (1-3절)

Ⓐ (1) 일반 백성이 죽었을 경우에 제사장은 절대로 시체에 가까이 갈 수 없었다.

(2) 그러나 제사장의 골육지친인 부모, 자녀, 형제,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가 죽었을 경우에는 죽은 자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허용되었다.

(3) 이것은 인간적인 애정을 인정하시고 가족 부양의 원칙에 부합되는 하나님의 긍휼에서 비롯된 허락이었다.

4. Ⓠ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1) 더럽히지 말라는 말은 죽은 자(시체)와의 접촉을 통하여 의식적인 부정을 입지 말라는 뜻이다.

(2)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이다(창3:14; 약1:15).

(3) 특히 제사장들에게는 골육지친 이외의 죽은 자를 위한 애곡(哀哭)이나 시체와의 접촉이 금지되었다.

(4) 이처럼 구약에서 시체 접촉을 금한 것은 의식법상의 부정을 금하여 성결한 삶을 유지하여야 하는 영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5)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의식적인 규례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시체 접촉의 의식적인 불결 개념은 사라졌다(참조, 눅8:54; 요11:44).

5. Ⓠ 제사장이 정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야 하는 이유를 가정 파괴 문제와 관련하여 기술하라(7절).

Ⓐ (1) 가정은 신성한 장소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보존되어야 한다(참조, 마5:32; 19:9). 그럼에도 오늘날에는 가정 파괴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이러한 결손(缺損)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 가운데는 문제 아동이 많다.

(2)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가정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중한 결혼이 필요하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쉽게 결혼하며 쉽게 이혼하는 풍토 속에서는 결혼의 신중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3) 7절에서는 특히 제사장의 아내가 될 수 없는 여자들이 나열되어 있다. 여기에 포함된 여자들은 모든 여성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미덕(美德)을 포기한 자들이다.

(4) 성경은 좋은 아내를 얻는 자의 기쁨이 진주를 얻은 자의 기쁨보다 더하며(잠31:10), 그러한 아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밝히고 있다(잠19:14).

(5)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가정의 행복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다른 가정의 모범이 되어야 하므로 더욱 가정을 잘 가꾸어야 한다.

(6) 그런데 제사장에게 주어진 이러한 교훈은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6. Ⓠ 대제사장의 아내 될 여자는 흠이 없는 여인이어야만 한다. 이것이 신약 교회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7절)

Ⓐ (1) 대제사장은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의 아내는 교회(헬, 에클레시아) 및 성도를 의미한다.

(2) 대제사장의 아내가 흠이 없어야 하듯 그리스도의 신부 된 모든 성도들은 구별된 성결한 삶으로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매일의 삶이 정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살전5:2).

7. Q 제사장 딸이 음행할 경우에는 불태워 죽였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9절)

Ⓐ (1) 동서 고금(東西古今)에 있어서 부정한 성 행위가 정죄되지 않았던 적은 없다. 그러나 성경은 더욱더 이러한 행위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20:10-12; 신5:18).

(2) 성경은 또한 지도자의 잘못을 더욱 문제로 삼고 있다(렘5:31; 겔22:26; 마27:20, 41; 막15:11; 요19:6). 왜냐하면 지도자의 잘못이 파급되는 효과는 개인의 차원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지도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도록 행동해야 함은 물론 그 가정도 경건을 유지해야 한다. 공자(孔子)의 가르침에 나오는 '수신(修身) 제가(濟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의 논리가 우리의 생활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큰 일을 하려는 사람은 작은 일부터 성실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그 말에 수긍이 간다.

(4) 만약 성직자의 자녀가 불경건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려질까. 그러므로 성경은 동일한 음행의 경우에도 제사장 딸의 처벌을 더 무겁게 하고 있는 것이다.

(5)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하게 이차적인 파급 효과에서 나온 처벌만은 아니다. 그것은 제사장 딸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충분한 타당성을 지닌다. 그는 아버지인 제사장을 통하여 일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보다 믿음을 더 소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저질렀다면 그는 모르고 죄를 지은 자보다 더욱 큰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눅12:48).

(6) 오늘날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동일한 처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도자들 및 그들의 가족이 경건할 것을 명령하는 하나님의 요구에는 변함이 없다.

8. Q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었다'는 뜻은 무엇인가? (10절)

Ⓐ (1) 대제사장으로 특별히 구별되었다는 뜻이다.

(2) 이와 같이 대제사장으로 구별된 자는 어떤 경우에도 죽은 자를 위하여 애도하거나 시체에 접촉할 수 없었다.

(3) 왜냐하면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저주의 상징인 시체를 접하는 것은 합당치 않았으며 아울러 말씀 선포(제사 예식)가 그의 주된 임무였기 때문이다(참조, 눅9:60).

(4) 성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

9. Q 구약 성경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10절)

Ⓐ (1)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다.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갖지 못할 때나 율법을 어길 때에는 그 대가로서 죽음이 지불되었다.

(2) 죽음은 누구에게나 임하는 필연적인 것이다.

(3)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특히 일찍 죽는 것을 저주로 생각하였다.

(4) 죽음은 하나님의 통제와 규율 안에 있다. 죽음이 인간에게 필연적인 일이라면 죽음으로부터의 해방(부활)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달려 있다.

(5) 구약 성경에서도 죽음은 인간의 궁극적인 상태, 즉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참조, 창37:35; 시6:5).

10. Q 죽음에 대한 신약적 신학의 견해는 어떠한가? (10절)

A (1) 죽음은 죄의 삯(롬6:23)이다.

(2) 죽음에는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다.

(3) 육적인 죽음은 사람에게 필연적인 것이며(히9:27) 영적인 죽음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이 사는 자들의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영원한 죽음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멸망을 의미한다.

(4)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죽음이 정복된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그를 믿는 믿음으로 '죽어도 사는' 영생의 축복을 이미 받은 것을 의미한다(참조, 요 11:25, 26).

(5)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은 더 이상 성도들을 괴롭히지 못한다. 심판 날이 이르면 사망은 생명에게 삼키게 되고 이후에는 죽음이 다시 없는 영생으로 이어진다.

11. Q 대제사장은 부모가 죽은 경우에 성소에서 나올 수 있었는가? (11절)

A (1) 대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결에 따라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떠날 수 없었다. 비록 그의 부모가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중단하고 거기서 나올 수 없었다.

(2)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부모를 섬기는 일이 모두 똑같이 귀한 일이지만 우선 순위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섬기는 일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3)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죽은 부모의 영혼을 돌보실 수 있지만 한 번 훼손된 하나님의 예배는 그 죽은 부모가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4)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눅9:60)는 예수님의 말씀은 죽음과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구분하셨다.

12. Q 제사장의 후손 가운데 제사직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16-24절)

A (1) 육체에 흠(欠)이 있는 자들이다.

(2) 즉 소경, 절뚝발이,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자,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곱사등이, 난장이, 눈에 백막(白膜)이 있는 자, 괴혈병, 버짐이 있는 자, 불알 상한 자, 기타 흠 있는 자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

(3) 그러나 성물이나 지성물은 그들이 음식으로 먹을 수 있었다.

13. Q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 이것이 주는 의미와 복음 시대(신약 시대)와의 관계를 말하라(18절).

A (1) 내적 성결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과 제단의 완전한 성스러움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2) 흠 없는 제사장의 모습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완전한 성결을 유지하셨다.

(3)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제사장(벧전2:9)으로서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육체의 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참조, 히9:20, 21). 불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적 예배(이런 의미에서 성도는 영적 제사장이다)를 드릴 수 있다.

(4) 오히려 더욱 아름답고 건강한 영혼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 육체적으로 완전한 상태에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며, 범죄에 빠지는 육체의 흠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마5:29-32).

제 22 장 성물과 희생 제물에 대한 규례

단락구분 *1-9*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의 신체적 조건 / *10-16*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의 신분적 조건 / *17-30* 오직 흠 없는 제물만을 바칠 것 / *31-33* 이스라엘이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3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에 그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4 아론의 자손 중 문둥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나 설정한 자나
5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6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7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8 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9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10 외국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군은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11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사람을 샀으면 그 자는 그것을 먹을 것이고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러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식물을 먹을 것이며
12 제사장의 딸은 외국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13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친정에 돌아와서 어릴 때와 같으면 그는 그 아비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외국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14 사람이 부지중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 오분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15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더럽히지 말지니
16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1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8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19 열납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20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열납되지 못할것임이니라
21 무릇 서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열납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22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베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비루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23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낙헌 예물로는 쓰려니와 서원한 것을 갚음으로 드리면 열납되지 못하리라
24 너희는 불알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베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치도 말지며
25 너희는 외방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열납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2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7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칠 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 팔 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열납되리라
28 암소나 암양을 무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지니라
29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열납되도록 드릴지며
30 그 제물은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31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32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

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 33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

1. Q 본장의 개요와 교훈을 말하라.
   A (1) 본장에는 21장에 이어 성물에 관한 제사장들의 태도와 희생 제물을 관리하는 규례가 언급되어 있다.
   (2) 특히 제사장일지라도 의식적인 부정을 입은 경우는 성물을 만지거나 먹을 수 없었다.
   (3) 구약의 제사장들의 사역은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는 외적, 내적으로 완전한 성결이 요구되었다.
   (4)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된 성도들도 구별된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2. Q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 (2절)
   A (1)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린 성물을 함부로 취급하거나 여호와의 법에 어긋나게 대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 온다.
   (2) 하나님의 '성호'(聖號)는 여호와의 거룩한 속성을 가리키는 이름, 즉 '거룩한 이름'을 뜻한다.
   (3)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백성들 사이에서 거룩하게 유지되기를 명하셨다.
   (4)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호는 하나님의 인격의 신성함과 존엄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5) 결국 성물을 잘못 취급하여 여호와의 성호를 더럽히는 자는 범죄한 자로 간주되었다(출 20:7).
   (6)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했는데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죽였다(24:6).
3. Q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라(2절).
   A (1)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구약에서)하였으나 그것을 지키지 않은 모든 경우로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인격과 그의 영광을 파괴한 결과를 초래한다. 하나님의 이름(성호)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이 모두 담겨 있다.
   (2)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 모든 경우이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편이 낫다(시 15:4; 전 5:4; 렘 44:25).
   (3) 성도들이 기도할 때 다짐하고 결심한 것을 곧 잊어버리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모든 경우이다.
   (4) 망령되게(욕되게) 한다는 의미는 '헛되이', '무효하게'라는 뜻이 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모든 행위, 거짓말하고, 속이고, 훔치는 것들도 이에 속한다.
   (5)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사람에게 듣기 좋도록 기도하는 것이다(막 12:40).
   (6) 하나님께 대하여 훼방하고 원망하는 행위이다. 즉 건방진 인간들이 하나님의 전능과 권위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7) 형제에게 욕하고 저주하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욕하는 그 형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8) 하나님의 말씀의 어느 부분을 부인하거나 그릇되게 해석하는 것이다(마 5:21-48).
   (9) 예수의 이름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10)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것 등이다.
4. Q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와 그 의미를 말하라(4-9절).

Ⓐ (1) 제사장과 그 모든 자녀와 그 가족의 일원이 되는 사람이 먹는다.
(2)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사 온 노예와 제사장의 노예가 낳은 자녀들도 먹는다.
(3) 제사장의 딸로서 결혼한 후 이혼당하거나 과부가 되어 자녀 없이 친정으로 돌아온 사람은 먹는다.
(4)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는 제사장을 비롯한 그와 함께 사는 제사장 가족의 일원(一員)들이다.
(5)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업을 누릴 성도들만이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영생의 기업은 하나님의 권속(眷屬)들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참조, 요 8:35,36; 엡 2:19).

5. Ⓠ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자는 누구인가?** (10-16절)
Ⓐ (1) 제사장과 그 가족의 일원이 아닌 모든 자들이다.
(2)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라 하더라도 문둥병과 유출병에 걸려 있는 자는 정결하게 될 때까지 성물을 먹을 수 없다.
(3) 부정하게 하는 모든 것에 접촉된 자(시체, 부정한 벌레, 설정한 자) 등이다.
(4) 부정한 자나 이방인이 성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간주(看做)되었기 때문에 엄하게 금지되었다.

6. Ⓠ **불완전한 짐승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없게 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20절)
Ⓐ (1) 불완전한 짐승을 드리는 것은 참신앙의 결여(缺如)로 간주하셨기 때문이다.
(2) 완전한 제물을 드리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들을 성별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
(3)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모든 흠(欠)으로부터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하며 올바른 예배를 위해 모든 부정으로부터 먼저 깨끗이 해야 할 것을 가르치신 것이다(참조, 요 4:23,24).

7. Ⓠ **'하나님의 식물'은 무엇을 말하는가?** (25절)
Ⓐ (1)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 대하여 '신인동형동성론적'(神人同形同性論的)인 표현으로 나타낸 것이다.
(2) 즉 희생 제물을 제단에 올려 불에 태우는 행위가 마치 하나님께 음식을 대접해 드리는 것처럼 묘사 되어진 것이다.
(3)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상징적 의미가 암시되어 있는 표현이기도 하다.

8. Ⓠ **짐승을 잡을 경우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죽이지 말 것을 교훈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28절)
Ⓐ (1)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예물이 야만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준비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합당치 않다. 또한 하나님은 동물을 통해서 인간의 잔인성을 배제하신 것이다(참조, 고전 9:9,10).
(2)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과 긍휼을 베푸는 일이 모두 중요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긍휼을 베푸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3) 예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가르치실 때에 호 6:6을 인용하셨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마 9:13).

9. Ⓠ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하여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 (1)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가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한다(벧전 1:15,16).
(2) 그러므로 거룩의 표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곧 거룩하게 사는 삶이다.

(3)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은 모두 거룩한 자들이다.
(4) 결국 거룩의 기준을 세상의 윤리나 도덕에서 찾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한 생활이 존재한다.

화보자료

속죄 제물이 된 어린 양. 아래의 사진은 속죄의 제물로 바쳐져 죽임을 당하기 직전의 어린 양의 모습이다.

양은 본장에서처럼 화목 제물(21절) 뿐만 아니라 번제물(1:10), 속건제물(5:15) 등으로 쓰여졌다. 이 같은 제물로서의 양의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성경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요1:29), '어린 양'(계13:8)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호칭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로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제 23 장 성회(聖會)로 지킬 여호와의 절기들

단락구분 *1-3* 안식일 / *4-8* 유월절 / *9-14* 첫 이삭 바치는 날 / *15-22* 오순절 / *23-25* 나팔절 / *26-32* 속죄일 / *33-44* 초막절(장막절)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3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4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5 정월 십 사 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6 이 달 십 오 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칠 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8 너희는 칠 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 칠 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0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 갈 것이요
11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열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12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13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십분 이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힌 사분 일을 쓸 것이며
14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 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15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칠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16 제 칠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오십 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17 너희 처소에서 에바 십분 이로 만든 떡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18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일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일곱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둘을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19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일 년 된 어린 수양 둘을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20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21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22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 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2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4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칠 월 곧 그 달 일 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25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2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7 칠 월 십 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28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29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30 이 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31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

회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32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달 구 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3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34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칠 월 십 오 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칠 일 동안 지킬 것이라
35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36 칠 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 팔 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37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38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예물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39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칠 월 십 오 일부터 칠 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 팔 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40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 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41 너희는 매 년에 칠 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칠 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42 너희는 칠 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43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44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

1. Q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A (1) 본장에는 성회로 삼을 모든 절기가 언급되어 있다.

(2) 성회로 모이는 날은 모든 노동을 중지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경건하게 지냈다.

(3) 하나님께서는 안식일과 성회로 모일 절기를 제정하시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와 영혼의 회복을 위한 시간을 갖기 원하셨다.

2. Q '여호와의 절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2절)

A (1) 절기는 여호와께서 정해 놓으신 '축제일' (festival)을 의미한다.

(2) 그러나 이 축제일은 단순한 휴식이나 쾌락을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영혼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전념하는 날이다.

3. Q 안식일 외에 모든 노동을 금하고 휴식하며 성회로 모이는 여호와의 절기를 모두 열거하라.

A (1) 무교절의 첫날인 정월 14일

(2) 무교절의 마지막 날(제 7일)인 정월 21일

(3) 맥추절(칠칠절)의 성회: 무교절의 마지막 성회(안식일) 다음날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4)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나팔절)인 7월 1일

(5)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과 성소를 위해 속죄하고 백성들은 금식하며 회개하는 7월 10일의 속죄일

(6) 모든 추수를 마친 후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는 첫날인 7월 15일

(7) 초막절의 마지막 날인 7월 21일(초막절의 제 7일)

4. Q '성회'란 무엇인가? (2절)

A (1) 성회는 히브리어로 〈미크라 코데쉬〉인데 '거룩한 집회(모임)'를 의미한다.

(2) 이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안식일처럼 지냈다.

5. Q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3절)

A (1) 하나님께서는 창조 계약 가운데서 노동과 결혼과 안식의 제도를 설정하시고 특히 노동

의 신성한 가치를 인정하셨다.

(2) 그러므로 6일간의 노동이 없다면 안식일의 의미도 사라지고 만다.

(3) 안식의 올바른 개념은 노동의 가치와 개념으로부터 출발된다(O. Palmer Robertson).

(4) 안식일은 모든 절기의 기본이다. 여기서 '쉴 안식일'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샤바트 샤바톤〉인데 16:31에는 '큰 안식일'(a great Sabbath)로 되어 있다.

(5) 결국 안식일은 매7일마다 돌아오는 하루로서 휴식과 예배를 위한 날로 규정되었다.

6. Q 일반 안식일과 성회(여호와의 절기) 안식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4절)

A (1) 일반 안식일, 즉 7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관련하여 정하신 안식'의 날이다(창2:2,3).

(2) 그러나 특별히 여호와의 절기로 지키는 안식일은 매우 새롭게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모든 노동을 중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와 기도에 온 정성을 다하였다.

(3) 이러한 특별 안식일은 일반 안식일에 비하여 더 큰 제사와 많은 양의 제물을 드렸다. 그래서 성회의 안식일은 일반 안식일과 비교하여 '큰 안식일'이라고 불리기도 한다(참조, 16:31).

7. Q 안식일의 구약적 의미는 무엇인가? (3절)

A (1) 안식일의 근본 의미는 모든 것을 중지하고 쉬는 날이라는 뜻이다. 이날은 한 주(週)의 7일째 되는 날로서 휴식하며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2) 안식일의 제도는 사람이 창안해 낸 것이 아니라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제정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제 7일을 안식일로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창2:1-3).

(3) 안식일 준수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종교적 의미가 있었다. 즉 안식일 제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제정된 율법인 것이다.

(4) 일주일의 하루는 영적(종교적)인 헌신과 교훈을 위해 특별히 구별되어진 때로서 이날은 육체적 및 정신적인 휴식과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도 중요한 날이었다.

8. Q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는 어떠했는가? (3절)

A (1) 신약 시대 초기에는 안식일 준수가 대체로 형식적인 것이 되어 버렸다. 즉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교훈보다는 단지 율법에 얽매여 '지키는 것'뿐이었다. 이 당시 주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많이 고치셨으므로 유대인들은 그에게 안식일을 범(犯)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마12:8; 막2:28; 눅6:5; 요5:1-18; 9:1-41).

(2) 안식일에 행한 주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유대인 지도자들과 충돌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며 죄를 짓는 일도 아니라고 강조하셨다.

(3) 결국 주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맺으셨다(참조, 막2:27).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로운 행위는 오히려 필요한 것이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자비로운 손길을 중지하지 않으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칠 권리를 설명하셨다(요5:17). 이것은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일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4) 결국 예수께서는 구약의 권위와 타당성을 부인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하시고 옹호하셨다(마5:17-20; 15:1-6; 19:16-19; 22:35-40; 눅16:17). 다만 율법은 '형식적인 준수'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능동적)으로 수행하는 것임을 강조하시고 안식일 준수의 본래의 목적을 제시하셨다(마5:21-48; 19:3-9).

9. Q 유월절과 무교절의 성회에 대해서 말하라(5-8절).

A (1) 이 절기의 성회는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날(제 7일)이었다.

(2) 즉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거룩한 날로 지켰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았다.

(3) 안식일과 속죄일의 성회 때는 모든 종류의 세속적인 일이 금지되었으나 다른 절기 때는 일반 생업에 관계되는 육체 노동만이 금지되었다.

(4) 결국 무교절의 성회 때는 일반 노동을 금하고 거룩한 마음가짐으로 기도와 찬양과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0. Q 성회로 지키는 칠칠절(맥추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15 - 22절)

A (1) 이 절기는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는 날로서 무교 절기 가운데 있는 안식일 다음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이다. 첫 열매는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한 첫 부활의 상징이다(고전15:20-23; 살전4:13-18). 또한 첫 열매는 교회에 대한 봉헌의 상징이다.

(2) 신약 시대 오순절에는 성령 강림이 교회에 일어나 이날 3천 명의 제자가 더 늘어났다(행2:1-4, 41).

(3) 오순절(맥추절)에 드리는 유교병 두 덩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는 신약 시대에 복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전파되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11. Q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무엇이며 그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A (1) 유월절(무교절), 맥추절(칠칠절, 오순절), 수장절(초막절, 장막절)을 가리킨다.

(2) 이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공통적인 형제애(兄弟愛)를 고취하며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 감사하였다.

(3) 구약 시대에 이러한 절기의 상징적인 행위는 복음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형제요 자매임을 나타낸다.

12. Q 맥추절(칠칠절)의 성회 때 드리는 제사와 그 의미를 말하라(18-21절).

A (1)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가 드려졌다.

(2)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절기에 희생 제물로 큰 제사를 드리는 것은 땅의 주인이시요 수확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의미가 있다.

(3)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절기이기도 했다.

13. Q 제 7월에 성회로 지켜 안식일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무엇인가? (23-44절)

A (1) 첫날은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었다. 종교력의 7월은 민간력으로 정월(1월)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새해의 첫날을 거룩히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보내는 것이다.

(2) 7월 10일은 속죄일인데 백성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종일 속죄하며 거룩하게 보냈다.

(3) 7월 15일은 초막절이며 특별한 성회로 모였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1주일 동안 지킨다.

14. Q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A (1) 안식의 첫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근거하여 '인간을 위해서 생겨난' 휴식과 축복의 날이다. 그러므로 1주일에 하루(주일)를 쉬며 거룩하게 보냄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날로 삼아야 한다.

(2) 영적 의미에서 영원한 안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히4:8, 9).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완전한 구원) 시기는 주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에 근거한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다. 우리의 안식은 '아직 아

니' (not yet) 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 날 구속을 완성하실 때, 즉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상태에 들어갈 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히4:9, 10).

(4)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언제나 풍성한 은혜와 자유 가운데서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로 완전히 인도되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출13:5;15:17;신7:1;시107:14;살후3:5;계7:17).

15. Q 구약의 여러 절기와 그 영적 의미를 말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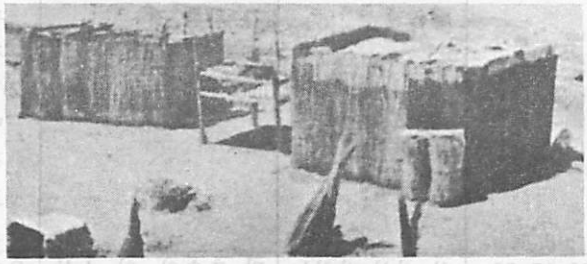
A

명 칭	성 구	때	목 적	예언적(영적) 의미
유 월 절 〈페 사 흐〉	출 12:1-28, 43-49; 레 23:5; 민 28:16; 신 16:1-8	종교력의 첫째 달인 니산(아빕) 월의 14일 저녁	(1)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이 구출되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 (2)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넘어 지나갔다' 는 것, 즉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살려 주셨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것 (출 12:27)	(1)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유월절의 어린양이다(요 1:29;고전 5:7;벧전 1:18, 19) (2) 유월절은 성만찬의 기초이다(마26:17-30;막 14:12-25;눅 22:1-20) (3) 유월절은 어린양의 흔인 잔치를 예시한다 (눅 22:16-18;계 19:9)
무 교 절 〈마 초 트〉	출 12:51-20; 13:3-10; 레 23:6-8; 민 28:17-25; 신 16:3-8	니산(아빕)월의 15일에 시작하여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다	애굽으로부터 급히 빠져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생을 기념하기 위한 것(출 12:39). 무교병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봉헌하는 것을 상징했다	(1) 무교병은 그리스도의 상징이다(요 6:30-59;고전 11:24) (2) 무교병은 참교회의 상징이다(고전 5:7, 8)
첫 이삭 바치는 날 〈비 쿠 림〉	레 23:9-14	유월절 기간의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보리 추수의 첫 소산을 바치고 봉헌하기 위한 것	(1) 첫 열매는 그리스도의 육적인 부활의 상징이다(고전 15:20-23) (2) 첫 열매는 모든 믿는 자들의 육체적 부활에 대한 보증이다(고전 15:20-23)
칠칠절, 오순절 〈샤 부 오트〉	레 23:15-22; 민 28:26-31; 신 16:9-12	첫 이삭 바치는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밀 추수의 첫 소산을 바치고 봉헌하기 위한 것	오순절 때에 성령의 부어 주심이 교회에 일어났다(행 2장)
신년절, 나팔절 〈로 쉬하샤나〉	레 23:23-25; 민 10:10;	안식의 달인 제7월(티쉬리) 의	안식의 달인 일곱번째 달을 맞아 봉헌	신약 성경에서는 나팔을 분다는 것이

	29:1-6	첫째 날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다(마 24:31; 고전 15:52; 살전 4:16)
속죄일 〈욤 키푸림〉	레 16장; 23:26-32; 민 29:7-11	제 7월 10일 (티쉬리)	제사장과 백성 및 회막의 죄를 해마다 속하기 위한 것	속죄일의 궁극적 완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된다(히 9장). 이것은 구약의 어떤 다른 상징보다도 더욱 적절하게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다
장막절 〈수코드〉	레 23:33-43; 민 29:12-38; 신 16:13-17	제 7월(티쉬리)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고, 여덟째 날은 안식의 날로 절기의 절정을 이루었다	(1)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방황할 때 하나님이 구출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 (2) 토지 소산의 거두어 들이는 것을 마칠 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한 것 (레 23:39)	장막절은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통치에 대한 번영과 평화를 예시한다

화보자료

초막(草幕). 아래의 사진은 유브라데 강변의 초막들이다. 이러한 초막들은 이동과 운반이 쉽게 가벼운 재료로 만들어졌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이다 (39-43절).

제 24 장 신성 모독죄에 대한 처형

단락구분 *1-4* 성막의 등불을 관리하는 법 / *5-9* 진설병(陣設餠)을 바치는 법 / *10-16*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슬로밋의 아들을 처형하다 / *17-23* 여러 종류의 살인죄에 대한 배상법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찧어 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네게로 가져 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3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4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의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5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열 둘을 굽되 매덩이를 에바 십분 이로 하여
6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7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8 항상 매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9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10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11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하며 저주하므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12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1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4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15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16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17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18 짐승을 쳐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19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20 파상의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21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자는 죽일지니
22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23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진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

1. **Q 본장의 개요와 그 교훈을 말하라.**
   A (1) 등잔과 진설병에 관한 규례와 더불어 여호와의 성호를 모독한 자를 돌로 쳐죽인 실례가 언급되었다.
   (2) 특히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힌 자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파괴한다는 의미에서 무서운 징벌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불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큰 경고를 주고 있다.
   (3)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성호를 도용한 것으로 성도들이 범하기 쉬운 죄 가운데 하나이다.
2. **Q 끊이지 않고 등잔불을 켜는 의미는 무엇인가? (2절)**
   A (1) 등대에는 7개의 등잔이 있으며 여기에 언제나 불이 켜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진리'를 가리킨다(계 4:5).

(2)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낸다(빌 2:14-17).

(3) 오늘날 성도들은 세상을 밝히는 구원의 소식, 즉 복음의 진리를 밝히는 등대의 구실을 다하여야 한다.

(4) 즉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오늘도 쉬지 않고 계속 되듯이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참조, 행 1:8; 딤후 4:2).

3. Q 등잔불의 관리는 누가 하는가? (3,4절)

A (1) 대제사장인 아론이 성소 안에 있는 등대와 등잔불을 매일 관리하였다.

(2) 유대인들의 하루가 시작되는 매일 저녁(오후 6시경)에 등잔에 불을 켜서 다음날 아침까지 성소를 밝힌 다음 아침에는 등잔을 정리하였다.

(3) 즉 아침에는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잘 다듬는 등 저녁에 불을 밝히기 위한 일체의 일을 하였다.

(4) 오늘날 복음의 사역자들도 언제나 복음의 밝은 빛을 나타내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참조, 벧전 3:15).

4. Q 성소 안에는 어떤 기구(器具)들이 있는가? (4절)

A (1)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할 때 성소 안에는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다(출 39, 40장).

(2) 성소 안에는 필요할 때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으나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

5. Q '진설병'(陣設餠)이란 무엇인가? (5-9절)

A (1) 진설병의 준비와 진설 방법 및 그 의미가 본장에 처음으로 설명되어 있다.

(2) 진설병(떡)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약 4.4ℓ)의 양으로 만들었는데 모두 12개를 만들었다.

(3) 이것을 떡상 위에 6개씩 두 줄로 진설(陣設)하였다.

(4) 이 떡(진설병)은 성소 안 떡상 위에 1주일 동안 놓여져 있었으며 다음 안식일에 교체되었다.

(5) 1주일 동안 떡상 위에 놓여 있던 진설병은 아론과 그 자손들의 몫이 되었다(삼상 21:4-6; 마 12:3, 4; 막 2:25, 26; 눅 6:3).

6. Q '떡 열 둘'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5절)

A (1) 열 두 개의 떡의 수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

(2)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제물이 되어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나타낸다.

(3)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모든 성도들을 비유한다(갈 3:7).

(4) 성도들은 물질과 시간과 재능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주께 헌신해야 한다(신 6:5; 10:12; 11:13).

7. Q '여호와 앞 순결한 상'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6절)

A (1)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을 말한다.

(2) 떡상은 조각목으로 만들어 겉에 정금(pure gold)을 입혔다.

8. Q 매(每)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바꾸며 떡이 계속 떡상에 유지되게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8절)

A (1)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끊임없는 영적 교제를 의미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부르심으로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잔치 상(床)에 참여할 수 있다.

(2) 그리고 주님의 집에는 먹을 것이 언제나 풍성함(눅 15:17)을 보여 준다.

9. Q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아버지는 애굽인)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운 사실은 어떤 교훈을 주는가? (10절)

Ⓐ (1)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애굽인)과의 결혼을 통하여 그들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이 지적되고 있다.

(2) 잡혼(雜婚)으로 인한 도덕적, 종교적 타락은 급기야 하나님을 모독하기에 이르렀다.

(3) 성도가 불신자와 결혼했을 때는 성도의 경건한 삶이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보다는 불신자의 불경(不敬)한 생활이 더 쉽게 영향을 끼친다. 이런 의미에서라도 성도의 불신자와의 결혼은 금지되어야 한다(참조, 창 24:3;28:1;신 7:3;수 23:12).

10. Ⓠ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라는 말에서 느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0절)

Ⓐ (1)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거할 때 이스라엘 여자들은 애굽의 남자들과 결혼하기도 했다.

(2) 그 후 출애굽하게 될 때 애굽 남자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섞여 나왔으며 '혼합된 무리'(민 11:1, 4)로 함께 살았다.

(3) 그런데 여호와 신앙 가운데서 사는 이스라엘인과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애굽인들 사이에는 많은 마찰이 있었으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4) 결국 성도의 불신자와의 연합은 영적 타락을 가져오게 된다.

(5) 성도의 결혼은 단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약속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인으로 한 엄숙한 예식이기 때문에 신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배우자 선택에 있어 성도는 간절한 기도와 신중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참조, 느 13:25;고전 7:39).

11. Ⓠ **싸움 중에 이스라엘 아들(혼혈아)이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하며 저주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1절)

Ⓐ (1)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칭호를 사용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왜냐하면 인간이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로 여겼기 때문이다.

(2)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야웨)란 성호 대신에 주(Lord)란 뜻의 히브리어 〈아도나이〉를 사용하였다.

(3) 그런데 혼혈아(부는 애굽인, 모는 이스라엘인)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하고 저주하기까지 한 것은 사형을 면치 못하는 무서운 범죄 행위였다(참조, 삼상 17:43;삼하 16:5;마 26:74).

12. Ⓠ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싸우다가 분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하고 저주한 것은 성도의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11절)

Ⓐ (1) 사람의 마음은 감정이 격화되면 온갖 욕설이 나온다. 이것은 분노의 결과이다. 화를 내는 것과 싸우는 것은 살인의 시발점이다. 성도의 삶은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인내하는 용기가 앞서야 한다(참조, 약 1:19, 20;3:6).

(2) 사람의 분노가 격렬해지면 이성(理性)도 신앙도 모두 잊어버리고 만다. 싸움을 일으킨 조그마한 불씨가 살인까지 이르고 마는 예(例)는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노(怒)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城)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잠 16:32).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잠 14:29).

(3) 예수께서는 노(怒)하거나 욕설을 하는 것 자체도 살인(殺人)과 동등하게 여기셨다(마 5:22). 즉 분노(忿怒)는 살인의 출발점이요, 살인은 분노(미움)의 결과이다.

(4)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분(憤)과 악의와 훼방과 거짓말 등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이 된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라고 권면했다(골 3:8-10).

13. Ⓠ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하고 저주한 자는 어떠한 형벌을 받았는가?** (14-16절)

Ⓐ (1) 진 밖으로 끌려 나가 돌에 맞아 죽었다.

(2) 이것은 여호와를 모독한 자에 대한 판례(判例)로서 후대에 영원한 교훈이 되도록 본장

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14. Q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의 근본 의미는 무엇인가? (20절)

A (1)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이러한 율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자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이러한 응보의 법칙(lex talionis,타리오 법칙)을 백성들에게 주어서 이웃을 상해(傷害)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신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에도 이러한 율법은 오히려 이웃에 대하여 악을 행하지 말고 도리어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계율이었다(19:18).

(3) 신약 시대에 예수께서는 구약의 율법 정신을 외형적이고 소극적으로 해석치 않고 이 율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셨다(마 5:43, 44). 즉 모든 율법의 완성(최종 목표)인 사랑을 행하여 오히려 용서와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 뜻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셨다.

(4)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그 율법의 시행 여부로 백성을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본을 두고 있다.

(5) 그러므로 '율법의 법칙'과 '예수의 교훈'은 서로 배치(背馳)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신약 시대로 가면서 더 구체화되고, 실제화된 것을 발견하게 된다(마 5:38-42).

연구자료

구약에 언급된 손해 배상과 벌금형. 엄격한 의미에서의 벌금 제도 곧 국가나 사회에 대하여 속죄를 위한 돈을 지불하는 제도가 이스라엘에는 없었다. 어떤 범죄나 허물을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가지고 가는 돈은(왕하 12:7) 벌금의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규례에 의하여 바쳐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손해 배상에 관한 규례는 사형이나 기타 중형에 해당되지 않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자주 언급되었는데 이것은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면에서 손해를 끼쳤을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만일 훔쳐온 양을 산채로 다시 돌려 주는 경우라면 그 도둑은 단지 2배의 손해 배상을 하면 되었다. 그러나 만일 죽이거나 팔면 4배로 보상해야 했다(출22:1-4). 그리고 처녀를 유혹하여 통간한 남자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했다(출22:16). 또한 한 남자가 혼인 전에 아내의 부정이 있었다고 거짓으로 고소했다면 그는 공개적으로 매를 맞는 태형에 해당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장인에게 100세겔을 벌금으로 주어야 했다(신22:18, 19). 성질이 나쁜 소가 받아서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 소의 주인은 상황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 만큼 살아 있는 남은 가족에게 돈을 지불하였다(출21:30). 다만 주인이 사전에 소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경우는 예외이다. 만일 어떤 여인이 그의 남편과 싸우던 어떤 가해자로 인해서 유산하게 되었으면, 그 가해자는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야 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은 재판관의 판결에 따라야 했다(출21:22).

제 25 장 안식년과 희년

단락구분 *1-7* 안식년(安息年)의 법 / *8-12* 희년(禧年)의 주기 / *13-17* 희년을 기준으로 한 토지 거래법 / *18-22* 안식년의 특별한 축복 / *23-28* 희년과 토지 거래법 / *29-34* 가옥 거래법 / *35-38* 이자(利子) 를 취하지 말라 / *39-46* 동족끼리 종이 된 경우에 해방되는 법 / *47-55* 이방인에게팔렸을 경우에 해방되는 법

1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3 너는 육 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육 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4 제 칠 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5 너의 곡물의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6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군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7 네 육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8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칠 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사십구 년이라
9 칠 월 십 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10 제 오 십 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11 그 오십 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12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13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14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15 희년 후의 년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년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16 년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년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17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8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19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20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 칠 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21 내가 명하여 제 육 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삼 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22 너희가 제 팔 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 구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23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24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25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무를 것이요
26 만일 그것을 무를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무를 힘이 있거든
27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28 그러나 자기가 무를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29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일 년 안에는 무를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무르려니와
30 주년 내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내 가옥은 산 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영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 보내지아니할 것이니라
31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 일례로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32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 기업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무를 수 있으나
33 레위 사람이 만일 무르지 아니하면 그 기업된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 보낼지니 대저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은 기업이 됨이니라
34 그러나 그 성읍의 들의 사면 밭은 그의 영원한 기업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35 네 동족이 빈한하게 되어 빈 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36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37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38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39 네 동족이 빈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40 품군이나 우거하는 자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41 그 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42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군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43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44 너의 종은 남녀를 무론하고 너의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45 또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46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47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부요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빈한하게 됨으로 너희 중에 우거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48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49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요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50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년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51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년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52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년수대로 속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53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삯군과 같이 여기고 너의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못하리라
54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니
55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군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군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

1. Q 본장의 희년과 안식년이 가지는 영적 의미를 말하라.

A (1) 여기서부터는 사회 관계, 경제 관계의 성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본장에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가 언급되어 있다.

(2)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는 가나안 땅에서의 토지와 부동산에 관한 율법인데 특히 토지의 안식(휴식)을 통하여 인간의 영적 안식에 대한 소망을 교훈하고 있다.

(3) 안식일의 반복이 안식년이며 안식년의 반복이 희년이다. 그러므로 창조 질서 가운데 제정된 안식일의 '안식' 제도는 안식년과 희년을 거쳐 영원한 안식, 즉 하나님 나라(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에 대한 모형이다.

2. Q 안식년의 규례는 무엇인가? (1-7절)

A (1) 안식일이 7일 중의 하루를 정해 안식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라면 안식년은 가나안 땅을 7년마다 한 해를 안식년으로 삼아 그 땅을 쉬게 하는 해를 가리킨다.

(2) 이처럼 매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으로 정하여 휴경(休耕)하였다. 경지 휴한(耕地休閑)은 자연 분해의 결과로 생기는 양분 증가에 따라 지력(地力)의 회복에 크게 도움을 주는 건전한 영농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3) 그러나 안식년 제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탐욕으로부터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

(4) 이것은 오직 여호와만이 땅의 주인이시며 그 땅에 대한 특별한 권한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재인식케 하며 인간으로 하여금 물질에 대한 탐욕을 억제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한다(참조, 약1:15).

3. Q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2절)

A (1) 인간에게 안식일이 제정되어 육체의 휴식과 영혼의 재생이 있는 것처럼 같은 피조물인 땅(토지)에게도 휴식을 주라는 의미이다.

(2) 땅은 1년간 휴식을 취하여 지력(地力)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백성들도 땅이 쉬는 1년간은 휴식을 취하며 영적 생활의 향상을 꾀하는 것이다.

(3) 결국 땅의 휴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휴식을 주고 영적 안식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다.

4. Q **안식년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2절)

A (1) 안식년 제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심을 재인식케 한다(23절).

(2) 피조물인 땅에게도 휴식을 줌으로써 지력(地力)을 회복할 수 있게 한다.

(3) 또한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억제케 할 뿐 아니라 영적 생활에서도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한다.

(4) 그리고 안식년에도 휴경지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물을 취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것을 교훈하신다(6절).

(5) 안식년이 성도들에게 주는 더욱 중요한 교훈은 장차 올 세상의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참조, 고후5:1; 딛1:2; 히5:9; 벧후1:11)는 점이다.

5. Q **'안식년의 소출'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6, 7절)

A (1) 안식년에 저절로 맺은 모든 수확물을 의미한다.

(2) 안식년의 소출은 가난한 자, 외국인, 가축, 들짐승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과 짐승들이 나누어 먹었다.

(3) 안식년에는 경작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자라난 곡물과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4)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히 공급하신다(참조, 출16:35; 왕상17:4).

6. Q **희년(禧年)의 규례를 요약하라**(8-55절).

A (1) 안식년이 7번 반복된 그 이듬해 곧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 된다.

(2)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한 해로부터 매 7년째 되는 해는 언제나 안식년으로 지키며 안식년이 7번 반복된 그 이듬해는 희년이 되었다.

(3) '희년'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요벨〉인데 '크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라는 뜻이다. 희년이 시작될 때에는 수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을 크게 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생겨났다.

(4) 희년에는 첫날에 알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온 땅에 자유가 선포'되었다(9, 10절).

(5) 종 되었던 자는 해방되고 자기 기업을 잃었던 자들은 자기 기업을 다시 찾게 되며 먼 곳으로 이주한 자는 다시 자신의 기업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왔다.

(6) 다시 말하면 희년의 의미는 본래 대로 회복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7)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구원의 상태가 되는 것을 상징한다.

(8) 희년의 중요한 의미를 특별히 두 가지로 요약하면 '안식'과 '자유의 선포'이다. 즉 그

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그것의 결과인 영원한 안식, 즉 영생이다.

7. Q 희년이 시작되는 날의 기준은 무엇인가? (9절)

A (1) 유대 종교력 7월 10일의 속죄일에 나팔을 크게 불어 희년의 시작을 알렸다.

(2) 평상시의 속죄일에는 나팔을 불지 않았으며 희년이 시작되는 때의 속죄일에만 나팔을 불어 희년을 알렸다.

(3) 종교력 7월은 민간력의 정월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첫 달 10일에 나팔을 불었는데 이것은 자유를 선포하며 가족을 떠난 자들이 고향과 가족에게 돌아가라는 은총의 나팔 소리였다(참조, 민 10:10; 마 11:28; 히 4:9-11).

8. Q 토지를 거래할 때 값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13-17절)

A (1) 토지를 사고 파는 그 시점으로부터 희년까지의 기간에 따라 값을 정하였다.

(2) 즉 희년까지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파는 자가 높은 값을 받았다.

(3) 희년을 기준으로 하여 땅값을 정하는 이유는 그 땅이 희년이 되면 본래의 소유주에게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4) 이와 같은 제도는 가나안 땅이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본래의 기업을 받은 자에게 항상 속해 있기 위한 것이다.

9. Q 희년을 기준으로 한 토지 거래법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하신 교훈은 무엇인가? (14절)

A (1)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희년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를 거래하도록 율법화(律法化)시키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평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당신의 사랑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토지를 희년, 즉 거래된 토지를 무를 힘이 없을지라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해를 정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자가 계속 부유케 되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게 되는 악순환을 막으셨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한 사정으로 거래할 수 밖에 없었던 토지에 대해도 이제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

(2) 이와 같은 토지 거래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서로 이웃을 돌아보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으로서 그들은 형제지간이었다(느 5:1-8). 따라서 그들은 서로간에 투기와 속임이 없이 공정에 근거한 사랑으로 토지를 거래해야만 했다.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서로 속이지 말라'(17절)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셨다.

(3)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토지 거래법에 대하여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17절)고 엄중히 경계하심으로 이 시행법의 철저함을 강조하셨다. 인간은 타락 이후에 탐욕에 강하므로 경제적인 거래에서는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 자신을 경외함으로 이 일을 시행하라고 말씀하셨다.

(4) 성도의 아름다운 덕 가운데 하나는 진실이다. 성도는 누구를 만나든지 혹은 무엇을 거래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진실과 공평을 유지해야 한다(참조, 삼상 12:24; 잠 12:19; 고후 11:3).

10. Q 안식년이나 희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 주셨는가? (18-22절)

A (1) 제 6년에는 평상시보다 2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2) 이것은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게 된다는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3) 즉 안식년이나 희년의 휴식은 하나님 백성의 신앙 훈련을 위한 것이며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늘 필요에 따라 그에 합당한 물질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

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참조, 마6:26).

11. Q 가난한 자가 자기 토지의 일부나 전부를 팔았을 경우 다시 희년이 되기 전에 되돌려 받을 수는 없는가? (23-28절)

A (1) 자신에게 돈이 생겼을 때는 언제라도 값을 주고 자신의 토지를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2) 이때에는 처음 팔았을 때 받은 토지의 값을 전부 주고 되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희년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토지의 값만 주었다.

(3) 만약 자신이 무를 능력이 없을 때는 가까운 친척이 대신 돈을 내고 무를 수 있었다.

(4) 그러나 친척 중에 아무도 무를 만한 능력이 없을 때는 희년에 이르러서야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12. Q '근족'의 의무는 무엇인가? (25절)

A (1) '근족'은 히브리어로 〈고엘〉에서 유래하였는데 '가까운 구속자(구제자)'라는 뜻이다.

(2) 히브리어의 〈고엘〉은 '기업 무를 자', '대속자', '근족' 등 여러 말로 번역되어 그 의미가 다양하다.

(3)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는 〈고엘〉, 즉 근족의 의무가 있었다. ① 근족이 재산을 팔았을 경우 그것을 대속해 주어야 했다. ② 근족이 노예가 되었을 때에는 돈을 지불하고 석방시켜야 했다. ③ 근족이 무자(無子)하게 죽었을 경우 그 과부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게 해야만 했다. ④ 근족이 살해당했을 때에는 복수할 책임이 있었다(민35:9-28).

(4) 구약 성경에 나타난 〈고엘〉, 즉 대속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그리스도는 죄인의 구속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속죄를 위한 값으로 지불하셨다.

13. Q 가옥(집)을 팔았을 경우의 규례는 무엇인가? (29-34절)

A (1) 주년(週年), 즉 만 1년 이내에는 무를 수가 있었다.

(2) 만 1년 이내에 무르지 못하면 영영히 산 자의 소유가 되었다.

(3) 토지의 경우는 무르지 못할 때에 희년에는 본래의 주인에게로 되돌아갔으나 가옥의 경우는 희년에도 본래의 주인에게 되돌아가지 않는다.

(4) 그러나 레위인이 살고 있는 가옥의 경우는 레위인이 팔았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무를 수 있었으며 만약 무르지 못할 경우에 희년에는 레위인의 가옥으로 다시 환원되었다.

(5) 본래 레위인들에게는 그들의 기업이 전혀 없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가옥도 그들의 재산이 아니라 다만 살아 있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각 지파에서 그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다.

(6) 그러므로 레위인들의 판 가옥은 언제라도 무를 수 있으며 희년에는 다시 되돌려 받았다.

(7)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비롯된 공의로운 일이다.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그의 사랑과 긍휼에서 비롯된다(참조, 마11:30).

14. Q 가난한 동족을 위한 규례는 무엇인가? (39-45절)

A (1) 가난한 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 줄 때는 이자(利子)를 취하지 말아야 했다.

(2) 혹시 돈 때문에 동족끼리 종이 되어 팔린다 해도 종으로 대우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여야 했다.

(3) 또한 종이 된 자는 희년에 모두 가족에게 되돌아갔다.

(4) 희년에는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풀려 나는데 이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으로 죄인들이 죄와 사단의 얽매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다.

15. Q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같이 사는 이방인에게 팔려 종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47-55절)

A (1) 가까운 친족이 값을 주고 속할 수 있다.

(2) 만약 친족이 그를 속할 만한 힘이 없으면 희년이 될 때 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다.

(3)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종'(백성)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예속될 수 없는 특권을 누렸다.

(4)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언제나 풍성한 은혜와 자유 가운데서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로 완전히 인도되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출 13:5 ;15:17;신 7:1;시 107:14;살후 3:5;계 7:17).

연구자료

구약 시대의 시간 개념. 시간을 계산한다는 것은 어떤 한 국가나 사회의 역사에 있어서 연대기의 출발점을 의미한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날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 '시간'이란 용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를 세분하는 특정한 시간적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구약 시대 초기에는 하루를 구분할 때 자연적 현상에 따라 아침, 낮, 저녁으로(창 1:5;43:16). 그리고 밤은 초경, 이경, 아침으로 구분하였다(14:24;삿 7:19;애 2:19). 또한 날에 대한 뚜렷한 구분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에는 구약 전역사의 연대를 정할 때 주로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을 중심으로 정하였다(참조, 민 13:22; 왕하 25:27;겔 24:1;26:1;암 1:1). 이러한 사실은 유다 왕국이나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에 있어서 모든 사건들이 각 왕의 통치 연한에 따라 날짜가 결정되었던 것에 의해서도 증명된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이스라엘 뿐만은 아니었고 고대 근동 지방의 거의 대부분의 역사 기술에 있어서도 표준 연대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표준 연대가 없이 각 왕의 즉위 연대를 중심으로한 연호(年號)를 사용해 왔다. 이에 따라 인물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한 기전체(紀傳體)와 연대 순으로 역사를 서술한 편년체(編年體) 그리고 연대나 인물에 중점을 두지 않고 사건에 중점을 두어 그 원인과 결과 관계를 기술한 기사 본말체(紀事本末體) 등 다양한 역사 기술 방식이 생겼던 것이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의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야의 도래(到來)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 서술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향해 발전하는 선적인(linear) 역사관에 촛점을 맞추고 있음과 동시에 메시야 왕국의 도래를 확신하는 종말론적 구속사관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제 26 장 축복과 저주

단락구분 1-2 우상을 버리라 / 3-13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축복 / 14-33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릴 저주 / 34-39 형벌을 내리는 결과 / 40-46 회개하는 자를 위한 약속

1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2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3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4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5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6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우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7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8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9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10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11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12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13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 된 것을 면케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14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15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16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17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18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칠 배나 더 징치할지니라
19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20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21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칠 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22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효를 감소케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23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24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칠 배나 더 칠지라
25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염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26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27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28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칠 배나 더 징책하리니
29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30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

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31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향치 아니하고
32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33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34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 때에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35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36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37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38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39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 같이 쇠잔하리라
40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41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 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42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43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44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45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46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

1. Q 본장의 개요와 교훈을 말하라.

A (1) 본장은 레위기에 나타난 모든 규례의 결론 부분이다.

(2) 이 결론은 순종하는 자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저주로 언급된다.

(3) 결국 본장에 나타난 교훈은 말씀에 대한 인간의 태도 여하에 따라 축복과 저주의 두 길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 준다.

(4) 특히 본장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온전한 순종을 교훈하고 있다(참조, 신30:2, 8; 행5:29).

2. Q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한 세 가지 중요한 규례는 무엇인가? (1, 2절)

A (1)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목상(木像)이나 주상(柱像)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할 석상(石像)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것이다.

(2)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안식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지키라는 것이다(출20:8-11).

(3)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라는 것이다. 백성은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며, 그분만을 경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 것이다(참조, 시11:4; 합2:20).

(4)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여러 가지 규례를 정하셨으며 특히 위의 3가지 규례를 더욱 중히 여겨 축복의 조건으로 제시하셨다.

3. Q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2절)

A (1)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큰 제도가 있다.

(2) 하나는 안식일 제도를 지킴으로써 신앙을 영원히 유지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성소의 단일화를 꾀하며 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다.

(3)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성소를 공경하는 것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핵심이 잘 보존되도록 하였다.

(4) 구약 시대에 우상 숭배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범죄 행위로 취급되었다.

(5) 성도들은 주일 성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야 한다. 이날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주님의 성호를 경배하며 찬양하는 날이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는 율법의 준수라는 것보다는 주를 더욱 사랑하며 가장 귀한 시간을 통해 주를 찬양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되고 실천되야 한다(참조, 신5:10; 잠8:17; 렘29:13; 눅10:27).

4. Q **'비를 그 시후(時候)에 준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4절)

A (1) 농사에 있어서 비가 와야 할 가장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 주신다는 뜻이다.

(2) 이 말을 확대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의미이다.

(3)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축복은 모든 축복 중의 으뜸이다.

5. Q **하나님의 규례와 규명을 준행하는 자에 대한 축복은 무엇인가?** (3-13절)

A (1) 오곡 백과가 풍성한 생산의 축복이다(3-5절).

(2) 칼과 짐승이 해하지 못하는 평화의 축복이다(6절).

(3) 승리의 축복이다(7,8절). 즉 대적이 그들 앞에서 넘어지고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 승리의 축복이다(참조, 신28:7; 수1:8).

(4) 민족이 번성하고 창대하는 번영의 축복이다(9,10절).

(5) 언제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11,12절). 이것은 어떤 축복보다 더 귀한 것이다.

6. Q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라는 말이 보여 주는 것은 무엇인가?** (8절)

A (1)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국방적 안전을 보증하신다는 말씀이다.

(2) 이 귀절은 적은 수로 많은 대적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다는 선언이다.

(3)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병(私兵) 318명을 가지고 동방의 네 나라를 격퇴시켰다(창14:1-16). 기드온은 군사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었다(삿7:15-23). 엘리야는 혼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했다(왕상18:19-40).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 편에 서서 역사(役事)하셨다.

(5) 비록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연약하고 누추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결국 성도에게 영광과 축복을 허락하신다(참조, 고전1:26-30).

7. Q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0절)

A (1) 전년의 추수한 곡식이 너무 많아 다 먹지 못한 채 또 새 곡식을 얻을 정도로 풍부한 생활을 하게 되리라는 표현이다.

(2) 이것은 팔레스틴 지방의 척박(瘠薄)한 환경을 생각할 때 자연의 주재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이다.

8. Q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11-13절)

A (1)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그 백성들과 동행하는 방법을 제시하셨다.

(2)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과 지속적인 교제를 원하셨다.

(3) 또한 억압과 착취와 고통의 땅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4)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며 그들과의 교제를 원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것은 모두 사랑의 표현이다.

9. Q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어떻게 언급되었는가?** (14-39절)

A (1) 질병의 재화가 미치며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진다(16절).

(2) 적에게 패망한다. 소출(所出)은 대적이 먹고 또한 그들에게 다스림을 받는다(17절).
(3)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면 벌이 7배나 더하여진다(18절).
(4) 들짐승이 그들의 자녀를 잡아 먹고 그들의 육축을 감소시킨다(22절).
(5) 전쟁을 일으키신다(23-25절).
(6) 기근의 재화(災禍)를 보내신다(26절).
(7) 땅을 황무케 하고 멸망 중에 흩으신다(27-34절).
(8) 이와 같은 외형적인 저주는 곧 그들의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사라지게 하였다.

10. Q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치 않는 자의 결과는 무엇인가? (18절)
A (1) '칠 배나 더 징치(懲治)'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2) 이것은 징벌을 가중시키겠다는 뜻이다.
(3) 그러나 이 징계는 그들을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바라시는 죄인을 향한 사랑이다(참조, 히12:7-9).
(4)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며 원망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눈물 어린 회개를 간절히 원하시며 구원하기를 바라신다(딤전2:4).

11. Q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한다' 는 것은 무슨 뜻인가? (19절)
A (1) 이 말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며 그로 인해 땅이 굳어진다는 표현이다.
(2) 즉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더욱 징치하셔서 비를 내리지 않으며 그 결과 땅의 소산을 얻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이다.
(3)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수(報讐)는 인간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것이다.
(4) 성도들은 자기만이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죄까지 철저히 고백해야 한다.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회개를 가증히 여기신다(참조, 갈6:7).

12. Q 흉년과 기근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26, 29절)
A (1) 식량과 연료가 절대 부족한 모습을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참조, 왕하6:25;렘14:18;겔4:16).
(2) 또한 극도의 기근은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다(참조, 왕하6:28,29;애2:20;4:10).
(3) 이 말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도 회개치 않을 때에 필연적으로 당할 형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4)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의 방법이 명쾌하시다. 하나님은 그의 규율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을, 준행치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 성도들은 세상적인 쾌락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우왕 좌왕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유 부단한 자세를 원치 않으신다(참조, 계3:15).

13. Q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의 의미는 무엇인가? (30절)
A (1) 이 말씀은 어떤 구체적인 저주의 형태보다 무서운 말이다.
(2)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섭치 않겠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버린다는 뜻이다.
(3) 인간이 곤경에 빠진 경우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에서 구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곤경이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노의 결과로 내려진 것이라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4)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유기(遺棄)된 자는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다. 그에게는 더 이상 희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당신의 자녀로 택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삶을 드려야 한다(참조, 시 69:30; 100:4; 사 43:1; 골 3:15, 16).

14. Q **'열방 중에 흩을 것'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33절)**

A (1)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결과로 대적에게 패하고 포로가 되어 세계로 흩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다.

(2) 이것은 죄로 인하여 그 백성이 완전히 분산되는 것을 말한다.

(3) 본래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이방인들과 구별되었으나 이제는 징벌을 받아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는 저주가 임하였다.

(4) 이 예언은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성취되었으며 A. D. 70년 예루살렘 함락 사건으로 두번째 성취되어 오늘날 많은 유대인들이 전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것이다.

15. Q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34절)**

A (1)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그 백성들이 안식년이나 희년의 규례를 지키지 않으므로 안식(휴식)을 얻지 못하였다.

(2) 그러나 그들이 대적에게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 타국(他國)으로 끌려가게 될 때 본토 가나안은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므로 황무하게 되며 그 땅은 저절로 휴식을 취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3)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성도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창 19:24)과 본절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16. Q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써 쫓는 자가 없어도 넘어지는 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36절)**

A (1) 이것은 능력 상실을 의미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는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므로 외부의 어떤 정죄나 참소(讒訴) 또는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다.

(2)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우리는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떨어지므로 자신의 연약함 속에 쌓이게 된다.

(3) 사사 시대 때에 삼손의 경우는 이와 같은 예의 대표적인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방 여인 들릴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모두 상실하였다(삿 16장).

(4)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는 두번째 영향은 우리들로 하여금 능력을 상실케 하여 연약케 하므로 일의(또는 생활의) 진취성을 빼앗아 가 버린다(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능력의 근원으로 삼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자는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빼앗아 가시므로 의기 소침할 수밖에 없다).

(5) 따라서 그는 마음에 정죄 의식과 죄 의식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매사에 뒷자리를 차지하여 안일하고 도피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이에 대하여 지혜자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잠 28:1)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했다.

(6) 마지막으로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미치는 세번째의 영향은 원수(사단)에 대한 패배이다. 불순종한 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거두어 가시기 때문에 원수(사단)에 대항하여 당할 힘이 없다.

(7) 따라서 그는 밤낮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벧전 5:8) 원수(마귀)에게 패배를 당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원수를 이김으로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8) 우리들이 원수를 이기는 것은 이미 원수를 이겨 패배시키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어진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승리 탈취의 싸움은 이미 원수를 이기신 우리

주의 승리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누리며 그것을 방어하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삼손과 같이 패배했을 경우에는 비참과 치욕만이 우리들 가슴 깊숙히 남게 된다.

17. Q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A (1) 성경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삼상15:22)라고 말함으로써 순종의 중요성을 보여 주고 있다. 만약에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의 하나님께 대한 화려한 고백이나 심혈을 기울인 제사(예배)는 하나님께서 전혀 인정하시지 않는 가증스러운 위선의 물거품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순종의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의 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2) 하나님께 대한 이 순종은 우리의 구원에도 영향을 미친다.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 걸쳐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신다(롬3:27,28;5:1;갈2:16;빌3:9). 그러나 이 믿음은 순종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믿음은 순종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은 그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롬6:17;10:16). 왜냐하면 복음(또는 예수 그리스도)을 믿는다는 것은 그 복음이 의도하는 바를 마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3) 순종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난 영혼들을 더욱 성장케 하는 첩로(捷路)가 된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에 대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벧전1:21)라고 말하였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또는 그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들의 영혼은 더욱 깨끗해져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우리들의 영혼이 더욱 강해져 외부의 유혹과 더러움에 점과 흠이 없이 승리하며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4) 마지막으로 순종은 본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의 삶에 윤택한 축복을 가져다 준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약1:25)라고 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는 의미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며 또한 그들로부터 사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여 징계하신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형통하고 윤택한 삶을 살도록 하신다(시 1:3;요삼 1:2). 그런데 여기에서 물질의 풍요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온전한 결과라고 할 수는 없다.

본장의 요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2절).

제 27장 서원(誓願)에 관한 규례

단락구분 *1-8* 사람으로 서원하는 법 / *9-13* 짐승으로 서원하는 법 / *14-15* 가옥으로 서원하는 법 / *16-25* 토지로 서원하는 법 / *26-27* 처음 난 생축에 대하여 / *28-29* 헌물(獻物)에 대하여 / *30-34* 십일조 규정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3 너의 정한 값은 이십 세로 육십 세 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오십 세겔로 하고
4 여자이면 그 값을 삼십 세겔로 하며
5 오 세로 이십 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이십 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십 세겔로 하며
6 일 개월로 오 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은 오 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은 삼 세겔로 하며
7 육십 세 이상은 남자이면 그 값을 십 오 세겔로 하고 여자는 십 세겔로 하라
8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의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9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서원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10 그것을 변개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11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생축이면 그 생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 갈 것이요
12 제사장은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13 그가 그것을 무르려면 정가에 그 오분 일을 더할지니라
14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15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무르려면 정가한 돈에 그 오분 일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16 사람이 자기 기업 된 밭 얼마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두락수대로 정가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오십 세겔로 계산할지며
17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구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18 그 밭을 희년후에 구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그 정가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19 밭을 구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무르려면 정가한 돈에 그 오분 일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20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21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22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렸으면
23 너는 정가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너의 정가한 돈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지며
24 그 밭은 희년에 판 사람 곧 그 기업의 본주에게로 돌아갈지니라
25 너의 모든 정가를 성소의 세겔대로 하되 이십 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26 오직 생축의 첫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새끼라 우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27 부정한 짐승이면 너의 정가에 그 오분 일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의 정가대로 팔지니라
28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29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30 땅의 십분 일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십분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31 사람이 그 십분 일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오분 일을 더할 것이요
32 소나 양의 십분 일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33 그 우열을 교계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34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 | 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1. Q 본장의 개요와 특징을 말하라.
   A (1) 전장(前章), 즉 26장은 레위기 전체 규례의 결론이며 본장은 레위기 전체의 부록이다.
   (2) 특히 본장에 언급된 서원에 관한 규례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자발적인 헌신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신23:22, 23;잠20:25;전5:3-5).
   (3) 본장 후반부에는 소산의 십분의 일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십일조에 관한 규례를 언급하고 있다.
   (4) 레위기 전체의 규례는 출애굽 제 2년 제 1월 한 달 동안에 걸쳐 모세가 여호와로부터 받은 계시이다. 이 모든 말씀이 본장을 끝으로 막이 내린다.
2. Q 서원의 규례와 의미는 무엇인가? (2절)
   A (1) 서원(vow)은 히브리어로 〈네데르〉인데 '맹세','다짐'의 뜻이 있다.
   (2) 그러므로 서원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자원하여 맹세하는 것을 가리킨다.
   (3) 한 번 서원한 것을 번복하거나 폐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결과가 된다.
   (4) 이와 같이 서원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행위이므로 정직과 성실로 임해야 한다. 더우기 서원은 자신의 간절한 마음과 능력에 따라 해야 할 것이다.
   (5) 성도들이 흥분된 분위기와 들뜬 감정 속에서 경솔하게 서원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의 자세라고 볼 수 없다(참조, 전5:2).
3. Q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였는가? (3-8절)
   A (1) 사람을 직접 여호와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 돈으로 환산하여 그 돈을 성소에 바쳤다. 이때의 돈을 속전(贖錢)이라고 불렀다.
   (2) 20-60세의 남자는 은 50세겔이며 여자는 30세겔을 바쳤다(1세겔은 약 11.4g).
   (3) 5-20세의 남자는 은 20세겔이며 여자는 10세겔을 바쳤다.
   (4) 1개월-5세까지의 남자는 5세겔이며 여자는 3세겔을 바쳤다.
   (5) 60세 이상의 남자는 15세겔이며 여자는 10세겔을 바쳤다.
   (6) 위의 규정된 값을 지불할 수 없는 매우 가난한 자는 제사장 앞으로 인도되었으며 제사장은 그의 형편에 따라 값을 정하여 가난한 자가 드릴 수 있도록 하였다.
   (7) 속전의 차이는 사람의 노동력이나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른 것이며 사람의 인격을 값으로 환산한 것은 아니다(갈3:28).
4. Q 성소의 세겔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3절)
   A (1) 세겔은 무게 또는 화폐 단위이다.
   (2) 세겔에는 일반적으로 보통 세겔, 왕실 세겔이 있는데 성소에서만 사용되는 성소 세겔도 있었다.
   (3) 왕실 세겔은 보통 세겔의 두 배였으며 히브리인들은 거래를 하기 전에 먼저 측정 방법을 결정해야 했다.
   (4) 한 세겔은 약 11.4g이며 구약에서 은 30세겔은 한 사람의 노예 값이었다.
   (5) 더 자세한 내용은 출38장 Q 11을 참조하라.
5. Q 가난한 자가 서원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속전을 정하였는가? (8절)
   A (1) 서원자의 형세, 즉 능력에 따라 제사장에 의해서 알맞게 결정되었다.
   (2)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것이다.
   (3) 즉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와 감사의 마음이 더욱 중요하다.
   (4) 성도들은 헌금을 어떤 체면에 의해 혹은 교회 지도자들이나 주위 성도들의 인정을 받

기 위해 드려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헌금의 액수에 따라 성도의 인격까지 판단하는 과오를 범해서도 안 된다(참조, 막 12:41-44;고후 9:7).

6. **Q 가난한 자가 서원했을 경우 제사장이 서원자의 형편에 맞게 다시 값을 정하는 규례에서 느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8절)**

A (1) 이것은 능력에 맞는 헌납의 교훈을 보여 준다. 만약에 헌신자(서원자)가 자기의 분수에 지나친 것에도 불구하고 체면을 차리기 위해 헌납한다면 그것은 주위를 의식한 위선적인 허세에 불과하다. 단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향한 사랑에 감격하여 성령의 계시로 인한(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헌납은 예외이다.

(2) 그러나 반대로 충분한 여건과 풍성한 삶에도 불구하고 헌신할 때에 수준 이하의 헌신을 한다면 그것은 이기주의적인 탐욕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고후9:7) 능력에 맞게 헌신(서원)해야 한다.

(3) 또한 이와 같은 헌납의 의미는 헌납되는 물질의 많고 적음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포한다. 다시 말하면 헌납(헌신 또는 서원)은 그 헌납자의 마음과 그것을 행위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4) 한 때에 예수께서는 성전 입구에서 두 렙돈을 헌금궤에 넣는 가난한 과부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신 적이 있었다(막 12:41-44). 이는 그녀의 돈의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적은 돈일지라도 하나님께 대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헌금하였기 때문이다.

(5) 마지막으로 본절에는 가난한 자가 제사장에게 왔을 때에 제사장은 가난한 자가 헌납할 물질의 양을 정하고, 이에 가난한 자는 순종하여 그 물질의 양을 헌납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제사장에게 임한 하나님의 권위와 그의 뜻에 복종하는 헌납자의 순종(이것은 제사장이 비록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는 헌납자의 신앙에 기인한 것이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6) 이와 같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식하고 순종하는 신앙이야말로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일들이다.

(7)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벧전2:9;계1:6). 따라서 우리 모든 신자들은 형제들(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권고나 책망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권위를 발견하고 그 권고나 책망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8) 또한 반대로 각자 자신들 속에서도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을(요일2:27)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그의 뜻)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다(빌 2:13). 그리하여 우리들의 행동 거지(行動擧止)를 분명하고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

7. **Q 짐승을 드리기로 서원했을 경우 우열간 바꾸지 못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10절)**

A (1) 어떤 사람이 자기 짐승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했는데 후에 다른 짐승으로 바꾸어 드릴 수 없다는 뜻이다.

(2) 한 번 서원한 경우에 그 짐승은 이미 여호와께 바쳐진 것으로 간주하였다.

(3) 만일 다른 짐승으로(더 좋은 짐승으로) 바꾸어 드릴 경우에는 이전에 서원한 짐승은 바쳐진 상태로 두고 새로운 짐승으로 또 드렸다.

8. **Q 나귀와 같은 부정한 짐승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였는가? (11-13절)**

A (1) 부정한 짐승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예물로 바쳐질 수 없었다.

(2) 이때는 제사장이 그 부정한 짐승에 해당하는 값을 정하였으며 서원자는 그 정가(定價)를 여호와께 드렸다.

(3) 만일 서원자가 부정한 짐승을 여호와께 드리지 않고 다시 집으로 가져 갈 경우에는 그 짐승의 가치에 5분의 1을 더하여 무를 수 있었다.

9. Q **토지를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했을 때 두락수(斗落數)대로 정가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16절)

A (1) '두락수대로'란 말은 '그 땅의 씨를 따라'라는 뜻이다.

(2) 즉 땅에 씨를 뿌릴 수 있는 양에 따라 값을 결정하였다.

(3) 씨를 많이 뿌릴 수 있는 땅이면 높은 값을 여호와께 드렸으며, 적게 뿌릴 수 있는 땅이면 적게 드렸다.

(4) 어떤 종류의 헌금이든지 헌금은 먼저 감사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드려져야 할 것이며 자신의 능력과 분수에 맞게 정성드려 바쳐야 한다(참조, 민16:3).

10. Q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오십 세겔로 계산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6절)

A (1) 보리 한 호멜(약 220ℓ)을 뿌릴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 50세겔(약 570g)의 금액을 지불하는 비율로 서원하는 모든 토지에 대한 금액을 정하였다.

(2) 그러므로 보리 10분의 1호멜을 뿌릴 수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5세겔을 바쳤다.

(3) 유대인 학자들에 의하면 50세겔은 희년에서 다음 희년 사이, 즉 50년 동안의 소출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한다.

(4) 따라서 만약 그 밭을 무르기 원하는 사람(취소할 경우)은 매년 지불해야 하는 한 세겔과 한 세겔의 5분의 1, 즉 1.2세겔을 남은 해수에 곱해 얻게 되는 금액을 지불했다.

11. Q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의 의미는 무엇인가?** (28절)

A (1) '바친 그 물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인데 '저주를 받은 것', '없애기 위해 바쳐진 것' 등의 뜻이 있다.

(2) 이것은 파멸을 위해 바쳐진 것으로서 아주 끊어 버림을 당하는 것을 가리킨다.

(3) 하나님께서 극도의 죄악으로 멸망당하게 된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는데 이 경우 가나안 족속은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 된다.

(4) 미스바에 모이라는 회중의 결의를 반대하고 모이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 거민들도 모두 '바쳐진 자'로 지목되어 죽임을 당하였다(삿21:9, 10).

12. Q **땅의 십분의 일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30절)

A (1) 십일조에는 모든 재물이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있다.

(2) 여기서 땅의 10분의 1은 토지 자체의 10분의 1이 아니라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물의 10분의 1을 의미한다.

(3) 십일조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표현이므로 결코 축복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참조, 창14:20; 28:22; 신26:12; 대하31:5; 말3:10).

13. Q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는 우열을 교계(較計)하거나 바꿀 수 없다는 말은 어떻게 설명되는가?** (32, 33절)

A (1) 그 당시에는 가축의 수효를 셀 때 한 줄로 통과시키면서 채색한 막대기로 그 수를 세었다. 이렇게 셀 때 열번째 지나가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예물로 택하여졌다(참조, 렘33:13; 겔20:37).

(2) 이 경우 열번째 짐승이 흠이 있을지라도 다른 짐승으로 바꿀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이럴 때 그 열번째 짐승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둘 다 거룩하여져서 그것은 하나님의 성물로 드려야 했다.

14. Q **본장에 나타난 서원(거룩한 맹세)의 의미는 무엇인가?**

Ⓐ (1) 서원은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자원적인 봉헌의 행위이다. 이렇게 서원한 사람은 자신에게나 자기가 바치는 예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구한다.

(2) 서원을 할 경우에 오는 두 가지 유익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과 서원자와의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통하여 서원자는 독특한 특권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 둘째는 서원의 관계에서 오는 속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성소의 사역에 필요한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 이러한 특별한 맹세(서원)는 취소(무를)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하여 속전을 내야 한다. 하나님은 무리한 요구를 원하시지 않는다.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비록 서원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속(贖)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5분의 1의 배상금을 더 내도록 규정하셨다.

(4) 하나님의 용서가 곁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를 적당히 넘길 수는 없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이다.

15. Ⓠ **서원한 것을 무르려 하면 그 서원한 것의 오분의 일을 더 내야 했다. 이와 같은 원칙은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 무슨 교훈을 제시해 주는가?**

Ⓐ (1)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절대적인 헌납을 필연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당신의 뜻을 펴시고 당신의 영원한 계획을 이룩하시기 위하여서 인간과 그 인간의 물적 자원을 사용하신다. 그러나 본장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서원했다가 다시 무른다고 해서 그 대가로 5분의 1을 내므로 하나님께 대한 물적 헌납의 약속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2) 서원을 무르는 대가로 5분의 1을 더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부터 결코 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제시하는 한 원칙에 불과하다(참조, 사1:4;갈6:7). 피조물인 인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군의 주 앞에 서원했다는 것은 결코 변경하거나 경거 망동하게 철회할 수 없는 엄중한 맹세이다.

(3) 이러한 서원을 인간이 자신의 사정으로 말미암는 일방적인 이유로 철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경외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가볍게 대하는 경망스러운 행동일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서원한 것의 5분 1을 더 내게 하심으로 인간에 의한 당신의 권위의 실추(失墜)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4)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서원을 무르는 대가로 5분의 1을 내게 하신 것은 헌신에 대한 인간의 경솔한 관념과 자세를 배격하는 처사였다. 구약 시대에 인간이 사람이나 가축 가옥, 토지 등을 서원하는 것은 절대적인 당위성을 가진 율법의 의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원을 통해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의 행위였다.

(5) 따라서 서원자가 모든 것의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자발적인 헌신을 철회한다면 그는 자신의 헌신을 거짓과 위선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와 같은 행위는 하나님을 속이며 자신을 속이는 파렴치한 행위로 끝을 맺는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마음과 정신을 경솔하게 여기지 않도록 5분의 1을 더 내도록 하심으로써 경계하셨다.

화보자료

첫 태(胎)에 처음 난 자. 아래의 사진은 한 여인이 자신의 첫 아기를 품에 안고 기뻐하는 모습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셨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의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3:41).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자손들(3:13)을 대신하여 하나님께로 바쳐진 레위인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참조, 3:6). 그런데 레위인들 외의 일반인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할 수도 있었으니 이 경우에는 속전(贖錢)으로써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었다(1-9절).